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黃 琨 喜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柳宗元『記』文의 美的 表現 研究

2004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銀 順

柳宗元 『記』 文의 美的 表現 研究

黃理喜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銀 順

認 准 書

李銀順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本稿는 唐代 柳宗元(773~819)의 『記』文에 담긴 美的 表現을 분석한 연구이다.

山水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文學을 포함한 모든 예술 영역에, 소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美的 인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古代부터 문인들은 文學을 통해 山水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이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다. 人間社會와 상대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自然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본격적으로 文學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된 것은 바로 山水를 美的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文學家의 입장에서 볼 때, 山水의 美는 창조된다기보다는 발견되어 진다고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 그래서 이 山水의 美는 사회와 시대 및 개인에 따라 그 대상은 동일하지만 山水美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었다.

中唐 때의 柳宗元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思想家요 政治家이자 文學家였다. 그는 청년기에 王叔文이 이끄는 정치혁신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貶謫되는 불행을 만났다. 그는 貶謫 생활에서 오는 悲憤·挫折·孤獨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山水遊覽이나 승려들과 交遊, 창작활동에 몰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柳宗元은 山水를 遊覽하면서 발견하는 빼어난 경치를 보면서 美가 자연 속에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직접 山水를 찾아가고, 山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들을 詩文에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山水의 아

름다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식까지 조화롭게 비유·상징이라는 방법으로 기탁하였다.

本稿에서는 《柳宗元集》의 散文作品 총 457편중에서, 형식면에서 자유로우며, 文學性·藝術性이 뛰어난 『記』文 29편을 선별해서 분석해 보겠다. 특히 美的 表現으로 드러나는 柳宗元의 사상, 감정이 작품에 어떻게 이입되었는지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第I章 序論에서는 기존의 研究 現況을 살펴보고, 研究의 動機 및 目的 그리고 範圍를 설정하고자 한다.

第II章의 第1節에서는 山水遊記의 발전과정, 山水遊記의 정의를 살펴 보겠다. 작품의 내용을 통해 柳宗元이 永州·柳州라는 貶謫地 생활을 하면서 山水自然에게서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찾아 보았다. 柳宗元에게 있어 貶謫이라는 불운은 오히려 그를 文學創作에 몰입하게 하였고, 이는 후대에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山水遊記 문학은 수준 높은 秀作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평가로 입증해 보겠다. 그리고 山水描寫에서 드러나는 抒情美·意境美·畫境美는 藝術的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이러한 점을 분석해 보겠다.

第2節의 亭記·堂記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생기게 된 유래, 건축물을 세우게 된 이유나 동기, 버려진 땅을 발견하고 개간한 후에 그곳에 亭과 堂을 짓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덕행을 칭찬하였다. 亭記·堂記는 대부분 柳宗元이 청탁을 받아 지은 문장이라 타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다. 칭찬하는 인물들은 대개 숨겨진 山水의 美를 발견할 줄 알고 공통적으로 德行, 學文, 道를 겸비하였기 때문에 자연

과 어울리면서 융합되는 調和의 美를 살펴보겠다. 柳宗元은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 적합하여 가치를 드러내게 되면 높은 산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백성과 관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議論이 美로 드러나는 점을 살펴보겠다.

第3節에서는 佛敎와 관련된 記를 분석함으로써, 柳宗元의 佛理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알 수 있다. 또 貶謫地인 永州·柳州 지역은 당시 南宗禪이 한창 성행하던 지역이었다. 柳宗元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佛敎에 더욱 심취하였고, 깨달음을 향한 脫俗美가 문장 속에 드러나는 점을 살펴보겠다. 同時代에 古文運動을 함께 주도했던 韓愈의 排佛思想과는 달리, 柳宗元은 儒·佛·道 등의 諸家 사상을 좋고 나쁨을 선별하여 포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思想 방면의 깊이와 냉철한 사고를 알 수 있다. 柳宗元은 또 당시 사회는 佛敎의 잘못된 믿음으로 파생되어 만연하는 迷信에 대한 駮단을 지적하고 백성의 바른 社會敎化를 위한 노력을 통해 功利美를 나타내는 점을 살펴보겠다.

第Ⅲ章에서는 『記』文 창작상에 나타난 審美 특징을 幽境美와 崇高美로 분석해 보겠다. ‘幽’자를 즐겨 사용하는 柳宗元은 ‘幽’자의 경계는 格調가 은근하고 幽深하며, 놀리어 답답하고, 속으로 분한 감정, 幽寂하고, 깊고 깊으며(深邃), 보일 듯 말 듯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점을 살펴보겠다. 웅장하고, 광활하며, 넓고 크며, 깊고 넓다는 山水自然과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함께 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崇高美를 살펴보겠다.

柳宗元の『記』文은 대부분이 貶謫期에 창작되었기에, 柳宗元の 생활체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9편의『記』文 중 28편의 작품이 모두 貶謫期에 쓰여졌다. 이를 통해 柳宗元이 長安 시절보다 永州·柳州에서 훨씬 많은 양의『記』文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貶謫地에서의 문학활동의 왕성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통계이다. 질적 면에서도 柳宗元 문학의 특성을 대변해 주는 山水遊記가 貶謫期에 창작되었으니, 柳宗元の 遊記散文은 永州·柳州 시기에 開花되고 성숙되었다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韓愈와 柳宗元の 문장을 비교했는데, 혹자는 崇韓抑柳의 경향이 농후하였지만, 그러나 이『記』文에서 만큼은 韓愈가 柳宗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記』文에서 특히 美的 表現의 가치가 점차 높이 평가되고 있으므로, 柳宗元이 古文運動 과정에 이룩한 커다란 문학적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目 次

論文概要

| | |
|----------------------------------|-----|
| I. 序論 | 1 |
| 1. 研究 現況과 動機 | 1 |
| 2. 研究 目的과 範圍 | 10 |
| II. 『記』文의 美的 表現 분석 | 21 |
| 1. 山水遊記 | 21 |
| 1-1. 山水描寫의 抒情美 | 31 |
| 1-2. 山水描寫의 意境美 | 44 |
| 1-3. 山水描寫의 畫境美 | 55 |
| 2. 亭記·堂記 | 71 |
| 2-1. 自然과의 調和美 | 80 |
| 2-2. 山水描寫를 통한 議論美 | 91 |
| 3. 佛敎와 관련된 記 | 97 |
| 3-1. 佛敎思想을 통한 脫俗美 | 102 |
| 3-2. 迷信 부정을 통한 功利美 | 116 |
| III. 『記』文 창작상에 나타난 審美 특징 | 123 |
| 1. 幽境美 | 123 |
| 2. 崇高美 | 128 |
| IV. 結論 | 135 |

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1. 研究 現況과 動機

柳宗元(773~819)은 唐代의 진보적 思想家·政治家·文學家이자 韓愈와 함께 唐代 古文運動을 이끈 領袖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研究가 다각도로 進行되고 있다. 柳宗元과 관련된 研究 現況을 195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전에는 柳宗元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부진하였다. 이후에는 中國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柳宗元의 生涯·思想·文藝理論·創作研究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書籍·研究論文·新聞·學報 등의 형태로 발표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中國 廣西省 柳州市에서 “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¹⁾가 개최되었고, 2001년에는 永州市에서 “永州市柳宗元研究學會”²⁾가 설립되면서 柳宗元에 대한 研究와 세계적인 學術交流가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 本章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柳宗元 관련 연구를 1950年~1978年, 1979年~1990年, 1991年~현재까지로 구분하고 研究論文과 書籍 위주로 발표된 研究 現況을 살펴보겠다.

-
- 1) 1993년 개최된 “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에서 발표된 논문은 1994년에 梁超然과 謝漢強 主編하여 《國際柳宗元研究擷英》이란 제목으로 廣西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전세계 柳宗元의 연구동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 2) “永州市柳宗元研究學會”는 2001년 11월 10일 永州에서 會長 陳松柏과 柳宗元 研究者 80餘名이 모여 창립하였다. 2002년에는 “中國永州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가 개최되어 전세계적인 학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1950年～1978年】

| 著者 | 書名 | 出版社 | 出版年度 |
|-----|-------------|-------------------------|-------|
| 王韶生 | 〈柳柳州年譜補訂〉 | 知用叢刊, 第二集 | |
| 嚴薇青 | 〈柳宗元世系年譜〉 | 山東師院學報, 第一期 | 1957 |
| 施子愉 | 〈柳宗元年譜〉 | 武漢大學學報, 第一期, 湖北人民出版社 | 1958 |
| 吳文治 | 《柳宗元卷》 | 北京 中華書局 | 1961 |
| | 《柳宗元評傳》 | 北京 中華書局 | 1962 |
| 林紓 | 《韓柳文研究法》 | 上海 人民文學出版社 | 1664 |
| 章士釗 | 《柳文指要》 | 北京 中華書局 | 1971 |
| 段醒民 | 〈柳子厚家世考述〉 | 臺北 商專學報 | 民國 63 |
| | 《柳子厚寓言文學探微》 | 臺北 文津出版社 | 民國 67 |

이 시기에는 작가 연구에 있어서 선행되는 年譜作成에서부터 生涯・思想・文藝理論・創作研究 등으로 전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年譜는 시기에 따른 작가의 작품 경향을 살피고, 작품 자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年譜 연구로는 宋代 文安禮³⁾가 《柳先生年譜》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1950년대부터는 王韶生の 〈柳柳州年譜補訂〉, 嚴薇青의 〈柳宗元世系年譜〉, 施子愉의 〈柳宗元年譜〉 등이 상세한 考證을 거쳐 출판되었다. 이들은 柳宗元年譜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로도 柳宗元年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增補되고 있다. 吳文治의 《柳宗元卷》⁴⁾은 柳宗元 생존 당

3) 文安禮, 《柳先生年譜》, 四部刊要本 〈柳宗元集〉, 紹興 5年(1135).

시부터 5·4 運動에 이르기까지 460餘人の 480餘種의 문헌을 수집, 정리하였다. 역대 문인학자들이 논한 柳宗元의 思想과 詩文 創作에 대한 평론 자료를 위주로 生涯 및 事迹 등을 한데 모아 편찬하였다. 이 著作은 柳宗元과 그의 작품에 대한 歷代의 평론을 수집, 정리하고 散文을 고증, 해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章士釗의 《柳文指要》⁵⁾는 柳宗元에 대한 모든 研究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著作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上·下冊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冊은 ‘體要之部’라 하여 《柳宗元集》에 실린 45卷의 詩文 중에 卷1부터 卷41까지 순서에 따라 考證·評論하고 註釋을 달고 있다. 下冊은 ‘通要之部’라 하여 柳宗元과 그의 文에 관련된 政治·思想·文學·儒佛·柳詩·柳書·交友 등의 자료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매우 깊이 있는 研究를 하였다. 나아가 문제가 되는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해 정리하고 해설을 했다. 이러한 著作들은 훗날 柳宗元 연구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國內外 學術界를 막론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는 中國을 중심으로 柳宗元 研究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확립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1979년부터 中國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柳宗元 연구가 시작되었다. 本章에서는 中國, 韓國, 日本의 상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4) 《柳宗元卷》의 원제는 《古典文學研究資料匯編·柳宗元卷》이며, 1961년에 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되었다. 이후 추가 수집한 자료를 補編하여 1963년 8월에 이와 合編하고 1964년 초판이 나왔다.(洪承直,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992, p. 2 재인용.)

5) 《柳文指要》는 臺灣에서 行嚴, 《柳文探微》, 臺北 華正書局, 民國 70년에 복제 출판하였다.(洪承直,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上揭論文, p. 2)와 (吳洙亨, 〈柳宗元 散文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2, p. 6에서 재인용.)

【1979～1990】

| | 著者 | 書名 | 出版社 | 出版年度 |
|-----|-------------|-------------------------------|--------------|-------|
| 中國 | 顧易生 | 《柳宗元》 | 上海古籍出版社 | 1979 |
| | 羅聯添 | 《中國文學史論文選集》· 〈柳宗元二篇山水記的分析〉 | 臺北學生書局 | 1979 |
| | | 《柳子厚年譜》 | 臺灣大學國立編譯館 | 1981 |
| | 方介 | 〈柳宗元思想研究〉 | 臺灣大學碩士論文 | 1980 |
| | | 〈韓柳比較研究〉 | 臺灣大學博士論文 | 1990 |
| | 章行嚴 | 《柳文探微 上·中·下》 | 臺北 華正書局 | 1981 |
| | 孫昌武 | 《柳宗元傳論》 |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1982 |
| | 胡楚生 | 《柳文選析》 | 臺北 華正書局 | 1983 |
| | 蔡振璋 | 〈柳宗元山水文學研究〉 | 臺灣 東海大學碩士論文 | 1985 |
| | 高海夫 | 《柳宗元散論》 | 西安 人民出版社 | 1985 |
| | 金容杓 | 〈柳宗元散文研究〉 | 國立臺灣大碩士學位論文 | 民國 74 |
| | 朴井圭 | 〈柳宗元的遊記研究〉 | 臺灣高雄師範大學碩士論文 | 1986 |
| | 吳小林 | 《柳宗元散文藝術》 | 山西人民出版社 | 1989 |
| | | 〈論柳宗元散文的幽美〉 | 中國人民大學學報 | 1989 |
| | 劉光裕· 楊慧文 | 《柳宗元新傳》 | 上海 人民出版社 | 1989 |
| 何淑貞 | 《柳宗元詩研究》 | 臺北福記文化圖書有限公司 | 民國 78 | |
| | 《永州八記導讀》 | 中華書局 | 1990 | |
| 韓國 | 洪寅杓 | 《柳河東詩研究》 | 瑞麟出版社 | 1981 |
| | 柳銀姬 | 〈柳宗元の 傳과 山水記 考察〉 | 延世大學校碩士學位論文 | 1985 |
| | 劉世鍾 | 〈柳河東詩의 內容과 形式 分析〉 | 韓國外大碩士學位論文 | 1985 |
| | 洪承直 | 〈柳宗元 寓言文의 諷刺性 研究〉 | 高麗大碩士學位論文 | 1987 |

이 시기에는 方介⁶⁾의 〈柳宗元思想研究〉를 비롯하여, 柳宗元の 遊記·傳記·寓言·詩歌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다. 孫昌武⁷⁾의 《柳宗元傳論》은 柳宗元の 文學적 성취인 雜文·傳記·寓言·山水遊記·辭賦의 예술적 독창성을 연구해서 柳宗元の 文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劉光裕·楊慧文의 《柳宗元新傳》은 柳宗元 散文의 주제 및 문체에 대한 傳記的 성격을 띤 연구이다. 갈수록 傳記的 성격의 研究가 많아지는 이유는 近代의 학자들이 柳宗元の 詩文 못지 않게 그의 生涯 및 思想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吳小林의 《柳宗元散文藝術》은 柳宗元 산문에 대한 예술적 연구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最近의 散文美學的 접근 방식에 도움이 되고 있다. 何淑貞은 《永州八記導讀》은 ‘永州八記’의 名稱·內容分析·寫作技巧를 분석하고 여러 사람의 평가를 종합해서 總評을 하였다. 《柳宗元詩研究》에서는 柳宗元 詩의 體制와 내용을 분류하고 예술적 특색과 風格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柳宗元の 生涯·時代背景·思想·散文 중심의 文學이론을 살피고 있다. 洪寅杓⁸⁾의 《柳河東詩研究》는 柳宗元の 詩를 총망라하여 형식과 내용 및 作詩 배경과 版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
- 6) 方介는 이외에도 〈柳宗元의思想背景〉·〈柳宗元의中道思想〉臺北 書目季刊 第15卷 第1期·第2期, 民國 70. 〈柳宗元的經史文學思想〉臺北 國立編譯館館刊 第11卷 第1期, 民國 71. 〈柳宗元的天人思想〉·〈柳宗元的政治思想〉臺北 國立編譯館館刊 第12卷 第1期·第2期, 民國 72. 〈柳子厚生平述要〉, 臺北 中華文化復興季刊 第19卷 第9期, 民國 75. 〈陶淵明與柳先生傳疏證〉, 臺北 漢學研究 第5卷 第2期, 民國 76. 〈臺灣地區柳宗元研究現況(1958~1992)〉, 臺北 中國唐代學會會刊 第4期, 民國 82. 〈韓柳交誼與相互影響〉, 臺北 國立編譯館館刊 第23卷 第1期 民國 83. 〈柳宗元伊尹五就桀贊析論〉, 臺北 國立編譯館館刊 第24卷 第2期 民國 85. 〈柳宗元的愚者形象〉, 臺北 故宮學術季刊 第15卷 第1期, 民國 86. 〈韓柳對儒釋道的取捨〉, 臺北 中正大學中文學術年刊創刊號, 民國 86 등으로 柳宗元の 思想에 대한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 7) 孫昌武는 이외에도 〈試論柳宗元‘生人之意’的社會思想〉, 文學評論叢刊, 第五輯 1980. 〈試論柳宗元的散文藝術〉, 南開學報 1980. 〈試論柳宗元的統合儒釋思想〉, 中國哲學史研究輯刊, 第一輯 1980. 〈陸質的‘春秋學’和柳宗元的‘大中之道’〉, 中國哲學史論文集, 第二集 1980 등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8) 이외에도 〈永州八記에 대하여〉, 明知語文學 第5輯, 1972. 〈對偶說의 成立과 變遷〉, 明知語文學 第6輯, 1974. 〈書啓에 나타난 柳宗元思想〉, 中國文學 第1輯, 韓國中國語文學會, 1973. 〈柳宗元の 古賦 研究〉,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報, 1983 등이 있다.

【1991～현재까지】

| 著者 | 書名 | 出版社 | 出版年度 | |
|-----|--------------------|---------------------------------|---------------------|-------|
| 中國 | 黃綿鈺 | 《日本研究柳宗元概述》 | 臺灣唐代文學研究第五輯，廣西師大出版社 | 1994 |
| | 王晋光 | 《柳宗元指瑕例証略析》 | 臺灣唐代文學研究第五輯，廣西師大出版社 | 1994 |
| | 楊慧文 | 《柳宗元和呂溫—柳宗元交游論》 | 臺灣唐代文學研究第五輯，廣西師大出版社 | 1994 |
| | 吳小林 | 《中國散文美學》 | 臺北 里仁書局 | 民國 84 |
| | 顧易生·胡士明 | 《柳宗元及其作品選》 | 上海古籍出版社 | 1998 |
| | 吳文治 | 《柳宗元選集》 | 人民文學出版社 | 1998 |
| | 高文·屈光 | 《柳宗元選集》 | 上海古籍出版社 | 1999 |
| | 張清華 | 《唐宋散文》 | 廣西師大出版社 | 2000 |
| 韓國 | 朴璟蘭 | 〈柳河東「著述之文」에 나타난 思想研究〉 | 漢陽大碩士學位論文 | 1990 |
| | 吳洙亨 | 〈柳宗元散文研究〉 | 서울大博士學位論文 | 1992 |
| | 洪承直 |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 高麗大博士學位論文 | 1992 |
| | 林春英 | 〈柳宗元 傳記·寓言散文 研究 —敘事的 性格을 中心으로—〉 | 韓國外大碩士學位論文 | 1993 |
| | | 〈柳宗元 散文의 藝術的 特性 研究〉 | 韓國外大博士學位論文 | 2003 |
| | 林玄鎬 | 〈柳宗元の‘永州八記’研究〉 | 慶熙大碩士學位論文 | 1994 |
| | 金俊亨 | 〈柳宗元の 山水遊記 研究〉 | 明知大碩士學位論文 | 1995 |
| | 李賢 | 〈柳宗元の‘永州八記’考察〉 | 慶星大碩士學位論文 | 1996 |
| | 南哲鎭 | 〈柳宗元 寓言 研究〉 | 延世大碩士學位論文 | 1997 |
| | 白光俊 | 〈柳宗元の 諷刺文學 研究〉 | 서울大碩士學位論文 | 1997 |
| | 蔡聖淑 | 〈柳宗元の 寓言文 研究〉 | 全南大碩士學位論文 | 2000 |
| | 洪銀彬 | 〈柳宗元 山水紀遊詩文의 境界 研究〉 | 高麗大碩士學位論文 | 2001 |
| 林孝燮 | 〈柳宗元詩의 內面意識 變化 研究〉 | 韓國外大博士學位論文 | 2003 | |

【1991~ 현재까지】

| 著者 | | 書名 | 出版社 | 出版年度 |
|----|---------------|---------------------------|-------|------|
| 日本 | 新海一 | 《當代日本の柳宗元研究》 ・《柳文研究序說》 | 汲古書院 | 1987 |
| | 戶崎哲彦 | 《柳宗元永州山水遊記考》 | 中山出版社 | 1996 |
| | 松本 肇 ・川合康三 | 《中唐文學の視角》 | 創文社 | 1998 |
| | 松本 肇 | 《柳宗元研究》 | 創文社 | 1999 |

이 시기에는 吳小林의 《中國散文美學》을 보면 최근의 산문에 대한 관심이 美學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柳宗元의 散文美學 관점을 “盡天下之奇味以足於口(천하의 기이한 맛을 총동원해서 입맛을 충족시키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散文의 다양성을 조화의 美로 숭상한 柳宗元의 이론과 실천이 후세 散文美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국내에서도 중국 못지 않게 柳宗元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吳洙亨⁹⁾의 〈柳宗元散文研究〉에서는 柳宗元의 詩歌를 제외한 전체 문장에 대한 특징과 의의를 조감·재조명하고, 思想·文學的 주장의 특징과 고문 이론의 발전과정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柳宗元 문장을 姚鼐의 《古文辭類纂》의 十三類 분류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¹⁰⁾ 標題·用途·內

9) 吳洙亨은 이외에도 〈柳宗元·蘇軾의 諷刺散文 比較 研究〉, 韓國中語中文學會, 中語中文學, 1998. 〈柳宗元 散文의 再照明—進歩的 民權思想과 散文의 大衆化〉, 中國學報 第35輯, 中國學會, 1995. 〈柳宗元 〈三戒〉의 現代的 教學〉, 韓國中國散文學會, 1998 등이 있다.

10) 清代 姚鼐(1731~1815)은 安徽省 桐城縣 사람으로, 字는 姬傳, 또는 夢谷이다. 軒名

容·藝術的 特性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三文·十三類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문체에 해당하는 작품의 특징과 문체 개혁의 성과도 밝혀 놓고 있다. 洪承直¹¹⁾의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도 柳宗元 산문을 姚鼐의 《古文辭類纂》의 十三類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현대적 문체를 사용하여, 一論說·遊記·傳記·寓言·書信·贈序·祭文·碑誌— 八類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다. 十三類 중의 하나인 雜記라는 모호하고 편의적인 분류 방법을 탈피하여 ‘遊記’라고 분류하였다. 여기서 文學性和 藝術性이 뛰어난 점을 평가하고, 각 文體의 설정 동기와 작품 현황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林孝燮의 〈柳宗元詩의 內面意識 變化 研究〉에서는 柳宗元 詩의 時期別 특징과 변화과정을 ‘내면의 집착’과 ‘초월의 葛藤構造’로 파악함으로써 드러냄과 숨김의 美學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즉 柳宗元 內面意識의 主體的인 變化에 따른 창작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林春映의 〈柳宗元 散文의 藝術的 特性 研究〉에서는 柳宗元 산문을 미적 구조와 미적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성이 풍부한 散文으로 보고, 前代를 초월함과 동시에 當代의 다른 散文家들의 작품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을 惜抱라 하여, 세칭 惜抱先生이라 불린다. 《古文辭類纂》에서 論辨類·序跋類·奏議類·詔令類·書說類·贈序類·傳狀類·碑誌類·雜記類·箴銘類·頌讚類·哀祭類·辭賦類 十三類로 분류하고 있다.

- 11) 洪承直은 이외에도 〈柳宗元の「論」體 研究〉, 中國語文論叢 第3輯, 中國語文研究會, 1990. 〈柳宗元の 遊記研究〉, 中國學論叢 第5輯, 中國學研究會, 1991. 〈柳宗元の 贈序 研究〉, 中國學論叢 第6輯, 中國學研究會, 1991. 〈柳宗元の 碑誌 研究〉, 中國語文論叢 第5輯, 中國語文研究會, 1992. 〈柳宗元の 創作意識과 散文의 成就〉, 中國學論叢 第7輯, 中國學研究會, 1993. 《柳宗元〈始得西山宴遊記〉의 文學적 번역》, 中國散文論叢, 1999. 〈辭賦에 나타난 柳宗元の 憂患 의식〉, 中國語文論叢, 中國語文研究會, 2000. 〈柳宗元 遊記의 詩的 要素〉, 中國散文論叢, 第1輯, 2000. 《柳宗元 辭賦의 패러디 構造 考察—〈愈膏盲疾賦〉를 통하여》, 中國語文論叢, 中國語文研究會, 2002 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업적을 기저로 하고 텍스트에 대한 添削을 통해서 柳宗元 산문이 가지는 문학 藝術的 특징을 규정한 연구이다. 특히 柳宗元이 산문에서 발휘한 形象化 과정과 그가 이룩한 審美的 境界를 밝혀 文學藝術을 규명하였는데, 體現되는 현상을 悲劇美·滑稽美·崇高美로 분류하고 美의 대상과 審美效果를 바탕으로 예술미를 분석하였다. 美學的 접근 연구방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주목되는 研究이다.

日本에서의 柳宗元 연구는 대체적으로 考證 方面과 山水遊記, 寓言, 傳記 중에서 개별적인 작품을 분석한 단편 논문이 대부분이다.

柳宗元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中國에서만 진행되어 온 研究論文을 종합해 보아도 이미 900餘篇에 달하는 광범위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¹²⁾ 그 중에서 柳宗元의 山水遊記에 비교적 집중된 研究論文이나 書籍으로는 中國에서 蔡振璋의 〈柳宗元山水文學研究〉, 朴井圭의 〈柳宗元的遊記研究〉, 吳小林的《柳宗元散文藝術》, 何淑貞의《永州八記導讀》 등이 있다. 日本에는 戶崎哲彦의《柳宗元永州山水遊記考》 등이 있다. 한국에는 柳銀姬의 〈柳宗元的 傳과 山水記 考察〉, 林玄鎬의 〈柳宗元的 ‘永州八記’ 研究〉, 金俊亨의 〈柳宗元的 山水遊記 研究〉, 李賢의 〈柳宗元的 ‘永州八記’ 考察〉, 洪銀彬의 〈柳宗元 山水紀遊詩文的 境界 研究〉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山水遊記에 대한 研究이지만 柳宗元의 ‘永州八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永州八記’를 비롯하여《柳宗元集》에서 분류하고 있는 『記』 文을 좀 더 확대하고 문장에 나타나는 美的 表現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本稿에서 柳宗元과 관련된 연구 조사의 통계 자료는 “永州市柳宗元研究學會”에서 1979년~2002년 6월까지의 작품을 분류하고 있는《柳宗元研究論著索引》을 참조하였다.

2. 研究 目的과 範圍

柳宗元¹³⁾은 21세에 進士科¹⁴⁾에 합격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進步的이고 革新的인 사상으로 王叔文 集團의¹⁵⁾ 政治革新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政治革新이 실패함으로써 가담했던 王叔文 集團은 모두 貶謫 당하였다.¹⁶⁾ 이때 柳宗元 역시 연루되어 長安과 멀리 떨어져 있고 황폐한 곳인 永州로 貶謫되는데, 이 때의 상황을 〈永州龍興寺西軒記〉에서 밝히고 있다.

永貞元年(805)에 나는 政治革新 집단의 당원이라 해서, 尙書省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邵州로 貶謫되어 가는 도중에 다시 永州司馬로 貶謫되

-
- 13) 柳宗元(773~819)의 字는 子厚이며 본적이 河東(지금의 山西省 永濟縣)이므로 柳河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혹은 柳州에서 세상을 떠났으므로 柳柳州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長安(지금의 陝西省 西安市)에서 태어나서, 永州(지금의 湖南省 零陵縣)로 貶謫되었다가 다시 柳州(지금의 廣西省 柳州市)로 貶謫되어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 14) 進士科는 高宗 말기부터 玄宗 때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다 開元25년(737)에 帖一大經·雜文試詩賦·及試對策 등 세 과목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雜文試詩賦 위주로 인재 선발이 이루어졌다. 唐代 進士科 출신이 최고 요직인 재상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唐 憲宗부터 懿宗까지의 재상 133명 가운데 進士科 출신이 98명, 전체 재상 중에도 進士科 출신이 많았다. 柳宗元의 진사와 합격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 포부와 입지를 예측할 수 있다. 劉虹, 《中國選士制度史》, 湖南教育出版社, 1992, p. 148.
- 15) ‘王叔文, 王伾, 劉禹錫, 韋執誼, 呂溫, 韓曄, 陳諫, 凌準, 程異’ 등으로 當時 출신성분이 비교적 낮고 학문에 재능이 있는 進士科 출신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 16) 二王으로 불리는 王叔文과 王伾는 渝州司戶와 開州司馬로 각각 貶謫 당했다가 王叔文은 이듬해에 賜死 당하고, 王伾는 貶謫 이후에 病死했다. 그 외 ‘八司馬’로 불리는 劉禹錫은 朗州司馬, 韋執誼는 崖州司馬, 韓秦은 虔州司馬, 陳諫은 台州司馬, 韓曄은 饒州司馬, 凌準은 連州司馬, 程異는 郴州司馬로 폄적되었다. 柳宗元을 포함해서 ‘八司馬’라 부른다. 孫昌武, 《柳宗元傳論》, 人民文學出版社, 1982, p. 131. 中國史에서는 ‘二王八司馬事件’이라고도 말한다.

었다. 貶謫地에 이르렀으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龍興寺 서쪽 곁방 아래에 거처했다.¹⁷⁾

永州에서 柳宗元의 공식 직함은 ‘守永州司馬員外置同正員’이었다. ‘守○○○○員外置同正員’이라는 직위는 貫籍에 등록되지 않는 정원 이외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館廬도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업무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이다.¹⁸⁾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에서도 “나는 永州司馬로 貶謫 되었을 때, 閒職의 자리에 있게 되니 할 일이 없어 마음이 한가하였다”¹⁹⁾고 말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柳宗元은 政治革新 실패를 겪은 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貶謫地는 황량하고 외진 곳으로 풍속 또한 長安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니, 이 시기 柳宗元의 창작 활동을 “그의 피눈물 나는 체험의 표출이다.”²⁰⁾라고 지적할 정도로 악조건인 貶謫地 환경을 알 수 있다. 고통의 시간을 달래기 위해 柳宗元은 讀書와 修養 그리고 創作活動에 몰두하면서 지냈다.²¹⁾ 永州에서 10년의 貶謫 生活이 끝나고 長安에 소환 명령을 받고 가던 중에,

17)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西軒記〉：“永貞年，余名在黨人，不容於尚書省。出爲邵州，道貶永州司馬。至則無以爲居，居龍興寺西序之下。”

18) 《柳宗元集》，卷40 〈祭呂衡州溫文〉：“維元和六年，歲次辛卯九月癸巳朔某日，友人守永州司馬員外置同正員柳宗元。”

19) 《柳宗元集》，卷28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余時謫爲州司馬，官外乎常員，而心得無事。”

20) 段醒民，《柳子厚寓言文學探微》，臺北 文津出版社，民國 67，p. 74.

21) 《柳宗元集》，卷31 〈答吳武陵論〈非國語〉書〉：“自爲罪人，捨恐懼，則閑無事，故聊復爲之。然而輔時及物之道，不可陳於今，則宜垂於後：죄인이 된 이후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빼면 한가하여 할 일이 없기에 문장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輔時及物(시대에 도움이 되고 만물에 혜택을 준다).’의 道를 오늘날 펼칠 수 없다면 마땅히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柳宗元集》，卷33 〈賀進士王參元失火書〉：“僕近亦好作文，與在京城時頗異：저는 요즘에도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경성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長安과는 더 멀고 永州보다는 생활 환경이 더욱 열악한 柳州의 행정책임자인 刺史로 再貶謫되는 불행의 연속이었다.²²⁾ 貶謫地 생활로 점철되는 작자의 인생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은 永州·柳州的 山水風景이 특별히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점이다. 柳宗元은 시간이 나면 항상 山水를 遊覽하며 감상하고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詩文 짓기를 즐거움으로 삼아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위로하였다. 山水를 찾아 遊覽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여 山水遊記라는 예술성 높은 작품을 짓게 된 것이다. 山水遊記 중에서도 ‘永州八記’는 後代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²³⁾ 이 시기 창작된 작품의 내용에는 당연히 작자의 불우한 경험을 바탕으로 悲憤·挫折·孤獨 그리고 긴 세월 고향을 그리워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安慰를 구하기보다는 “시대에 도움이 되고 만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道”²⁴⁾로써 문장을 짓겠다는 창작 태도를 보였다. 이는 後代에 그가 문학에서만 아니라 政治家·思想家로서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唐代 古文運動의 領袖인 柳宗元和 韓愈는 다른 문체의 산문뿐만 아니라 『記』文의 창작에서도 뛰어난 문체를 발휘하여 그들의 『記』文은 후대에 『記』文의 正體로 인정되었다는 평가를 받

22) 《舊唐書》，卷41，志21，地理4，p. 1735，“柳州，(…)天寶，(…)戶二千二百三十二，口一萬一千五百五十。至京師水陸相乘五千四百七十里：柳州는 長安에서 5,470里으나 떨어진 永州보다 훨씬 먼 곳으로 天寶 때에 2,232戶에 人口가 11,550명밖에 안되는 小州로 험준한 산악지대다.”라고 했다.

23) 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上海古籍出版社，1984，pp. 342~343，“尤其是柳宗元的山水小品，刻劃精巧，文字細密，是當日散文運動中的最高收穫。在如當代的傳奇文，也可以說是這一個運動的副產物： 더욱이 柳宗元的 山水小品은 정교하게 묘사되고 문자 또한 세밀하여 당시 散文運動의 가장 뛰어난 수확이며 당시의 傳奇文 또한 이 운동의 副產物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 《柳宗元集》，卷31 〈答吳武陵論〈非國語〉書〉：“以輔時及物爲道。”

고 있다.²⁵⁾ 그러나 柳宗元의 ‘永州八記’가 山水遊記 문학을 한 차원 높은 수작으로 평가되면서 ‘永州八記’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다. 本稿에서는 ‘永州八記’ 이외에도 《柳宗元集》²⁶⁾의 기타 『記』 文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柳宗元은 중앙정계에서 排斥당한 신분이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유나 상징 등의 형태로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유, 상징 등을 작품에 운용하는 작자는 당연히 한번 더 깊이 思考하고 창작에 몰두하였을 것이다. 柳宗元의 남다른 人生 경험은 오히려 현실정신과 사회작용 그리고 산문의 문학적 기능과 심미 특징을 강조하는 작용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과 감정의 바탕에 그만의 創作技法을 더한 詩文은 높은 藝術的 가치로 昇華되어 思想的·文學的·藝術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에 남다른 人生航路를 따라 자신의 마음을 創作에 몰입하여 높은 예술적 경지로 이끌어낸 內面意識이 『記』 文에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柳宗元集》에 수록되어 있는 『記』 文類 작품을 모두 39편으로 본다. 그중 36편은 卷26의 記官署 10편²⁷⁾, 卷27의 記亭池 6편²⁸⁾, 卷28의 記祠廟 9편²⁹⁾, 卷29의 記山水 11편이다.³⁰⁾ 나머지 3편은

25) 唐潤熙, 〈宋代 古文家の「記」文 研究〉, 서울大碩士學位論文, 1997, p. 11.

26) 本稿에서는 中華書局에서 校主한 《柳宗元集》全四冊, 2000년을 참고로 하였다.

27) 《柳宗元集》, 卷26의 記官署는 〈監察使壁記〉·〈四門助教廳壁記〉·〈武功縣丞廳壁記〉·〈周至縣新食堂記〉·〈諸使兼御使丞壁記〉·〈館驛使壁記〉·〈嶺南節度饗軍堂記〉·〈邠寧進奏院記〉·〈興州江運記〉·〈全義顯北門記〉 10편이다.

28) 《柳宗元集》, 卷27의 記亭池는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永州韋使君新堂記〉·〈永州崔中丞萬石亭記〉·〈零陵三亭記〉 6편이다.

29) 《柳宗元集》, 卷28의 記祠廟는 〈零陵郡復乳穴記〉·〈道州毀鼻亭神記〉·〈永州龍

卷24에 ‘~序’, ‘序~’의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遊記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³¹⁾ 清代 姚鼐(1731~1815)의 《古文辭類纂》에서도 “혹자는 柳子厚의 紀事小文을 序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실은 記에 속한다.”고 말하였다.³²⁾ 이에 〈陪永州崔使君遊宴南池序〉·〈序飲〉·〈愚溪詩序〉 3편을 本稿의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나 卷26 記官署 10편은 官署와 관련된 작품들로 柳宗元이 長安 시기에³³⁾ 지은 단순한 기록을 위한 記이거나 備忘을 위한 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³⁴⁾ 전체적 내용면에서 藝術美를 강조한 本稿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문학적 예술미가 돋보이는 29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第Ⅰ章 序論에서는 기존의 研究 現況과 研究 動機 그리고 目的과 範圍를 설정해본다.

第Ⅱ章에서는 『記』文의 내용을 山水遊記, 亭記·堂記, 佛敎와 관련된 記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興寺息壤記〉·〈永州龍興寺東丘記〉·〈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永州龍興寺西軒記〉·〈柳州復大雲寺記〉·〈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永州鐵爐步志〉 9편이다.

30) 《柳宗元集》, 卷29의 記山水는 〈遊黃溪記〉·〈始得西山宴遊記〉·〈鉗鉞潭記〉·〈鉗鉞潭西小丘記〉·〈至小丘西小石潭記〉·〈袁家渴記〉·〈石渠記〉·〈石澗記〉·〈小石城山記〉·〈柳州東亭記〉·〈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 11편이다.

31) 《柳宗元集》, 卷24의 序에 있는 〈陪永州崔使君遊宴南池序〉·〈序飲〉·〈愚溪詩序〉 3편을 대상으로 한다.

32) 姚鼐의 《古文辭類纂》·〈序〉: “柳子厚紀事小文, 或謂之序, 然實記之類者.”

33) 柳宗元이 秘書省校書郎, 集賢殿書院正字, 藍田尉, 監察御使裏行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문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이었다. 卷26의 記官署 내용은 관청의 벽이나 대문에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당 관직의 내력·역할·임무 등을 서술하거나 그 관직을 거쳐간 인물의 공적을 서술함으로써 관리에게 교훈과 귀감을 보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洪承直, 〈柳宗元 寓言文의 諷刺性 研究〉, 高麗大碩士學位論文, 1987, p. 62.

34)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上揭論文, p. 268.

第1節의 山水遊記에서는 卷29 記山水〈遊黃溪記〉·〈始得西山宴遊記〉·〈鉬鉬潭記〉·〈鉬鉬潭西小丘記〉·〈至小丘西小石潭記〉·〈袁家渴記〉·〈石渠記〉·〈石澗記〉·〈小石城山記〉 9편과 卷28 記祠廟의〈永州龍興寺東丘記〉 1편 그리고 卷24의〈陪永州崔使君遊宴南池序〉·〈序飲〉·〈愚溪詩序〉 3편을 포함한 13편으로 분류한다. 그는 山水를 선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데, 抒情美·意境美·畫境美를 느끼게 하는 美的 表現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柳宗元集》의 분류에 따른 卷29 記山水에서 柳州 시기에 지은〈柳州東亭記〉·〈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는 山水遊記와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卷27 記亭池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本稿에서는 亭記·堂記에 분류한다. 第1節의 山水遊記에 해당하는 작품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山水遊記]

| 篇 名 | 內 容 | 創作年代 |
|----------|--|-----------|
| 始得西山宴遊記 | 永州에 貶謫되어 산수를 찾는 심리와 山水에서 취하는 행동을 서술했다. '永州八記'의 첫편이다. | 元和4年(809) |
| 鉬鉬潭記 | 鉬鉬潭의 위치와 形勢 그리고 潭 위의 밭을 사서 개축한 모습을 서술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을 볼 수 있다. | 元和4年(809) |
| 鉬鉬潭西小丘記 | 鉬鉬潭 서쪽의 언덕을 묘사하고 그 언덕을 산 緣由를 밝혔다. '唐氏之其地'라고 표현하여 貶謫된 자신을 비유했다. 遊覽하고 감상하는 모습과 絶境을 묘사했다. | 元和4年(809) |
| 至小丘西小石潭記 | 小丘에서 서쪽으로 가서 小石潭에 이르는 과정과 潭水와 물고기 그리고 潭水 위의 景物 묘사를 하고 있다. | 元和4年(809) |
| 袁家渴記 | 袁家渴의 위치와 주위 風景을 山·木·草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景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元和7年(812) |

[山水遊記]

| 篇名 | 내용 | 創作年代 |
|-------------|--|-----------|
| 石渠記 | 石渠 발견한 뒤 개간하고 石渠와 주위 景物을 물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 | 元和7年(812) |
| 石澗記 | 石澗을 찾고 개관하고 돌로 바닥을 이룬 일과 물의 흐름 등을 서술하고 石澗을 정리하니 나타나는 情景를 묘사했다. | 元和7年(812) |
| 小石城山記 | 西山으로부터 小石城山에 到達하는 과정과 아름다운 경치가 蠻夷의 땅에 있는 모습을 보고 神의 존재를 의심하는 내용을 서술했다. '永州八記'의 마지막 篇이다. | 元和7年(812) |
| 遊黃溪記 | 뛰어나게 아름다운 黃溪를 따라 가다보면 黃神祠가 나오고 黃神祠 주위 風景을 묘사했다. | 元和8年(813) |
| 陪永州崔使君遊宴南池序 | 永州刺史 崔敏과 함께 미려한 永州를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감상하고 돌아와 美麗한 산수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하지는 못한다고 서술하였다. | 元和3年(808) |
| 序飲 | 계곡 바위에 앉아 술 마신 일을 기록하였다. 음주한 장소, 음주 방법, 심판관을 둔 일, 그리고 취하게 마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 元和4年(809) |
| 愚溪詩序 | 계곡을 비롯한 주변의 여덟 가지 사물에 어리석다는 '愚'자를 넣어 명명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냄과 동시에 소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유하고 있다. | 元和1年(806) |
| 永州龍興寺東丘記 | 遊覽에는 두가지 '曠의 美'와 '奧의 美'가 있고, 龍興寺 東丘의 '曠'과 '奧'를 언급하면서 東丘를 얻음으로서 만족하는 심정을 나타냈다. | |

第2節의 亭記·堂記에서는 卷27 記亭池에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永州韋使君新堂記〉·〈永州崔中丞萬石亭記〉·〈零陵三亭記〉 6편과 卷29 記山水에서 분류한 〈柳州東亭記〉·〈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 2편을 분석한다. 그리고 卷28 記祠廟의 〈零陵郡復乳穴記〉·〈永州鐵爐步志〉 2편에서는 議論性이 두드러지므로 議論의 審美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亭記·堂記의 내용은 亭과 堂을 건축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밝히고 그곳 주인들의 인품을 頌德하면서 작자의 생각을 議論으로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건축물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루는 조화의 美도 볼 수 있다. 즉 柳宗元은 亭記·堂記에서 敘事 이외에도 議論의 성분을 가미함으로써 『記』文이 단순한 기록일 뿐 아니라, 사건과 記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第2節의 亭記·堂記에 속하는 작품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亭記 · 堂記]

| 篇名 | 내용 | 創作年代 |
|--------------|--|------------|
|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 | 潭州刺史 楊中丞이 지은 東池戴氏堂의 절경을 묘사하고 그들의 德을 칭송했다. | 元和元年(805) |
| 桂州裴中丞作湄家洲亭記 | 裴中丞이 亭子를 세우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절경 묘사하고 裴씨의 안목과 功을 칭송했다 | 元和13年(818) |
|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 馬退山 환경과 偏僻됨을 서술하고 從兄인 柳寬이 亭子를 지은 일과 유람하고 亭子와 山을 묘사했다. | 元和6年(811) |
| 永州韋使君新堂記 | 永州刺史 韋彪의 新堂記로 위치와 地形에 대하여 기록하고 賓客의 韋公의 德을 칭송했다. | 元和元年(805) |
| 永州崔中丞萬石亭記 | 永州刺史 崔能이 萬石亭을 세운 것과 崔公의 德을 漢代 萬石亭 別號에 比喻하여 칭송했다. | 元和10年(815) |
| 零陵三亭記 | 零陵 동쪽 棄地에 薛存義가 와서 與民同樂하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三亭을 짓는 것과 경치를 묘사하고 薛氏가 행하는 道를 칭송했다. | 元和元年(805) |
| 柳州東亭記 | 柳州的 東亭의 환경과 東亭을 세운 일을 기록하고 ‘棄地’의 발견과 위치 그곳을 정리한 일 등을 서술했다. | 元和12年(817) |
| 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 | 관아 주변을 유람하고 柳州를 중심으로 東西南北의 順序에 따라 柳州 부근의 유람할 가치가 있는 山水景物을 묘사했다. | |

第3節의 佛敎와 관련된 記에서는 卷28 記祠廟, 〈零陵郡復乳穴記〉 · 〈道州毀鼻亭神記〉 · 〈永州龍興寺息壤記〉 · 〈永州龍興寺東丘記〉 ·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 〈永州龍興寺西軒記〉 · 〈柳州復大雲寺記〉 ·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 · 〈永州鐵爐步志〉 중에서 柳宗元 佛敎思想을 엿볼 수 있는 작품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 ·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 〈永州龍興寺西軒記〉 · 〈柳州復大雲寺記〉 등의 4편을 구분하였다. 〈道州毀鼻亭神記〉 · 〈永州龍興寺息壤記〉 2편에서는 특히 그의 迷信에 대한 강한 부정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零陵郡復乳穴記〉 · 〈永州鐵爐步志〉 2편은 다른 작품에 비해 議論性이 두드러지므로 第2節의 亭記 · 堂記에서 山水描寫를 통한 議論美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第3節의 佛敎寺院과 관련된 記의 대상 작품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佛敎寺院과 관련된 記]

| 篇 名 | 內 容 | 創 作 年 代 |
|----------------|---|------------|
| 零陵郡復乳穴記 | 零陵郡(連州郡)에서 나는 鐘乳石가 나지 않다가 崔公이 부임해오자 다시 생산되는 사연을 밝히며 崔公의 교화를 칭송했다. | |
| 道州毀鼻亭神記 | 道州刺史 薛伯高가 미신적인 鼻亭神을 제거하고 明敎한 治績과 백성의 찬사를 서술했다. | 元和元年(805) |
| 永州龍興寺息壤記 | 龍興寺 땅이 솟아났는데 이를 공사했던 일꾼들이 모두 죽은 일에 대하여 그 미신을 반박하고 합리적으로 풀이했다. | |
| 永州法華寺 新作西亭記 | 높은 곳에 자리잡은 法華寺 부근에 新堂을 지은 일과 僧侶 覺照가 覺照한 도리를 서술하였다. 柳宗元의 불교교리에 대한 心得을 볼 수 있다. | 元和4년(809) |
| 永州龍興寺 修淨土院記 | 釋迦牟尼와 佛敎經典을 소개했다. 龍興寺의 상황을 서술하고 重巽 스님이 龍興寺에서 佛法을 전하기 위해 淨土院을 改修한 경위를 기록했다. 柳宗元의 佛敎에 대한 이해와 신앙심을 볼 수 있다. | 元和元年(805) |
| 永州龍興寺西軒記 | 龍興寺에 거처하게 된 일과 그 환경을 서술했고 자신이 佛理를 得하여 眞智를 얻었다며 佛理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元和元年(805) |
| 柳州復大雲寺記 | 柳州刺史 때 大雲寺를 중건해서 迷信과 그에 따른 황폐함을 佛敎로서 교화하려는 寺院 復建의 배경을 서술하였다. | 元和10년(815) |
| 永州鐵爐步志 | 鐵爐步라는 虛名이 전하고 있는 사실을 빌어 權門 勢家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禍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 |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을 비교하는데 있어 陳柱는 《中國散文史》에

서 “崇韓抑柳의 경향이 농후하다 하여도 柳宗元의 山水文은 韓愈 보다 뛰어나고 傳記文은 韓愈가 미치지 못하는 바이며 寓言文 또한 韓愈와 필적할 만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은 韓愈보다 부각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³⁵⁾ 이처럼 柳宗元의 『記』文 중 특히 山水遊記 작품의 審美的·藝術的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겠다. 山水遊記 문학의 이러한 평가는 柳宗元이 古文運動 과정에 달성한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第Ⅲ章의 『記』文 창작상에 나타난 審美 특징에서는 柳宗元 『記』文의 幽境美와 격조 있는 崇高美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5) 陳柱, 《中國散文史》, 臺灣 商務印書館, 1978, p. 206.

Ⅱ. 『記』 文의 내용 분석

1. 山水遊記

中國文學史에서 散文의 발전과정은 六朝 時代 이전까지는 山水自然에 대한 묘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가, 晉·宋에 와서는 山水自然에 대한 묘사에 관심이 일어나면서 山水遊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山水自然이 주요 창작 소재가 되고 문장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어 훌륭한 작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학 소재로 삼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수하게 자연 그 자체만을 읊은 문학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자연이 인간 생활의 배경으로써 사상·감정을 기탁하는 도구 역할로 등장하다가 六朝 時代に 와서야 비로소 순수한 敍景 詩文이 되어 產生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작가인 謝靈運(385~433)은 美麗한 筆舌로 山水風景을 묘사한 山水文學에 뛰어났고, 陶淵明(365~427)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田園文學에 뛰어났다. 이러한 山水文學과 田園文學이라는 文壇風潮의 변화는 사회 경제적 요건과 사상의 기초 위에 형성된 것이다. 東晉 이후에는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자연을 만나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佛敎와 道敎가 성행하여 사대부들 사이에서 산림에 은거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것이 文學創作에 있어 중요한 骨幹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政治的으로는 부정적이었지만, 文學發展上에서 山水景物을 文學表現의 대상으로 삼아 文學表現 手段을 풍부하게 하는 큰 진보였다.³⁶⁾ 이러한 흐름이 唐代까지 이어지

면서 山水自然을 주제로 하는 遊記散文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특히 柳宗元의 遊記散文은 正體로 인정되고 있다.³⁷⁾ 唐代 遊記散文의 正體로 삼는 柳宗元의 山水遊記는 北魏 酈道元(466~527)의 《水經注》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唐代 이후에 遊記散文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⁸⁾ 柳宗元의 山水遊記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遊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遊記는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낯설고 기이한 곳의 경치나 풍물을 記體로 서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다. 첫째, 작자가 직접 경험한 진실한 체험이 나타나야 한다. 둘째, 遊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여행 안내문이나 인문지리서 등과 다른 문학작품으로서 심령활동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遊記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해지므로 후세 학자들은 서술 대상을 근거로 遊記를 廣義와 狹義로 분류하였는데, 鄭明嫻는 遊記를 景觀式과 人文式으로 분류하였다.³⁹⁾ 景觀式, 즉 狹義의 遊記는 山川日月 등의 자연경관을 묘사한 것이고, 人文式, 즉 廣義의 遊記는 여

36) 孫昌武, 《柳宗元傳論》, 上揭書, pp. 214~218.

37) 徐師曾, 《文體明辨》: “柳子厚遊山諸記, 爲體之正.” (張榮輝, 《中國文體通論》, 高雄高職叢書出版社, 1977, pp. 807~808 재인용.)

38) 酈道元の 《水經注》는 漢나라 桑欽의 《水經》을 註釋한 것으로 《水經》을 보충하여 水道를 명백하게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며 물길 양옆의 풍토 景物과 歷史故事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水經注》의 景物 묘사를 遊記文의 시초로 추정하는 것이다. 柳宗元의 山水遊記가 《水經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衆論인데, 敍景의 묘사 및 구성이 흡사함을 엿볼 수 있다. 明代 蔣之翘의 《唐柳河東集》·〈四部備要〉卷29 p. 2. 楊用修的 《升菴詩話》卷9. 高步瀛의 《唐宋文學要》香港 中華書局, 1985, p. 505. 丁範鎮의 《中國文學史》, 東亞學研社, 1982, p. 167. 陳柱의 《中國文學史》臺灣 商務印書館, 1978, p. 205. 許世旭의 《中國隨筆小史》, 乙酉文化社, 1981, p. 99 등에서 柳宗元의 山水遊記가 《水經注》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9) 鄭明嫻, 《論遊記體散文》, 文訊雜誌, pp. 197~199. (姜炅範, 〈唐代山水遊記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91, pp. 13~14 재인용.)

러 가지 건축, 사적지, 명승지, 풍토 등의 인문적 현상까지 묘사한 것이다.⁴⁰⁾ 그러나 遊記 관련 서적들을 보면 거의가 俠義의 遊記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俠義의 遊記는 바로 山水遊記를 말하는 것이다. 체재와 내용에 있어 山水遊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記』, 『遊~記』, 『~述』, 『~錄』, 『題~』, 『記~』 등의 명칭이 붙어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쓰여져야 雜記體임을 알 수 있고, 雜記體 가운데 山水遊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체재에 있어 山水遊記는 記事體의 구성을 지녀야 한다. 즉 敍事 이후에 議論을 적고 있는데, 대체로 첫 단락은 명승지의 위치와 발견 및 동기, 둘째 단락은 명승지의 구체적 묘사, 셋째 단락은 감상과 議論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부분에는 遊記를 지은 동기, 날짜, 동행인 등이 들어가는 구성을 가진다. 그러나 議論이 위주가 되면 山水遊記라 할 수 없다. 셋째, 내용에 있어서 山水遊記는 山水에 관계되는 物像 하나 하나를 묘사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야 하고, 遊覽記이어야 한다.⁴¹⁾ 山水遊記는 작자의 여행 行路를 골간으로 삼아 행로에서의 견문을 기록하고 山水自然을 묘사함으로써 敍景散文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山水를 유람하면서 접하는 風景이나 景物을 묘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람한 곳의 지리와 연혁을 고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敍景的 요소 이외에 작자가 遊覽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感悔와 心情을 적절하게 기록함으로써 抒情的 요소를 겸비한 문학적 표현 양식이 뛰어나다.⁴²⁾ 작자의 遊覽 경로나 유람하면서 받은 느낌

40) 陳素貞〈宋代山水遊記研究〉, 臺灣師範大碩士學位論文, 1985, p. 7. (姜炘範,〈唐代山水遊記研究〉, 上揭論文, pp. 13~14 재인용.)

41) 上同.

42) 洪承直,〈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上揭論文, p. 60.

에 따라 혹은 山水景物에 자신의 感情을 기탁하는 表現技法으로 敘景과 抒情을 결합하여 묘사함으로써 文學性和 藝術性이 돋보이게 된다. 柳宗元의 『記』文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柳宗元이 山水를 遊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자.

〈答周君巢餌藥久壽書〉에서 周君巢가 불로장생을 위해 자신이 입수한 仙藥을 복용하면서 柳宗元에게 보내 복용할 것을 권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柳宗元은 “내가 큰 죄를 짓고 쫓겨나 작은 永州에 살고 있다.”⁴³⁾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무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쁜 조건에 처해 있어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진정한 君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의 내용을 썼다. 柳宗元은 다른 문장에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囚山賦〉, 〈先太夫人河東縣太君歸祔誌〉, 〈答韋中立論師道書〉에서 볼 수 있다. 〈囚山賦〉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楚·越의 郊外에는 온갖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기세는 파도가 들끓는 듯하며 어지러이 마주보고 돌아돌며 위와 아래로 가로막고 있어 마치 두터운 담장이 둘러 쳐진 듯하다.(…)돼지도 아니면서 나는 감옥에 갇혔다. 10년이 다 되도록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⁴⁴⁾

〈先太夫人河東縣太君歸祔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아! 하늘이여! 태부인께 아들이 있었는데, 英敏하지 못해서 큰 죄를 지어 아들을 따라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땅으로 옮겨와서 의원·무녀·약·음식이 변변치 않아 죽음을 재촉한 셈이니 하늘이 이 잔혹한 형벌을 내린 것

43) 《柳宗元集》，卷32 〈答周君巢餌藥久壽書〉：“宗元以罪大擯廢，居小州。”

44) 《柳宗元集》，卷2 〈囚山賦〉：“楚越之郊環萬山兮，勢騰踊夫波濤。紛對廻合仰伏以離遡兮，若重墉之相褒。(…)非豕吾爲牢。積十年莫吾省者兮。”

이 아니라면 불행하게도 못된 자식을 가져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리라.⁴⁵⁾

〈答韋中立論師道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잘못하여 귀양 온 이후부터 더욱 의지가 약해지고 남쪽 땅에 산 지 9년에 각기병이 심해져 점점 시끄러움을 좋아하지 않았다.⁴⁶⁾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柳宗元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으로 王叔文의 정치혁신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정치혁신이 실패하면서⁴⁷⁾ 원대한 포부를 펼쳐 보기도 전에 永州·柳州라는 오랑캐(蠻夷)의 땅에 貶謫되어 14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⁴⁸⁾ 貶謫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柳宗元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어머니의 사망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등으로 그는 더욱 挫折하였고, 덧없이 긴 세월이 애통하기만 하였다.⁴⁹⁾ 貶謫地 환경의 어려움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5) 《柳宗元集》，卷13 〈先太夫人河東縣太君歸祔誌〉：“嗚呼！天乎！太夫人有子不令而陷于大僂，徙播羸土，醫巫藥膳之不具以速天禍，非天降之酷，將不幸而有惡子以及是也。”

46) 《柳宗元集》，卷34 〈答韋中立論師道書〉：“僕自謫過以來，益少志慮，居南中九年，增脚氣病，漸不喜聞。”

47) 王叔文의 政治革新 運動에 대해서는 洪寅杓, 《柳河東詩研究》, 瑞麟文化社, 1981, pp. 34~46. 林玄鎬, 〈柳宗元의 ‘永州八記’ 研究〉,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94, pp. 8~10. 南哲鎭, 〈柳宗元 寓言 研究〉, 延世大碩士學位論文, 1994, p. 11, 등의 기존 연구가 자세하여 本稿에서는 再論하지 않는다.

48) 永州 時期를 永貞元年(805)부터 元和10年(815)까지 10年과 柳州 時期를 元和10年(815)에서 柳宗元이 사망한 元和14年(819)까지의 14年 동안을 말한다.

49) 《柳宗元集》，卷26의 記官署 10편중의 8편이 貞元 時期에 지어졌고, 나머지 2편만이 元和 時期에 지어진 것을 보면, 정치에서 실각된 이후 거의 조정 인사들과의 교류가 없는 柳宗元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오직 柳州는 옛날부터 南夷라 하여 그 풍습이 머리를 뒤로 내려 긴 막대처럼 묶고 옷을 해 입으며 공격과 칼질을 일삼아 서로 싸우고 포악하여 堯·舜이 비록 인자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온순하게 할 수 없었고 秦·漢의 군대가 비록 용맹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위엄을 세울 수 없었다.⁵⁰⁾

오랑캐의 땅에 산지가 오래되니 습관적으로 더위를 먹고 눈앞이 흐리고 다리가 부어오르는 일을 다반사로 생각합니다. 홀연히 북풍이 불어 새벽에 일어나니, 곤궁한 이내 몸은 살갓을 에이는 추위에 트고 머리카락은 생기가 없이, 두려움에 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기후도 다르고 하여, 마음은 타국인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 楚·越 지방 사람들은 말소리가 특이하여 때까치가 시끄럽게 지저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들어도 귀에 익어 괴이한 느낌이 들지 않으니 이미 동료가 된 셈입니다.⁵¹⁾

위와 같이 柳宗元이 생활하던 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불우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思考하게 되었고,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柳宗元은 貶謫된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山水의 美景을 찾아 달래야만 하였다. 山水를 유람하면서 받은 느낌과 자신의 감정을 山水自然에 기탁해서 山水遊記를 창작한 것이다.

《舊唐書》·〈柳宗元傳〉과 《新唐書》本傳에서도 柳宗元이 永州에 왔을 때의 心情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다.

柳宗元은 邵州刺史에 임명되어 부임하던 중에 다시 永州司馬로 貶

50) 《柳宗元集》，卷5 〈柳州文宣王新修廟碑〉：“惟柳州古爲南夷，椎髻卉裳，攻劫鬪暴，雖唐虞之仁不能柔，秦漢之勇不能威。”

51) 《柳宗元集》，卷30 〈與蕭翰林侁書〉：“居蠻夷中久，慣習炎毒，昏眊重髓，意以爲常。忽遇北風，晨起薄寒中體，則肌革疹慄，毛髮蕭條，瞿然注視，怵惕以爲異候，意緒殆非中國人。楚越間聲音特異，鳩舌倬譟，今聽之怡然不怪，已與爲類矣。”

謫되었다. 이미 멀리 추방되어 열병이 있으며 험난하고 위험한 지방에 살면서 자신의 울분을 抒情·敘事로서 써내어 詩文 10餘篇을 지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함을 가지게 한다.⁵²⁾

柳宗元은 邵州刺史로 貶謫된지 얼마 되지 않아 永州司馬로 다시 謫되었다. 멀리 추방된 데다가 지역 또한 황량하고 疫疾이 많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山水에 몸을 의지했는데 그 답답한 마음과 우울한 심정을 하나같이 글 속에 반영하였다. 《離騷》를 모방하여 수십 편의 글을 지었는데 읽은 사람이 모두 슬퍼하였다.⁵³⁾

柳宗元의 작품 곳곳에 이처럼 永州·柳州의 황폐함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風俗의 차이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자신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心境까지 토로하였다.⁵⁴⁾ 柳宗元은 정치적 좌절과 貶謫地 생활의 악조건 속에서도 山水風景을 유람하면서 받은 느낌을 작품에 敘景과 抒情으로 잘 결합하였다. 이러한 점이 柳宗元 작품의 藝術性을 돋보이게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좌절로 인해 貶謫 당한 鬱憤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文學創作에 있어서는 後代에 높이 평가받는 업적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永州 시기에 文學的·藝術的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山水遊記 작품이 탄생하였다. 柳宗元의 山水遊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입증해보기로 하겠다.

劉大杰은 “唐代的 古文運動의 가장 큰 수확으로서 柳宗元의 山水小品을 들 수 있다.”⁵⁵⁾고 했는데, 唐代 古文運動의 두드러진 성과로

52) 《舊唐書》·〈柳宗元傳〉：“宗元爲邵州刺史，在道再貶永州司馬。既罹竄逐，涉羅蠻瘴，岐嶠堙戾，蘊騷人之鬱悼，寫情敘事，動必以文，爲騷文十數篇，覺之者爲之悽惻。”

53) 《新唐書》，本傳：“宗元貶邵州刺史，不半道，貶永州司馬。既竄斥，地又荒蕪，因自放山澤間，其堙厄感鬱，一萬諸文，倣離騷數十篇，讀者咸悲惻。”

54) 編寫組，《柳宗元》，山西大學歷史系，人民出版社，1976，pp. 13~15.

보았다. 金學主는 “山水遊記가 柳宗元이 韓愈보다 분명히 뛰어난 부분이다.”⁵⁶⁾라 하였는데, 柳宗元의 山水遊記에 있어서 韓愈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茅坤은 “내가 평생동안 옛사람의 훌륭한 山水遊記 작품을 읽었지만, 오직 柳子厚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⁵⁷⁾고 하였다. 劉大櫚는 “山水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기이하고 웅장하며 그 읍해야 한다. 柳子厚는 이것을 文으로 썼기에 字句를 가다듬음에 정성스럽게 다듬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전에는 이와 같이 격조 높은 것이 없었다. 柳子厚가 처음 이런 작품을 썼다.”⁵⁸⁾고 하였다. 李剛己는 “柳子厚의 山水遊記 作品은 그 기이함이 廣遠하고 物象의 형상 묘사는 기묘하여 陶淵明, 謝靈運의 詩와 揚雄, 司馬相如의 賦를 합쳐 용광로에서 녹여 만든, 진실로 문필가로 최고의 경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⁵⁹⁾라고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柳文獻은 “柳宗元의 遊記는 정교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걸출하고, 묘사가 逼真하며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글이 있으니 遊記의 발전에 不朽의 탑을 세운 것이다.”⁶⁰⁾ 칭찬하였다. 敍事에서 출발한 記가 名山麗水를 유람하며 그곳의 景物 등을 묘사하면서 작자의 감회가 깃들인 형태의 山

55) 劉大杰, 《中國文學發達史》, 上揭書, p. 285.

56)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89, pp. 311~312.

57) 明代 茅坤: “僕平生覽古之善記山水, 惟柳子厚爲最.” (何沛雄, 《柳宗元永州八記》·〈評鈞鉅潭記〉, 香港 上海印書館, 1978, p. 57 재인용.)

58) 清代 劉大櫚: “山水之佳, 必奇峭, 必幽冷. 子厚得之爲文, 琢句鍊字, 無不精工, 古無此調, 子厚創爲之.” (何沛雄, 《柳宗元永州八記》·〈評鈞鉅潭記〉, 上揭書, p. 27 재인용.)

59) 清代 李剛己: “子厚山水諸作, 其奇興之曠遠, 狀物之工妙, 直合陶謝之詩, 揚馬之賦, 鎔爲一鑪, 濁屬文家絕境.” (高步瀛, 《唐宋文學要》上冊, 卷4 〈遊黃溪記〉, 香港 中華書局, 1985, 재인용.)

60) 柳文獻,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柳宗元的遊記〉—文學批評散文與賦類一, 臺北 幼獅文化事業公司, pp. 455~463. (柳銀姬, 〈柳宗元の傳과 山水記 考察〉, 延世大碩士學位論文, 1985, p. 54 재인용.)

水遊記로 발전한 것은 사실상 唐代의 柳宗元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遊記는 名山大川이나 草木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 깊이 情感의 흐름에서 관조된 아름다움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山水遊記 작품은 山水風景의 아름다움과 奇特함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山水美意識은 柳宗元만의 創作技法으로 山水遊記의 예술미를 잘 표현한 것이다. 묘사되는 山水景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정치적 좌절로 인한 울분의 심정을 여과하고 가공하여 예술미로써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융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柳宗元의 山水遊記는 이전의 同類 작품보다 더욱 발전되고 藝術性이 풍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山水遊記의 뛰어난 점은 바로 ‘文有詩境’⁶¹⁾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은 柳宗元 문장의 예술적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시대배경이나 환경 그리고 사회생활과 작자의 출생, 개성 등은 필히 自然風景을 묘사한 散文 중에 독특한 風格을 지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山水遊記에 나타난 특색도 역시 그의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울분과 궁벽한 생활환경에서의 깊고 고요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등과 모두 긴밀한 관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내포한 작품 내용을 종합해 보면 山水景物의 묘사 대상인 水·山·石·風·草木 등을 직접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체험한 후의 느낌을 山水景物에 기탁하여 표현하는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고, 자세하고 절묘하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 그 가운데 抒情美·意境美·畫境美

61) 胡楚生, 《柳文選析》, 臺北 華正書局, 1983, p. 210.

등으로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創作技法은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다. 자연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素材와 題材가 되어 왔다. 작가들은 그 자연을 각양각색의 心象을 유도해 내는 원천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자연은 문학의 모방 대상 혹은 문학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의지와 감정도 일차적 인식 대상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었다. 柳宗元의 작품에선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불행과 울분을 조화롭게 기탁하고 있다. 독자들은 柳宗元의 감정과 이상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을 읽게 되면서 惻隱之心과 深奧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게 된다. 다음에서는 山水景物에 함축된 抒情美·意境美·畫境美를 작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살펴보고, 柳宗元의 붓 아래 펼쳐지는 山水遊記에 기탁된 예술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柳宗元은 遊記散文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遊記散文의 문학적 성취를 살펴보려면 먼저 작자는 과연 어떤 경치를 보고 감흥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싶어했는가, 즉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卷29 記山水의 〈遊黃溪記〉·〈始得西山宴遊記〉·〈鉤鉞潭記〉·〈鉤鉞潭西小丘記〉·〈至小丘西小石潭記〉·〈袁家渴記〉·〈石渠記〉·〈石澗記〉·〈小石城山記〉 9편과 卷24의 〈陪永州崔使君遊宴南池序〉·〈序飲〉·〈愚溪詩序〉 3편을 포함한 12편의 山水遊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藝術的 표현이 뛰어난 遊記 작품을 종합하여 내용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특징인, 抒情美·意境美·畫境美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1. 山水描寫의 抒情美

柳宗元 山水遊記 작품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4단계 양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山水의 지리적 위치를 밝히고 있다. 둘째, 山水의 주위 환경 및 목적지 경관을 묘사한다. 셋째, 山水風景 玩賞에 따른 감회를 말하고 있다. 넷째는 맺음말로써 記를 지은 동기와 遊覽日, 동행인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작품이 꼭 4단계의 구성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⁶²⁾ 각 편마다 치중하여 묘사한 것에 차이가 있고 그 구성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山水描寫가 중심이고 거기에 자신의 感情을 함축하여 抒情美를 나타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記事에 치중한 것도 있다. 먼저 ‘永州八記’의 첫편인 〈始得西山宴遊記〉에서 山水描寫에 자신의 情緒를 기탁한 점을 살펴보겠다.

나는 죄인이 된 이래로 永州에 살면서부터 항상 두렵고 불안했다. (...)이러한 경치를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西山의 빼어남이 다른 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다.(...)회색 빛 저녁 기운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니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으나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정신은 집중되고 육신은 자유로워지니 우주자연의 변화와 융합하여 하나가 되는 듯하였다.⁶³⁾

62) 일반적으로 첫째, 둘째의 구성 방식은 대개 변동이 없으나 셋째에서 감회에 대한 서술은 직접 감회를 쓰지 않고 故事 서술에 기탁된 경우도 있는데, 〈遊黃溪記〉는 黃神의 전설에 기탁하여 서술하였다. 〈石渠記〉에서는 결어 부분도 일반적으로 생략되고 山水景物의 묘사로만 결어를 장식하였다. 〈小石城山記〉의 경우는 議論으로 마무리하였으며, 〈鈇鋤潭記〉는 감회로써 끝맺고 있다.

63) 《柳宗元集》, 卷29 〈始得西山宴遊記〉: “自余爲僇人, 居是州, 恒惴慄. 其隙也.(…)然後和是山之特立, 不與培塿爲類.(…)蒼然暮色, 自遠而至, 至無所見, 而猶不欲歸. 心凝形釋, 與萬化冥合.”

序頭에서 “自余爲僇人，居是州，恒惴慄”는 정치적 불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司馬라는 지방 말단직으로 貶謫당한 좌절감과 함께 언제 다시 닳칠지 모르는 불행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永州의 山水를 찾은 柳宗元은 죄인이 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悲憤·挫折·孤獨 등의 복잡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그의 ‘惴慄(惴慄)’이란 心理 상태를 《古代散文鑑賞辭典》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말단관리로 황량한 곳인 永州에 와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 둘째, 죄인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다시 貶謫될 수도 있는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한 자신의 불만과 울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⁴⁾ 또 西山의 빼어남이 자신의 형상이 西山과 비슷하다는 主觀的인 감정을 담고 있다. “蒼然暮色，自遠而至，至無所見，而猶不欲歸”는 희색 빛 어둠이란 표현을 통해 해질 무렵이라는 저녁 경치를 알 수 있다. 일찍 찾아오는 산 속의 어둠이 시야를 분간할 수 없는데도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음은 작자의 정서가 西山의 빼어나고 다른 산과 비교되지 않는 기특함과 하나되어 잠시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心凝形釋，與萬化冥合”은 西山과 당시 柳宗元의 정신 세계가 완전히 하나된 ‘無我之境’임을 나타내고 있다. 自然의 숭고함 앞에 서니 개인의 마음은 세상의 雜事에서 벗어나고 眞我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세속에 얽매인 자기를 잊는 忘我的 抒情美를 뛰어나게 묘사한 것이다. 이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山水의 妙境에 작자의 心境을 寄託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柳宗元이 自然의 아름다움과

64) 王洪 主編, 周季平·喬力·李維國 副主編, 《古代散文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1, p. 455.

하나되어 속세의 번뇌를 벗어버리고 眞我를 찾을 수 있는 抒情美이다. 西山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후, 계속하여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는 과정의 〈鈷鋤潭記〉를 보자.

중추절은 달을 감상하기에 매우 적당하였다. 하늘은 높아 보이고 공기는 맑아 즐기기에 좋았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이 오랑캐의 땅에 있으면서도 고향을 잊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鈷鋤潭이 아니겠는가?⁶⁵⁾

貶謫地에서 중추절의 달을 보고 鄉愁를 느끼면서도 鈷鋤潭으로 인해 위안을 찾는 슬픈 감정을 담고 있다. 대개 타향에서 滿月을 보면 이내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은 고향 떠나온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풍부한 자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달은 인류생활에 특정한 환경의 한 면으로서 각종 특유의 美를 나타내고 있다. 달의 형상은 희고 깨끗할 때는 옥쟁반 같고, 때로는 완만하게 흰 것이 갈고리 같으니, 흐렸다가 맑아지고 둥글었다 이지러지는 변화는 무궁한 의의를 가진 형식미를 나타내고 있다. 빛을 말한다면, 때로 온화하고 때론 몽롱하여 사람에게 고요함과 편안함, 詩的 정취의 審美感을 준다. 달 자체의 美의 다면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감상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각기 다른 심정으로 감상하게 되니, 모두 다른 美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⁶⁶⁾ 柳宗元 역시 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煩悶을 잊기도 했을 것이다. “孰使予樂居而忘故土者, 非茲潭也歟?”에서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을 잊을 수 있고 煩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65) 《柳宗元集》, 卷29 〈鈷鋤潭記〉: “尤與中秋觀月爲宜, 於以見天之高, 氣之迥. 孰使予樂居而忘故土者, 非茲潭也歟?”

66) 朱存明·王海龍, 유세종 옮김, 《사회주의미학연습》, 전인, 1989, p. 82.

있었던 이유가 바로 鈇鋤潭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歸郷하고픈 심정을 깊이 내포하고 있어 더욱 애절한 抒情美가 느껴진다. 鈇鋤潭을 매입한 뒤에 한순간이나마 유쾌하여 고향을 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山水風景이 있었기에 현실에 대한 想念들을 떨칠 수 있는 것이다. 〈鈇鋤潭記〉에서는 당시의 사회문제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침 일찍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길 “租稅나 私債가 쌓여 갚지 못해 산을 개간하여 살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鈇鋤潭 위쪽의 밭을 팔아 세금으로 충당하고 탈세의 과오를 감하도록 매입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의 말대로 해주었다.⁶⁷⁾

柳宗元을 찾아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땅의 매입을 간청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租稅와 私債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산수를 題材로 삼아 당시의 사회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山水遊記가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글이지만, 遊記散文 속에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功利美까지 담고 있는 점이다. 柳宗元은 여기서 “予樂而如其言”라고 말하고 있지만, 작자의 본심은 슬프고 불쌍한 뜻을 ‘樂’자로 나타내어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⁶⁸⁾ 즉 ‘樂’이라고 표현한 것도 진실은 ‘不能樂’인 것이다. “孰使予樂居而忘故土者”의 ‘忘’ 역시 ‘不能忘’의 의미로서⁶⁹⁾ 역설적인 표현이다. ‘樂’과 ‘忘’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

67) 《柳宗元集》，卷29 〈鈇鋤潭記〉：“一旦款門來告曰：“不勝官租私券之委積，既芟山而更居，願以潭上田質財以緩禍。”予樂而如其言。”

68) 高步瀛, 《柳宗元山水二篇遊記的分析》〈中國文學史論選集三〉, 1985, p. 501.

69) 羅聯添, 《中國文學史論文選集》·〈柳宗元二篇山水記的分析〉, 學生書局, 1979, pp. 1073~1081.

로써 포부와 능력을 지녔지만 정치적으로 불우하여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울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永州 山水景物이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암시하고 있으며, 은폐된 山水를 개간하면서 悲憤·挫折·孤獨을 달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내포하고 있다. 또한 鈷鋤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柳宗元이 발견한 것처럼 貶謫되어 있는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抒情美로 나타내고 있다.

柳宗元 자신의 처지가 버려진 小丘와 비슷함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불만의 심리를 나타내는 〈鈷鋤潭西小丘記〉를 살펴보자.

주인에게 물었더니, “唐나라 때에 버려진 땅으로, 팔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았습시다.”라고 했다. 그것의 가격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겨우 400文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좋아서 그 땅을 샀다. 당시에 李深源, 元克己는 함께 유람을 했는데, 모두들 뜻밖의 일인지라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하여 즉시 돌아가면서 도구를 가지고 잡초를 베고 재목이 아닌 나무는 찍어 버리고 또 큰불을 질러 태웠다. 이렇게 하자 멋진 나무가 나타나고, 쪽쪽 뻗어 잘생긴 대나무 길이 드러났으며, 기이한 암석도 드러났다. (...)아아! 이 언덕의 빼어남을 장안 부근의 灃·鎬·鄠·杜 지방에 옮겨 놓는다면, 다투어 이 언덕은 유람하기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날마다 값을 올려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永州에 버려지니, 농부와 어부도 지나며 거들떠보지 않고, 400文의⁷⁰⁾ 값에도 몇 해를 두고 팔리지 않았다. 그런데 나와 李深源, 元克己만이 유독 이 곳을 얻은 것을 즐거워한다. 이는 과연 만남이란 것이 있어서이리라!⁷¹⁾

70) 四百은 四百文이다. ‘文’은 옛날에 동전을 헤아리는 화폐 단위이다.

71) 《柳宗元集》，卷29 〈鈷鋤潭西小丘記〉：問其主，曰；“唐氏之棄地，貨而不售。”問其價，曰：“止四百。”余憐而售之。李深源·元克己時同遊，皆大喜，出自意外。“卽更取器用，剗刈穢草，伐去惡木，烈火而焚之。嘉木立，美竹露，奇石顯。噫!(...)以茲丘之勝，致之灃·鎬·鄠·杜，則貴遊之士爭買者，日增千金而愈不可得。今棄是州也，農夫漁父過而陋之，賈四百，連歲不能售，而我與深源·克己獨喜得之，是其果有遭乎!”

이 글에서는 쓸모 없는 잡초나 나무를 베어 풍경을 정리하니 嘉木·美竹·奇石 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러한 小丘의 美景에 취하게 되면서 마침내는 情景이 일치가 되었다. 柳宗元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唐氏之棄地, 貨而不售”는 기특하고 아름다운 경치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小丘의 땅을 사들이는 柳宗元의 심정에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小丘 주인의 말을 빌어서 “唐나라 때에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長安에서 貶謫되어 온 柳宗元 자신을 버려진 땅에 비유한 것이다. 柳宗元은 〈婁二十四秀才花下對酒唱和詩序〉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못할 울분이 있어, 志略을 떨침으로써 當代에 공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 표현하고 노래로 하소연한다.”⁷²⁾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感激憤悱’는 분하여 가슴이 답답한 울분을 토로한다는 情의 분출로써 柳宗元은 산문을 明道の 도구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抒情의 수단으로도 보았던 것이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柳宗元이 분출하고자 한 悲憤은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志略을 떨침으로써 當代에 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柳宗元이 주장하는 情의 토로에는 풍부한 사회적 내용과 선명한 현실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 柳宗元의 문장에는 또 詩的 경계가 보이는데, 林紓는 “문장에 詩境이 있으니 이것이 柳宗元의 본색이다.”⁷³⁾라고 評하였다. 柳宗元의 산문이 풍부한 詩境과 詩情을 지니고 항상 憤激의 정감이 충만했던 것은 抒情美를 중시한 그의 散文美學

72) 《柳宗元集》, 卷24 〈婁二十四秀才花下對酒唱和詩序〉: “感激憤悱, 思奮其志略, 以效於當世. 故形於文字, 伸於歌詠.”

73) 林紓, 《韓柳文研究法·柳文研究法》, 人民文學出版社, 1964, p. 86. “文有詩境, 是柳州本色.”

관점과 관련이 있다.⁷⁴⁾ “我與深源·克己獨喜得之，是其果有遭乎!”는 小丘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作家와 文人에게 발견되어 겨우 400文을 주고 매입한 뒤 손질을 가하여 환경을 정리하고 보니 勝景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勝景이 그 동안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방치되어 있다가 柳宗元을 만나 비로소 眞價를 드러낸다. 비록 小丘가 美麗하더라도 柳宗元을 만나지 못했다면 勝景이 어찌 世人에게 알려지고 또 後世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그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드러남이 아니라 그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게 되며 찬탄되어지는 것이다. 永州라는 僻地에 버려져 있던 小丘가 주인을 만나는 행운은 축하할만한 것이다. 山水의 아름다움을 얻음으로써 작자는 永州 생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柳宗元은 小丘를 얻은 즐거움으로 위안을 삼았으며, 나아가 자신의 처지도 小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완전히 버려진 땅과 같지는 않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는 抒情美이다.

다음은 小丘의 서쪽 小石潭 주위의 景致를 적막하고 고요한 분위기와 쓸쓸함, 그리고 寒氣가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형용하고 있는 〈至小丘西小石潭記〉을 살펴보자.

小石潭 위에 앉아 있으니 사방으로 대나무와 樹木이 둘러싸여 있어 적막하고 고요하며 인적도 없이, 心神은 처량하고 寒氣는 뼈 속까지 스며들고, 쓸쓸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이러한 환경이 지나치게 맑고 서늘해서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景物을 기록해 가지고 떠났다.⁷⁵⁾

74)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臺北 里仁書局, 民國 84, p. 139.

75) 《柳宗元集》, 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 “坐潭上, 四面竹樹環合, 寂寥無人, 淒神寒骨, 悄愴幽邃. 以其境過清, 不可久居, 乃記之而去.”

柳宗元의 감정에 의한 景觀 묘사로 ‘寂寥無人’이라는 표현을 통해 적막하고 고요하며 인적 없는 小石潭 주위의 정경을 더욱 실감나게 하였다. 이는 당시 작자의 고독한 정서를 抒情美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小石潭 주위의 경관이 처량하고 寒氣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맑은 것은 실제 小石潭이 그랬을 수도 있고 柳宗元의 심정이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매우 함축적이어서 신비로운 분위기와 운치를 더해준다. 또한 작자의 감정과 경관이 완전히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은 자신의 처지에서 만물의 변화 양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접목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다. 柳宗元이 묘사한 永州·柳州的 지리적 위치는 모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小石潭만이 위와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묘사가 永州的 궁벽함과 柳宗元의 고독감을 융합하여 드러내는 공통적인 抒情美이다. 西山으로부터 小石城山에 도달하는 과정을 서술한 〈小石城山記〉에 실린 작자의 情緒를 살펴보자.

아! 나는 조물주의 존재 有無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의심해 왔는데, 오늘에야 이르러 확실히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어찌 하여 中原에 있게 하지 않고 오랑캐의 땅에 있게 하여 수천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산수의 美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야말로 헛되이 힘만 들여 쓸모 없는 짓을 한 것이니, 조물주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물주란 정말 없을까? 어떤 사람은 “현명하면서도 이곳으로 귀양 온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위대한 인물을 배출 할 수 없기에 오로지 자연경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楚나라 남쪽에는 인재가 적고 기암 괴석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믿지 않는다.⁷⁶⁾

76) 《柳宗元集》, 卷29 〈小石城山記〉: “噫! 吾疑造物者之有無久矣. 及是, 愈以爲誠有.”

작자는 아름다운 경치가 中原에 있지 않고 오랑캐의 땅에 버려진 것은, 마치 작자가 부당하게 貶謫 당해 重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은근히 비유하고 있다. 원대한 꿈과 포부가 있으나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를 결국에는 造物主의 존재 유무까지 의심하면서 悲憤의 감정으로 향의하는 抒情美를 느낀다. 즉 美麗함에도 불구하고 僻地에 방치되어 있는 山水는 柳宗元의 입장과 비슷함을 발견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柳宗元은 항상 아름다운 山水를 보면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失意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결국은 되돌아오고 있다. ‘永州八記’를 각각 한편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대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든, 바로 이 〈小石城山記〉에서 柳宗元의 감정을 종합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永州八記’ 전편의 結尾로 장식하면서 ‘物과 情의 交融’ 된 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⁷⁷⁾

〈陪永州崔使君游宴南池序〉는 작자가 崔敏을 함께 동반하고 南池에서 한차례 연회를 벌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零陵 주위의 山·岸·谷·池·溪·樹木 등의 美景을 발견하여 즐거웠다가 슬픔으로 이어지는 情緒를 담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방치되어 항상 이곳의 산수와 함께 살아감에 이번처럼 즐거운 연회는 다시없을 것 같아 슬퍼한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기록한다.⁷⁸⁾

又怪其不爲之中州，而列是夷狄，更千百年不得一售其伎，是固勞而無用，神者儻不宜如是，則其果無乎？或曰：“以慰夫賢而辱於此者。”或曰：“其氣之靈不爲偉人，而獨爲是物，故楚之南少人而多石。”是二者，余未信之。”

77) ‘永州八記’에서는 각각의 작품마다 그 結構나 山水景物의 주요 묘사 대상이나 전달하는 내용 또한 다르다. 즉 山水景物 묘사를 위주로 한 것도 있고, 柳宗元의 感情이나 情緒의 표출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으며, 敍事의 비중은 각기 다르다.

78) 《柳宗元集》，卷24 〈序飲〉：“余既委廢於世，恒得與是山水爲伍，而悼茲會不可再也，

비록 永州로 貶謫되었지만 赦免令이 내려지면 오래되지 않아 속박에서 풀려나서 榮轉을 바라볼 수 있다. 작자는 일행이 모두 榮轉될 것을 예상하였고, 자신만 남고 다시는 사면령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애석해하고 있는 내용이다.⁷⁹⁾ 柳宗元은 앞으로도 항상 이곳의 山水와 함께 살아가야 함으로 이번처럼 즐거운 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서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항상 기억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을 총괄하여 자신의 당시 挫折感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柳宗元의 山水遊記는 그의 특별한 심리적 요인에 근거하여, 자신의 감정을 비유나 상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抒情美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는 자신의 感懷를 작품에 기탁함에 있어 선명하고 자세하면서 생동감 있게,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선택, 구성, 윤색해서 묘사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그의 遊記散文의 藝術的 가치로 평가된다. 자연은 인간과 함께 있으면서 인간에게 언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함은 즉 인간이 자연에서 형성되는 抒情美를 글로 쓰는 것은 文學에서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永州的 山水는 柳宗元에 대해서 냉담한 존재가 아니고 친절하게 스스로를 自覺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柳宗元은 스스로의 감정을 山水에만 두려고 하지 않고 草·木·泉·石·風 등의 動靜이나 遠近 등 無情物에까지 기탁하였다. 모두 감정을 나타내는 素材가 되었는데, 흥미를 일으키거나, 마음속의 사무치는 깊은 마음

故爲文志之.”

79) 貴族舊官僚들은 柳宗元에 대하여 계속 탄압을 가하였다. 806년에 憲宗은 정식으로 즉위하고 年號를 元和로 개칭하면서 大赦免令을 내렸다. 그러나 貶謫된 柳宗元 등 ‘八司馬’는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林玄鎬, 〈柳宗元의 ‘永州八記’ 研究〉, 上揭論文, p. 11.

을 내포하거나, 혹은 哲理에 뜻을 두어 곳곳에 情緒를 담아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모두 ‘山水에는 道가 있다(山水有道)’, ‘天地에 아름다움이 있으나 말하지 않는다(天地有大美而不言)’라 하며 다만 大自然과 융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天機를 인식하여 알게 되며 人理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柳宗元은 山水에 있는 道와 天地는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심미적 情을 잘 표현해냈다. 이는 散文의 審美 특징과 창작 중의 審美 주체의 능동적 작용을 중시하는 柳宗元 散文美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柳宗元은 산문의 심미 특징 가운데 抒情性和 形象性を 중시하였다. 陸機의 “情感에서 비롯되며 화려하고 아름답다.”⁸⁰⁾라는 말과 劉勰의 “情이란 글의 바른 길이다.”⁸¹⁾라는 말 등에서 중국 散文美學은 줄곧 情感을 강조하였는데, 柳宗元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산문의 抒情的 특징을 매우 중시하였다. 柳宗元은 〈上李中丞獻所著文啓〉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다른 재주는 없으나 유독 글쓰기를 좋아하였더니, 처음에 그로써 등용되었으나 끝내는 그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떨고 지내면서도 그 일만은 그만두지 못하니, 수시로 머리 들어 길게 슬픈 노래를 읊으며 속 깊은 곳의 답답함을 풀어봅니다.⁸²⁾

여기에서 문학창작을 통해 悲憤·挫折·孤獨의 感情을 길게 슬픈 노래로 읊으며 속 깊은 곳의 답답함을 발설한다는 ‘舒泄幽鬱’은 바로

80) 陸機, 《文賦》: “緣情而綺靡.”

81) 劉勰, 《文心雕龍·文采》: “情者文之經.”

82) 《柳宗元集》, 卷36 〈上李中丞獻所著文啓〉: “宗元無異能, 獨好爲文章, 始用此以進, 終用此以退. 今者畏罪悔啓, 伏匿惴慄, 猶未能去之. 時時舉首, 長吟哀歌, 舒泄幽鬱.”

문학창작을 통해 막히어 답답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펼쳐 발설하고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는 작자의 깊은 내심의 독백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抒情美로 나타나는 것이다. 永州의 山水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我’라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柳宗元의 〈愚溪詩序〉에서 ‘愚’자로 ‘愚溪’의 景物을 命名하면서 독립된 ‘我’의 感情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내 어리석은 탓에 죄를 지어 瀟水가에 귀양 왔는데, 이 계곡을 아꼈다.(…)그리하여 愚溪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愚溪 가에 작은 언덕을 사들여 愚丘라고 이름지었다. 우구 동북쪽으로 육십 보를 가서 샘을 발견하고는 또 사들여 거주지로 삼고는 愚泉이라 이름지었다. 우천에는 여섯 개의 샘구멍이 있는데 모두가 산아래 평지에서 나와, 위로 솟는 샘이다. 물길이 합쳐 구불구불 남쪽으로 흐르는 도랑은 愚溝라고 이름지었다. 그리고는 흙을 지어 나르고 바위를 포개어 좁은 곳을 막아 愚池를 만들었다. 우지의 동쪽에는 愚堂을 짓고, 남쪽에는 愚亭을 지었다. 우지 가운데에는 愚島를 만들었다. 멋진 나무와 기이한 바위가 섞이니, 모두 산수간의 기이한 것들인데, 나 때문에 하나같이 어리석다는 의미의 愚라는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⁸³⁾

柳宗元의 ‘抒情散文’으로 손꼽히는 〈愚溪詩序〉는 貶謫 생활의 우울하고 복잡한 심정을 아름다운 山水風景에 寄託하여 간결하고 심오하게 표현했다. 이 글은 〈八愚詩〉를 짓고서 덧붙인 서문인데 〈八愚詩〉는 모두 유실되었으며 序文만이 전해진다. 이후에 ‘愚溪’를 제재

83) 《柳宗元集》，卷24 〈愚溪詩序〉：“余以愚觸罪，謫瀟水上，愛是溪。(…)故更之爲愚溪。愚溪之上，買小丘，爲愚丘。自愚丘東北行六十步，得泉焉，又買居之，爲愚泉。愚泉凡六穴，皆出山下平地，蓋上出也。合流屈曲而南，爲愚溝。遂負土累石，塞其隘，爲愚池。愚池之東爲愚堂，其南爲愚亭，池之中爲愚島。嘉木異石錯置，皆山水之奇者。以余故，咸以愚辱焉。”

로 쓴 詩도 많이 보인다.⁸⁴⁾ 永州에 살면서 그가 거주하던 灌水 북쪽의 계곡에다 집을 짓고 계곡을 비롯한 주변의 여덟 가지 사물 “溪·丘·泉·溝·堂·亭·池·島”의 여덟 가지 景物에 어리석다는 ‘愚’자를 붙여 이름하기를 직접 “愚丘·愚泉·愚溝·愚池·愚堂·愚亭·愚島”로 한결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비유하여 命名하였다. 그러나 사실 작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세상의 불합리한 모든 것에 분해하고 원통해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柳宗元이 永州에서 결코 한가롭게 逍遙하거나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윽함 중에 감춰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불공평함에 격분한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기탁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이는 바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愚溪詩序〉는 전체 문장 중에 24개 어리석다는 ‘愚’자를 핵심어로 삼아 관통시켰으며 寫景과 抒情, 그리고 議論으로까지 이어져 작품에 변화의 멋을 더하고 있다. 吳洙亨은 《唐宋八大家의 산문 세계》에서 “柳宗元은 만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온갖 모습을 잘 표현한다(漱滌萬物, 牢籠百態).”는 작자가 추구하는 창작의 한 방법이자 경지로서, 특히 抒情美와 寫景이 융화된 작품에 강조되는 사항이다. 작자의 깊은 울분의 情으로 독특한 예술경계를 창조한 작품은 山水遊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에서도 그러한 경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⁸⁵⁾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文學創作 과정에서 작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감정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 생활의 형상이 서로

84) 《柳宗元集》, 卷43 〈溪居〉·〈夏初雨後尋愚溪〉·〈雨晴至江渡〉 등이 있다.

85) 吳洙亨, 《唐宋八大家의 산문 세계》, 서울大學校出版部, 2000, p. 49.

통일되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柳宗元은 스스로 어리석었다고 인정하면서 ‘愚’자를 통해 貶謫된 현실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복잡한 感情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움을 어리석다는 ‘愚’자로 비유하면서, 자신 또한 포부와 재능은 있지만 어리석어 貶謫되었다는 상징성을 지니는 表現技法으로 감정을 ‘愚’자에 융화시키는 抒情美이다. 즉 柳宗元은 자신의 感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永州·柳州의 아름다운 山水景物이 없었다면 이렇듯 문학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창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柳宗元의 山水遊記는 각 山水景物의 개성을 잘 포착하여 세밀하고 선명하며 생동감이 넘치게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感受와 悲憤·挫折·孤獨 등의 抒情 요소를 조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객관적 山水景物 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山水文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遊記散文의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1-2. 山水描寫의 意境美

中國 고대의 예술형상에 관한 인식을 토론할 때는 필연적으로 ‘意境’의 문제를 언급한다. ‘意境’은 고대 미학의 매우 중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특수하면서도 민족적 특색을 갖춘 문예비평의 표준이다.⁸⁶⁾ 柳宗元의 山水景物의 객관적 形狀描寫는 畫境美만을 뛰어나게 묘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작자의 心境을 山水景物에 기탁하여 시각 작용에 따라 묘사하기도 하는데, 山水遊記에서 잘 드러난

86) 張少康, 李鴻鎮 옮김, 《中國古典文學創作論》, 법인문화사, 2000, p. 137.

다. 이는 이미 객관적 景物의 한계에서 벗어난 작자의 감정, 사상, 주제의식을 담는 것이다. 柳宗元의 산수유기는 山水景物 속에서 인간이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게끔 주·객관의 통일을 이룩하여 山水詩와 같은 함축적인 ‘意境’과 ‘情趣’를 형성하였다.⁸⁷⁾ ‘意境’이란 개념은 중국의 근대 哲學者이자 美學者인 王國維(1877~1927)에 의해 ‘境界說’⁸⁸⁾이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제기되었다. 그가 말하는 ‘境界’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境界’란 景과 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喜·怒·哀·樂 또한 사람의 마음속의 한 ‘境界’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景物과 진정한 감정을 적어 낼 수 있으면 그것은 ‘境界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境界가 없다’고 할 것이다.⁸⁹⁾

이 글은 ‘境界’란 분명히 情과 景의 융합임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王國維는 ‘境界’에 대해 논하면서 개인의 외재적인 느낌과 아울러 내재적인 느낌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文學小言》에서도 다

87) 萬陵, 《中國散文美學》, pp. 240~241, (林春映, 〈柳宗元 散文의 藝術的 特性 研究〉, 韓國外國語大博士學位論文, 2003 재인용.)

88) ‘境界’라는 말은 佛經에 나오는 개념이다. 예컨대 《俱舍論頌疏》에 보면, 사람에게 는 眼, 耳, 鼻, 舌, 身, 意의 여섯 가지 뿌리(六根)가 있으며, 여섯 가지 식(六識)의 공능을 갖추고 이로써 色, 聲, 香, 味, 觸, 法 등 여섯 가지 경(六境)을 감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앞의 다섯 가지 境은 구체적인 느낌이며, 뒤의 한 가지 境은 추상적인 이해를 말한다. 그러나 佛家에서는 “實相의 理는 오묘한 지혜가 밟는 곳이기에 ‘境’이라고 칭한다(實相之理爲妙智游履之所, 故稱爲境)”고 하여 “實相의 理”를 이해하는 것 역시 능히 경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경계는 본디 개인의 느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周勳初 著, 중국학연구회 譯, 《중국문학비평사》, 이론과 실천, 1994, p. 343에서 재인용)

89) 王國維 撰, 《人間詞話》, 第6條: “境非獨謂景物也, 喜怒哀樂, 亦人心中之一境界. 故能寫眞景物, 眞感情者, 謂之有境界, 否則謂之無境界.”

음과 같이 情과 景을 말하고 있다.

文學에는 두 개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景과 情이 바로 그것이다. 前者는 자연과 인생의 사실 묘사를 위주로 하고, 後者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客觀的의요, 후자는 主觀的의이다. 전자는 知識的의요, 후자는 感情的의이다.⁹⁰⁾

情과 景을 문학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景을 자연경물을 지칭하고 또 인생의 사실 즉 객관적인 사회생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情은 자연과 인생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정신적인 태도를 총괄하는 것으로 본다. 情과 景의 대립과 통일은 바로 객관과 주관, 자연과 인생, 지식과 감정의 대립과 통일인 것이다. 王國維는 때로 ‘境界’를 ‘意境’⁹¹⁾이란 말로 불렀는데, 《人間詞乙稿序》에서 말하고 있는 ‘意境’을 보자.

文學의 역할 중에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밖으로 타인을 감동시켜 주는 것은 오직 意와 境, 두 가지 밖에 없다. 그중 가장 높은 것은 意와 境이 혼연일체를 이룬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意가 뛰어나던가 境이 뛰어나던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그 중 어

90) 王國維, 《文學小言》: “文學中有二原質焉: 曰景, 曰情. 前者以描寫自然及人生之事實爲主, 後者則吾人對此種事實之精神的態度也. 故前者客觀的, 後者主觀的也; 前者知識的, 後者感情的也.”

91) ‘意境’이란 개념 역시 王國維가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魏晉南北朝 시대에 劉勰 등이 이미 ‘意’와 ‘境’의 조화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도 唐代에서 清末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王國維가 자신의 학설을 발표하면서 분명하게 전대의 누구에게 또는 누구 것을 계승하였다고 밝힌 바는 없지만 분명 그의 이론은 王夫之 등의 ‘意境’에 관한 이론과 매우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王國維는 서유럽의 美學思想을 융합시켜 보다 새롭게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학비평사》, 上揭書, p. 343에서 재인용.)

는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문학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⁹²⁾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情과 境은 意와 境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意境’과 ‘境界’는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일이라 할 수 있다. 王國維는 意와 境을 ‘無我之境’과 ‘有我之境’에 해당되는 말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有我之境’은 자아로써 사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사물이 모두 자아의 색채를 띠게 된다. ‘無我之境’은 사물로써 사물을 보아 무엇이 아니며 무엇이 사물인지 알지 못한다.⁹³⁾

‘有我之境’과 ‘無我之境’은 柳宗元이 山水景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빛을 받혀 빛나고 있다. ‘境界’의 개념은 藝術上 운용될 뿐 아니라 또한 精神境界·思想境界 등과 같이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다. ‘意境’의 개념에 이르면 주로 文藝 영역에서 운용되는데 주로 예술적 경계를 가리킨다. 한가지 유행되는 관점으로 ‘意境’은 예술 형상을 가리키고 주관적인 意와 객관적인 境의 결합이며, 詩와 詞에서는 情과 景의 상호 융합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意境’과 ‘意象’은 실제로 둘이면서 하나인 개념인 것이다. ‘意境’은 일종의 특수한 美學的 내용을 가진 예술 형상으로서 일반적인 예술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⁹⁴⁾ 柳宗元은 〈永州龍興寺東丘記〉에서 “유람에 적합한 것은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曠’과 ‘奧’이다.”⁹⁵⁾ ‘넓고 광활한

92) 王國維, 《人間詞乙稿序》: “文學之事, 其內足以據己, 而外足以感人者, 意與境二者而已. 上焉者, 意與境渾, 其次或以意勝, 或以境勝. 苟缺其一. 不足以言文學.”

93) 王國維, 《人間詞話》, 第3條: “有我之境, 以我觀物, 故物皆着我之色彩: 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

94) 張少康, 《中國古典文學創作論》, 上揭書, pp. 138~139.

경지’와 ‘깊고 그윽한 경지’의 두 가지 ‘境界’의 개념을 말하였다. 즉 ‘曠’과 ‘奧’는 柳宗元의 山水遊覽에 대한 일종의 ‘意境’의 표준으로 삼아 意境美에 대해 개괄하는 것이다. 柳宗元의 山水遊記와 山水詩를 보면 ‘曠’의 경지와 ‘奧’의 경지는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다. ‘曠’의 경지는 ‘有我之境’으로 사람을 이끌어 내고 ‘奧’의 경지는 ‘無我之境’으로 사람을 들어가게 하였다. 柳宗元은 貶謫地 생활 중에 자신의 불만과 억울함을 밖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초조한 심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리저리 다니면서 山水를 遊覽하였다. 작자가 정신적인 위안처를 찾아 煩悶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는 〈始得西山宴遊記〉를 보자.

마치 개밋둑 같기도 하고 구멍 같아 보이기도 해서 천리나 되는 산 천이 마치 한 척의 거리인 듯 보이고 오그라들거나 쌓여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에 흰 구름 감싸 들고, 멀리는 하늘 끝과 맞닿은 모습이 사방을 둘러봐도 한결 같았다. 이러한 경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西山의 빼어남이 못 다른 작은 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다.⁹⁵⁾

이 글은 경치를 보고 난 후에 일어난 감정으로 외부의 경치에 의해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생각은 柳宗元에게 잠시나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尺寸千里’나 ‘外與天際，四望如一’ 하다는 표현은 西山의 雄奇하고 高峻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도 西山이 인간 세상에서 높이 솟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이 西山과 같이 높고 포부는 天地와 같이 넓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95)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遊之適，大率有二，曠如也，奧如也，如斯而已。”

96) 《柳宗元集》，卷29 〈始得西山宴遊記〉：“若垤若穴，尺寸千里。攢蹙累積，莫得遯隱。縈青繚白，外與天際，四望如一。然後知是山之特立，不與培塿爲類。”

주고 있다. 이는 柳宗元의 內面心理와 바깥경계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意境美로 드러난 것이다.

아득히 멀리 天地 사이에 넘치는 가득 찬 원기를 가지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고 드넓게 천지자연과 어울려 그 다함을 알 수 없었다. 술잔을 당겨 가득 채워 마시니 술에 취해서 날이 저무는 줄도 알지 못했다. 회색 빛 저녁 기운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니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으나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정신이 집중되고 육신이 자유로워지니 우주자연의 변화와 융합하여 하나가 되는 듯하였다.⁹⁷⁾

“아득하고 멀리 天地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元氣를 가지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고 드넓게 천지자연과 어울려 그 다함을 알 수 없다.”는 표현에서 작자가 五官을 열고 심령으로 자연을 포용한 점을 볼 수 있다. 흥금과 천지가 혼연일체가 된 것은 일종의 目遊·心遊·神遊로 物과 我를 잊어버린 초월, 심원, 완곡, 유정한 奧의 경지를 이룬 것이다. 이는 자신이 눈이나 귀로 보고들은 것에서 나아가 피부와 가슴으로 느낀 바를 전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작자의 ‘意境’이 전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자는 이렇듯 그윽하고 고요한 ‘仙境’과 같은 ‘境界’에서 잠시 속세의 근심과 관리 사회의 음흉한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해탈을 얻고 있다. 자유롭게 凡俗을 초월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것은 몸과 마음 모두 大自然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술을 마셔 취하고, 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는데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柳宗元의 심리의식을 잘 드러내

97) 《柳宗元集》，卷29 〈始得西山宴遊記〉：“悠悠乎與顛氣俱，而莫得其涯，洋洋乎與造物者遊，而不知其所窮。引觴滿酌，頽然就醉，不知日之人。蒼然暮色，自遠而至，至無所見，而猶不欲歸。心凝形釋，與萬化冥合。”

는 ‘意境’이라 할 수 있다. ‘無我之境’의 ‘境界’에 이르러 그 ‘境界’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으나 어둠조차도 잊어버리고 우주자연의 변화와 하나로 융합하는 ‘境界’에 머물러 있고 싶은 내면의식을 표현한 意境美이다.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제자리인 貶謫地 생활의 고독하고 우울하며 비분에 찬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心凝形釋, 與萬化冥合.’에서는 현실을 초월한 無我的 적막한 奧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이 우주자연과 결합한 체험으로 생명의 근원과 형상 본체가 동일함을 柳宗元 스스로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⁹⁸⁾ 즉 柳宗元은 西山의 山水風景을 감탄하면서 자신과 산수와의 관계를 “心凝形釋, 與萬化冥合.”이라 하였다. 이는 글 속에서 柳宗元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심리를 정신이 집중되고 육신이 자유로워진다는 비유를 통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超越하여 자유분방하고 싶다는 정신세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작자 자신의 주관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意境美이다. 다음은 〈鉞鉞潭記〉를 보자.

鉞鉞潭은 西山 서쪽에 있다. 그 발원지는 대략 冉溪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힘차게 흐르다가 산의 돌과 부딪치면서 동쪽으로 굽어 흐른다. 冉溪의 상류와 하류의 물 떨어지는 낙차가 심해서 떨어져 부딪치는 기세가 더욱 사나와 진다. 이런 까닭으로 기슭이 침식되어 주변은 넓어지고 가운데는 깊이 파여 커다란 바위에 이르러서야 이내 멈춘다. 시냇물이 흐르면서 물거품을 일으켜 회오리 모양으로 소용돌이치고 난 뒤에서야 누그러진다.⁹⁹⁾

98) 鄧小軍, 〈柳宗元散文의藝術境界〉, 四川師大學報, p. 45. (林春映, 〈柳宗元 散文의藝術의 特性 研究〉, 上揭論文 p. 169 재인용.)

99) 《柳宗元集》, 卷29 〈鉞鉞潭記〉: “鉞鉞潭在西山西, 其始蓋冉水自南奔注, 抵山石, 屈折東流, 其顛委勢峻, 盪擊益暴, 齧其涯, 故旁廣而中深, 畢至石乃止. 流沫成輪, 然後徐行.”

柳宗元은 西山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후 계속하여 주변에 아름다운 山水風景을 찾아 유람하다가 鈞鉞潭을 발견한다.¹⁰⁰⁾ 그에게 있어 山水를 遊覽한다는 것은 煩惱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¹⁰¹⁾ 鈞鉞潭을 발견한 후 물의 흐름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深奧의 美’를 드러낸다. 물이 힘차게 흘러 돌과 부딪치고 다시 굽이쳐 흐르고 떨어지는 낙차로 인해 물의 기세가 사납고 그 기세는 결국은 누그러진다는 묘사는 ‘曠闊의 美’까지 느낀다. 이러한 ‘奧’와 ‘曠’의 대비 묘사를 통해 柳宗元의 審美 경치가 激情을 통해 결국은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며, 세상의 복잡한 일로부터 탈출하여 ‘無我之境’의 ‘境界’에 잠시라도 들고 싶어하는 염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행한 현실을 잊고자 하는 작자의 悲憤과 우울함을 意境美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鈞鉞潭西小丘記〉를 보자.

그 가운데 서서 바라보면 높은 산과 떠 있는 구름과 흐르는 계곡에 자유자재로 노니는 새·짐승·물고기가 모두 즐겁게 놀고 돌아가며 기교나 재주를 뽐내면서 언덕 아래에서 서로 뽐내며 다투는 듯하였다. 山石을 서로 베개삼아 배고 눕자, 맑고 깨끗한 경치가 눈에 들어 오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귀에 들려오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空의 정신이 느껴지며 깊은 고요함이 마음에 와 닿았다.¹⁰²⁾

이 글에서는 “높은 산과 떠 있는 구름과 흐르는 계곡에 자유자재로 노니는 새·짐승·물고기가 모두 즐겁게 돌아다니며 서로의 재주를 뽐내면서

100) 潭의 형상이 둥글며 가운데는 깊고 가장자리는 야트막하며 아래는 길죽하여 옛 여인들이 가운데 솥을 넣어 사용하는 손잡이 있는 다리미 같아서 鈞鉞潭이라 이름한다.

101) 程明, 《柳宗元山水遊記의 意境美》, 國際柳宗元研究 擷英, 1993, p. 306.

102) 《柳宗元集》, 卷29 〈鈞鉞潭西小丘記〉: “由其中以望, 則山之高, 雲之浮, 溪之流, 鳥獸之遨遊, 舉熙熙然廻巧獻技, 以効茲丘之下. 枕席而臥, 則清冷之狀與目謀, 潏潏之聲與耳謀, 悠然而虛者與神謀, 淵然而靜者與心謀.”

다투는 듯하다.”는 묘사를 통해 작자는 天地의 크고 광활함 속에서 마음에 空의 정신을 느끼고 있다. “맑고 깨끗한 경치가 눈에 들어오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귀에 들려오니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표현은 深奧한 경계로 마음과 일치되어 ‘無我之境’에 이르는 것이다. “空의 정신이 느껴지며 깊은 고요함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은 천지의 광활함과 ‘物我一體’가 되기를 희망하는 柳宗元의 心境이다. 즉 悲憤·挫折·孤獨 등의 精神的 번뇌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意境美이다. 다음은 〈小石城山記〉를 보자.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 캄캄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작은 돌멩이를 던져보니 풍덩하는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오랫동안 멀리 퍼져나갔다. 바위더미를 빙빙 돌아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¹⁰³⁾

돌멩이를 던져 보고 그 소리가 오랫동안 멀리 퍼져나가는 청각적 효과까지 동원하여 동굴이 깊고 위험함을 묘사하였다. 빙빙 돌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묘사는 聽覺的·視覺的 ‘境界’를 동시에 느낀다. 또한 돌멩이를 던지자 들려오는 소리가 강렬해 오랫동안 진동이 그치지 않음을 통해 바로 柳宗元의 心理意識이 안정된 것 같으나 실은 아주 불안정한 心境임을 상징하고 있는 意境美이다. 이와 같은 ‘無我之境’의 경지는 〈江雪〉詩¹⁰⁴⁾에서도 볼 수 있다.

千山鳥飛絕， 온 산에 새는 날지 않고

103) 《柳宗元集》，卷29 〈小石城山記〉：“窺之正黑，投以小石，洞然有水聲，其響之激越，良久乃已。環之可上，望甚遠。”

104) 《柳宗元集》，卷43 〈江雪〉.

萬徑人踪滅. 모든 길엔 사람 발길 끊어졌다.
孤舟蓑笠翁, 외로운 배에 삿갓 쓴 노인
獨釣寒江雪. 눈 내려 차가운 강에 홀로 낚시질한다.

柳宗元의 이 詩는 절묘한 특색을 지닌 〈江雪〉이다. 첫째, 둘째 句는 직접적으로 눈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큰 눈이 내리고 난 뒤의 ‘鳥飛絕’, ‘人踪滅’로 매섭게 추위 얼어붙은 ‘雪景圖’를 창조한 것이다. 셋째와 넷째 句는 눈 내린 강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늙은 노인, 외로운 배에 삿갓 쓴 노인이 눈 내린 차가운 강에서 홀로 낚시질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치는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柳宗元은 貶謫 생활에서 느끼는 적막함·흥금·기개·그윽함·심원함·냉정함·고요함 등에서 俗脫한 ‘無我之境’으로 볼 수 있다. 柳宗元의 〈漁翁〉詩¹⁰⁵⁾에서는 ‘有我之境’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漁翁夜傍西巖宿, 늙은 어부는 밤이 되자 서쪽 바위에 숙박하고,
曉汲清湘燃楚竹. 새벽에 맑은 湘水의 물과 楚 땅의 대나무로 밥을 짓는다.
煙消日出不見人, 안개 사라지고 해 떠오르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欸乃一聲山水綠. 뱃노래 한 가락에 산과 물이 다 푸르다.
回看天陰下中流, 머리 돌려 하늘구름 바라보니 물 속으로 흐르고,
巖上無心雲相逐. 바위 위에는 무심하게 구름만 서로 쫓는다.

작자가 漁夫의 생활을 묘사한 것은 한없이 넓고 아득한 湘江을 적기 위한 것이다. 푸른 산과 푸른 물을 스스로 달래서 스스로 노래하며 혼자 오고가는 ‘漁翁’은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으로 曠遠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意境을 ‘有我之境’이라 말할 수 있다.

〈鉤鈿潭西小丘記〉¹⁰⁶⁾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空虛한 듯한 정신

105) 《柳宗元集》, 卷43 〈漁翁〉.

이 느껴지며, 그 깊은 고요함에 빠져드는 心境은 遊覽하면서 느끼는 순간의 정신적 超脫로 보인다. 실제로 작자가 悲憤·挫折·孤獨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정신을 하나로 모아 禪定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吳文治는 柳宗元의 이런 정신적 경계가 宋代 蘇軾의 〈前赤壁賦〉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살펴보자.¹⁰⁷⁾

그 넓은 기운은 허공에 떠올라 바람을 거느림과 같아 그 그칠 곳을 알지 못한다. 그 초탈한 기운은 속세를 남겨두고 홀로 섬과 같아 날개를 펼치어 仙界에 오른다.¹⁰⁸⁾

여기서 작자는 자신의 心境을 자연과 완전히 융화시켜 ‘物我一體’의 경지에 들어가서 ‘物我’를 잇을 만큼 자연에 몰입하였다. 즉 情과 景이 만나 더 큰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바로 柳宗元 山水遊記의 예술성과 詩的 분위기를 창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자연스러운 ‘意境’의 표현은 柳宗元의 독특한 개성이며 특히 ‘曠’과 ‘奧’의 조화는 독특한 意境美를 나타낸다. 그는 永州 龍興寺 동쪽의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자신의 거처와 연결해 놓고 자주 遊覽하면서 갖가지 나무를 심고 개간하였다. 초목이 우거질수록 그윽함은 말할 수 없는 奧妙함에 빠져들게 하였다. 〈永州龍興寺東丘記〉를 보자.

계수나무·진나무·소나무·삼나무·녹나무·매화나무 등의 식물은 거의 3백 그루이고 아름다운 꽃과 보기 좋은 돌은 그 사이에서 중횡으로 교차되어 있다. 고개를 떨구고 이 녹색의 초원으로 들어서면 숲은 깊고 어둡컴컴하며 초목은 우거져있으므로 걸음걸이가 엇갈리어 나가야 할 곳을 알 수

106) 《柳宗元集》，卷29 〈鈇鉞潭西小丘記〉：本稿 p. 50의 인용문, 脚注 102) 원문 참조.

107) 吳文治, 《柳宗元簡論》, 北京 中華書局, 1979, p. 95.

108) 蘇軾 〈前赤壁賦〉：“浩浩乎! 如憑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 如遺世獨立. 羽化而登山.”

없게 된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대도 열기를 느낄 수 없고 시원한 공기가 절로 느껴진다. 물위의 작은 정자에 좁은 방이 있는데 그윽하니 정취가 깊다. 그러나 이곳에 와 본 사람은 종종 너무 멀고 깊숙한 것을 단점이라 여긴다.¹⁰⁹⁾

視覺적으로 푸른 나무들의 묘사와 촉각적인 찬 공기는 柳宗元의 심리적 우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자의 어떤 생각(意)을 표현하려는 내용이다. 생각의 깊고 낮음 등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은 작자가 포착한 것으로 자연사물의 ‘天趣’와 부합되는 개인적인 ‘意趣’라고 할 수 있다. 文章은 이러한 ‘意趣’와 일치하도록 표현한 결과이기도 한데, 柳宗元의 山水遊記 작품에는 자신의 ‘意趣’에 부합하는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그의 山水遊記 작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작자 내면의 審美意識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好評을 받고 있다.

1-3. 山水描寫의 畫境美

大自然的 생명은 유유자적하게 성장하며 움직이고 있다. 광활한 宇宙는 색채가 아롱지고 휘황찬란하며 생명력이 왕성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한 폭의 그림과 같고, 밝고 빛나는 감성으로 충만해 있다. 소박하고 생동감 있게 감성과 물질세계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관찰을 통해 美를 한층 더 아름답게

109)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桂·檜·松·杉·榿·栲之植，幾三百本，嘉卉美石，又經緯之。俛入綠縟，幽蔭蒼蔚。步武錯迕，不知所出。溫風不爍，清氣自至。水亭陋室，曲有奧趣，然而至焉者，往往以邃爲病。”

昇華시킬 수 있다. 柳宗元은 산문창작에서 세심한 관찰력과 생동감 있는 묘사로 自然山水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이 繪畫的인 성격을 지니고 畫境美를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의 비슷함을 찾아내어 적절한 비유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柳宗元은 아무런 느낌 없는 자연을 그냥 그대로 작품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한번 더 창조하여 자신만의 느낌으로 묘사하였다. 山水景物의 모습을 각각의 모습에 어울리는 대상으로 비유하여 선명하면서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독자의 想像를 유발시킨다. “옛말에 많은 책을 읽지 않고 名山大川을 두루 섭렵하지 않으면 글을 지을 수 없고 또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¹¹⁰⁾고 하였다. 이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명확히 알고서 그 느낀 점을 표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바로 柳宗元의 문장에 나타나 있다. 柳宗元은 山水를 직접 유람하면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聽覺的·視覺的 효과를 모두 동원해서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종합 繪畫藝術美를 보여준다. 表題만 보아도 한 폭의 繪畫 작품을 느낄 수 있는 〈始得西山宴遊記〉는 雄渾하고 怪特하게 서 있는 西山을 발견하고 유람한 것이다. 한 차례의 유람을 통해서 진정한 유람이 西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始得西山宴遊記〉를 지었던 것이다. 西山을 시작으로 해서 鉗鉞潭, 鉗鉞潭의 小丘, 小石潭, 袁家渴, 石渠, 石澗, 小石城山으로 이어지는 8폭의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山水畫 작품을 탄생시켰다. ‘永州八記’에서 어떤 畫境藝術美가 그려지는지 〈始得西山宴遊記〉부터 차례로 살펴보자.

고생 끝에 정상에 올라갔다. 나뭇가지와 넝쿨을 휘어잡고 당기면서

110) 清代 唐岱, 《繪事發微》: “古云, 不破萬卷, 不行萬里, 無以作文, 即無以作畫也.”

오른 후에야 비로소 발을 짚고 앉아서 마음껏 누렸다. 무릇 여러 고을의 대지가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회색 빛 저녁 기운이 멀리서 부터 가까이 다가오니,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으나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¹¹¹⁾

고생해서 西山의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경치를 한 폭의 ‘鳥瞰圖’로 보여준다. “蒼然暮色, 自遠而至”라는 몇자의 언어를 이용해, 산 속에 어둠이 일찍 찾아드는 상황을 표현해 색감 있는 視覺美를 더하고 있다. 清代 汪基는 “깨우침이耳目을一新시키고 情景의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게 묘사되었으니 화가도 이르지 못할 바이다”라고 評하였다.¹¹²⁾ 〈鉛鋸潭記〉에서는 流水의 氣勢를 묘사하는데 다음과 같다.

冉溪의 상류와 하류의 물 떨어지는 낙차가 심해서, 떨어져 부딪치는 기세가 더욱 사나워진다.(…)시냇물이 흐르면서 물거품을 일으켜 회오리 모양으로 소용돌이치고 난 뒤에서야 누그러진다.¹¹³⁾

〈鉛鋸潭記〉는 주위의 風景을 불과 몇 십자의 언어 배치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落水의 기세를 거칠고도 급격하게, 潭의 잔잔함을 一強一弱으로 표현하면서 대비를 이루는 表現技法이 뛰어나다.¹¹⁴⁾ 물이 떨어지는 落差의 기세에서는 聽覺美를 물결이 일으키는 포말에서는 視覺美가 함께 드러나는 畫境美를 보여준다. 물의 흐르는 모습에 초

111) 《柳宗元集》, 卷29 〈始得西山宴遊記〉: “窮山之高而止. 攀援而登, 箕踞而遨, 則凡數州之土壤, 皆在衽席之下.(…)蒼然暮色, 自遠而至, 至無所見, 而猶不欲歸.”

112) 胡楚生, 《柳文選析》, 臺北 華正書局, 1983, p. 189.

113) 《柳宗元集》, 卷29 〈鉛鋸潭記〉: “其顛委勢峻, 盪擊益暴,(…)行其泉於高者而墜之潭, 有聲潑然, 尤與中秋觀月爲宜.”

114) 羅聯添, 《柳宗元山水二篇遊記的分析》· 〈中國文學史論選集三〉, 1979, pp. 1073~1081.

점을 맞추는 세밀한 관찰력과 흐르는 물의 강약으로 潭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鈷鉞潭西小丘記〉에서의 암석 묘사를 보자.

독 위쪽에는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 대나무와 樹木이 자라고 있다. 그 언덕 바위들은 성난 듯이 우뚝 돌출하여 얽혀 있는데, 땅 속으로부터 흙을 짚어지고 솟아 나와서는 다투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거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우뚝 솟아 서로 얽히어 아래로 향한 것들이, 마치 소나 말들이 계곡 물을 마시는 것 같았고, 돌출하여 뿔처럼 곧게 위를 향하여 우뚝 솟은 것은 마치 곰이 산을 기어 오르는 듯했다.¹¹⁵⁾

柳宗元은 기이한 돌의 형상을 소나 말들이 계곡의 물을 마시는 것 같고 곰들이 산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다고 자세하면서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개성적인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奇石에 대한 표현은 정적이고 가라앉은 분위기와는 다른 생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또奇石들은 관찰자의 감정과 위치에 따른 또 다른想像力을 불러일으킨다. 柳宗元의 山水遊記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山水風景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단순한 사실의 묘사나 전달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表現技法을 사용해 美感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사실적으로만 묘사할 경우에 지니기 쉬운 단조로움이나 무미건조함을 없애고 생동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땅속에서 솟아 나와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암석에는 각도에 따라 명암이 달라 보여 마치 한 폭의 ‘水墨畫’를 보는 듯한 감동을 전달해준다. 이는 小丘의 위쪽을 장식하고 전체의 畫面에 생기와

115) 《柳宗元集》，卷29 〈鈷鉞潭西小丘記〉：“梁之上有丘焉，生竹樹。其石之突怒偃蹇，負土而出，爭爲奇狀者，殆不可數。其巖然相累而下者，若牛馬之飲于溪；其衝然角列而上者，若熊羆之登于山。”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마치 소나 말들이 계곡 물을 마시는 것 같고, 돌출하여 뿔처럼 끈게 위를 향하여 우뚝 솟은 것은 마치 곰들이 산을 기어오르는 듯하다.”는 표현은 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 실감나는 표현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암벽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은 바라보는 이의 경험이나 감정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想像力을 일으키는 것이다. 想像 속에서 펼쳐지는 한 폭의 山水畫는 視覺美와 聽覺美가 어우러진 映像美를 나타낸다. 〈至小丘西小石潭記〉를 보자.

푸른 나무와 풀덤불이 서로 얽히고 설켜어 이파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들쭉날쭉 바람에 따라 요동쳤다.(…)小石潭 위에 앉아 있으니 사방으로 대나무와 樹木이 둘러싸여 있고 고요하고 그윽하며 사람도 없이 心神은 처량하고 寒氣는 뼈 속까지 스며들고 쓸쓸하고 고요하기만 했다.¹¹⁶⁾

여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표현은 ‘風’의 효과를 잘 나타낸 것이다. 柳宗元 작품에서는 유난히 ‘風’자를 많이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小石潭 위에 앉아 있는 화면을 통해서도 繪畫美를 표현하고 있지만 小石潭의 情境이 고요하고 그윽하여 사람도 없이 心神은 처량하고 寒氣가 뼈 속까지 스며든다는 意境美까지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小石潭의 실제의 경치가 그럴 수도 있고, 작자의 심정이 기탁된 것일 수도 있으니 意境美와 畫境美가 융합된 ‘境界’이다. 柳宗元의 遊記文은 奇文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실감 있는 표현을 적절하게 잘 배치한다는 점이다. 파란 풀덤불로 덮인 小石潭은 각기 다른 형태를

116) 《柳宗元集》，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青樹翠蔓，蒙絡搖綴，參差披拂。(…)坐潭上，四面竹樹環合，寂寥無人，淒神寒骨，悄愴幽邃。”

하고 있고, 潭의 작은 시냇물과 통하며, 사면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潭 위에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는 바로 독자를 위해서 그윽하고 고요하면서도 冷艷한 한 폭의 ‘石潭靜坐圖’를 보여준다. 계속해서 〈至小丘西小石潭記〉를 보자.

연못 속에는 물고기가 대략 백여 마리 될 듯한데 모두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허공을 노니는 듯했다. 햇빛이 맑은 물밑 속을 비치자 물고기 그림자가 바위 위에 비치는데 꿈쩍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먼 곳으로 헤엄쳐가며 노니는 것이 아주 재빠르고 활발해, 마치 유람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듯했다.¹¹⁷⁾

연못 속의 물고기가 꿈쩍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헤엄쳐 노니는 모습을 통해 재빠르고 활발하다고 한 것은, 靜的 이미지에서 動的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한 폭의 ‘淸潭戲魚圖’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皆若空遊無所依”라는 묘사에서는 柳宗元의 처지가 아무 것에도 의지할 곳 없다는 상황을 물고기가 허공에서 의지할 곳 없이 노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意境美도 보여준다. 또 이 묘사는 酈道元의 《水經注》에서 “遊魚를 바라보니 마치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⁸⁾ 물고기가 마치 유람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듯하다는 묘사를 통해 柳宗元이 貶謫된 이후로 친구들과의 書信 왕래까지 뜸해진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기탁된 意境美를 이룬다. 계곡의 능선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遠近感이 나타나는 〈至小丘西小石潭記〉를 보자.

117) 《柳宗元集》, 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 “潭中魚可百許頭, 皆若空遊無所依. 日光下澈, 影布石上, 怡然不動; 俶爾遠逝, 往來翕忽, 似與遊者相樂.”

118) 酈道元, 《水經注》, 卷37 〈夷水〉: “俯視遊魚, 如乘空也.” (小尾郊一, 尹壽榮 譯, 《中國文學과 自然美學》, 1992, p. 377 재인용.)

小石潭에서 서남쪽을 바라보면 계곡의 능선이 마치 北斗七星 같은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고 뱀같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그 능선은 마치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 교차되어,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¹¹⁹⁾

구불구불한 계곡 능선을 北斗七星과 뱀의 형상에 비유해 굽이진 계곡 능선에서 遠近感이 느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모습을 통해 小石潭의 깊음을 알 수 있는 畫境美가 나타난다. 구부러져 있는 계곡으로 인해 小石潭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여운 있는 필법 또한 小石潭의 운치를 더해 주면서 또한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 교차된다고 묘사한 것은 諧謔美를 느끼게 한다.

朝陽巖으로부터 瀟水 위쪽으로 대략 5리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물로 둘러 싸여져 있고, 奇石으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 있는데, 이는 柳宗元의 붓 아래 놓인 袁家渴의 주변 풍경 묘사이다. <袁家渴記> 를 보자.

袁家渴의 상류는 南館의 산봉우리인 高嶂과 만나고 하류는 百家瀨와 만난다. 중간에는 많은 섬·작은 계곡·맑은 연못·얕은 모래톱 등이 굽이굽이 널려 있다. 평평한 곳은 물이 깊어 검푸른 색을 띠고, 급류에서는 포말을 일으킨다. 배를 타고 가다보니 계곡이 끝나 가는 가 싶었는데 모퉁이를 돌아서자 一望無際의 탁 트인 광경이 나타났다. 물 가운데 작은 산이 있는데 산에는 모두 아름다운 돌이 있고, 위쪽에는 관목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 겨울을 막론하고 항상 울창했다. 옆에는 동굴이 많고, 아래는 흰 조약돌이 많고, 나무는 단풍나무·녹나무·천년홍·편나무·저나무·예장나무·유자나무 등이 많았고 풀은 난초와 백지(白芷)가 있다. 또 기이한 榦歡(자귀나무)같은 나무가 있는데, 넝쿨이 번져 나가 수석에 뒤섞여 어지럽게 자라고 있다. 주위의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큰 나무를 흔들고 많은 풀들을 쓰

119) 《柳宗元集》，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潭西南而望，斗折蛇行，明滅可見。其岸勢犬牙差互，不可知其源。”

러뜨리고 붉은 꽃잎은 울긋불긋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큰 물결이 일어 포말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계곡 깊은 곳에선 조용히 가라앉는다. 바람이 불면 만물이 들썩였다가 바람이 멈추면 조용히 가라앉는 모든 광경이 수시로 변화를 거듭한다. 그 위대함은 이와 같고 나는 이러한 경치를 모두 다 형용할 수 없다.¹²⁰⁾

이는 柳宗元이 袁家渴의 물길을 따라 움직이며 관찰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글의 시작에서 永州 전체를 ‘鳥瞰圖式’으로 소개하여 한 장의 사진을 펼쳐 놓은 것 같다.”¹²¹⁾ 편 폭이 매우 짧은 글이지만 복잡한 색채 변화와 순간적인 율동을 奇妙하게 조화시켜서 袁家渴의 기이한 빛과 색채를 구성하였다. 沈德潛은 이 글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水·山·石·樹·草의 묘사가 오묘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風의 묘사는 모두 9구절로 무릇 바람의 속성과 형세 그리고 이리저리 불고 그침을 하나하나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연의 조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²²⁾

孫琮은 “한 폭의 작은 ‘山水畫’ 같다. 진정 流水飛花로 글을 이루었다.”¹²³⁾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石渠記〉를 살펴보자.

120) 《柳宗元集》，卷29 〈袁家渴記〉：“渴上與南館高嶂合，下與百家瀨合。其中重洲小溪，澄潭淺渚，間廁曲折，平者深黑，峻者沸白。舟行若窮，忽又無際。有小山出水中，山皆美石，上生青叢，冬夏常蔚然。其旁多巖洞，其下多白礫，其樹多楓·栲·石楠·榿·櫟·樟·柚，草則蘭芷。又有異卉，類合歡而蔓生，輻輳水石。每風自四山而下，振動大木，掩苒衆草，紛紅駭綠，翳荔香氣，衝濤旋瀨，退貯谿谷，搖颺葳蕤，與時推移。其大都如此，余無以窮其狀。”

121) 金濤主，《柳宗元詩文賞析集》，成都 巴蜀書社，1986, p. 125.

122) 沈德潛，《唐宋八家文讀本》，卷9：“記水·記山·記石·記樹·記草，無不入妙。尤在記風一段，共九句，凡性情形勢，往來動定。一一具備，可云化工。”

123) 劉文獻，《柳宗元的遊記》·〈文學雜誌〉，1959。（柳銀姬，〈柳宗元的 傳과 山水記 考察〉，上揭論文, p. 80 재인용.)

袁家渴에서 서남쪽으로 100步를 채 못 가서 石渠(돌로 된 물고랑)가 있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다리를 놓았다. 샘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石渠는 넓이가 한 尺, 또는 두 尺이고, 그 길이가 10여步쯤 되어 보인다. 그 물길은 큰 바위 아래로 부딪쳐 밑으로 흐르다가 또 나와서 흐른다. 바위를 넘어가면 石泓(옴폭 패여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창포(菖蒲)로 둘러싸이고 파란 이끼가 주위에 끼여 있다. 다시 굽어 서쪽으로 가면 옆이 옴폭 파인 바위 아래에 샘물이 떨어져 북쪽으로 흘러 작은 潭을 이룬다. 潭의 면적은 백 尺 조금 못되며 맑고 깊은 곳에 피라미가 많이 있다. 다시 북쪽으로 구불구불 굽어져 흘러가는 것이 끝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袁家渴로 흘러 들어간다. 그 옆에는 모두 기이한 암석, 괴상한 나무, 특이한 풀, 곧게 뻗은 대나무가 자라 있었는데 둘러앉아 쉴 수 있다. 바람이 수목, 화초, 대나무 끝을 흔들면 소리는 계곡 사이에 울렸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조용하며 소리는 먼 곳에서 나고 있다.¹²⁴⁾

袁家渴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石渠가 있고 그 위에 다리를 놓았는데, 石渠를 둘러싼 경관을 이루는 景物을 자세히 묘사하고 방위와 거리까지 밝히고 있어 한 폭의 ‘地形圖’를 보는 것 같다. 石渠 주변의 경관을 이루는 샘, 石渠의 넓이, 물길의 흐름, 암석, 연못, 물고기, 나무 심지어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빠뜨리지 않고 포착하여 묘사하면서 소리의 강약, 모양의 대소 등 視覺的·聽覺的 요소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듯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石澗記> 본문에서 “득의양양한 이 정취를 맛본 그날은 石渠를 얻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이었다.”¹²⁵⁾는 내용을 통해 <石澗記>가

124) 《柳宗元集》，卷29 <石渠記>：“自渴西南行，不能百步，得石渠，民橋其上。有泉幽幽然，其鳴乍大乍細。渠之廣，或倍尺，其長可十許步。其流抵大石，伏出其下。踰石而往，有石泓，昌蒲被之，青鮮環周。又折西行，旁陷巖石下，北墮小潭。潭幅員減百尺，清深多儵魚。又北曲行紆餘，睨若無窮，然卒入于渴。其側皆詭石怪木，奇卉美箭，可列坐而寐焉。風搖其巔，韻動崖谷。視之既靜，其聽始遠。”

〈石渠記〉에 이어 바로 지어진 글이며, 石渠와 石澗을 모두 하루에 찾았음을 알 수 있다. 〈石澗記〉에서는 어떻게 畫境美를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 물줄기의 크기는 石渠의 삼분의 일 정도였다. 바위가 바닥을 이루고 양쪽 물가에까지 하나로 이어졌다. 그 모습은 床 같기도 하고, 마루 같기도 하고 연회석을 펼쳐 놓은 듯하기도 하고, 여인의 깊숙한 규방을 막아 놓은 듯하기도 했다. 잔잔한 물이 石澗 위에 흐르는데, 옷감에 무늬를 짜듯 흐르고 있다. 소리는 비파를 타는 듯 울려 퍼졌다. 옷을 걸고 맨발로 나아가 가는 대나무를 잘라 빗자루를 삼아 낙엽을 쓸어내고, 썩은 나무를 걷어 치웠더니 등반이 의자를 놓고 십팔구명이 앉을만 했다. 서로 교차되면서 휘감아 부딪쳐 흐르는 물줄기가 일으키는 물소리가 평상 아래로 울려 퍼졌다. 비취색 날개 같은 나뭇잎과 용의 비늘 같은 바위가 돌의자 위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¹²⁶⁾

이 문장에서는 石澗의 크기를 서술한 뒤에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바위가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과 물의 흐름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딘지 모르게 평온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畫境美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바위의 모습이 床 같기도 하고, 마루 같기도 하고, 연회석을 펼쳐 놓은 것 같기도 하며, 잔잔히 흐르는 물은 옷감에 무늬를 짜는 듯하다는 등의 표현은 그 비유하는 景物이 일상생활 용품이거나 악기여서 친근감을 더해 줄 뿐 아니라 한 폭의 ‘情物畫’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특히 작자의 비유는 작자의 풍부한 상상력과 고도의 藝術技

125) 《柳宗元集》，卷29 〈石澗記〉：“得意之日，與石渠同。”

126) 《柳宗元集》，卷29 〈石澗記〉：“其水之大，倍石渠三之一。巨石爲底，達于兩涯。若床若堂，若陳筵席，若限闔奧。水平布其上，流若織文，響若操琴。揭跣而往，折竹箭，掃陳葉，排腐木，可羅胡牀十八九居之。交絡之流，觸激之音，皆在牀下；翠羽之木，龍鱗之石，均蔭其上。”

巧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永州八記’의 마지막편인 〈小石城山記〉를 보자.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 약간 가다가 동쪽으로 굽어지면 불과 40丈쯤에 땅이 끊어지며 시냇물이 갈라지는 곳에 바위더미가 가로막고 있다. 바위더미 위는 마치 성의 담이나 들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옆으로는 성루에 문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 캄캄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작은 돌맹이를 던져보니 퐁당하는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오랫동안 멀리 퍼져 나갔다. 바위더미는 빙빙 돌아서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흙은 없지만 근사한 나무와 아름다운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특이하고 견고하였다. 이러한 나무와 대나무들은 성글기도 하고 조밀하기도 하며 적당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모양새가 꽤나 숨쉴 수 있는 사람이 쌓은 陣營처럼 여겨진다.¹²⁷⁾

이는 小石山城의 지리적·형상적인 면을 세심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山城의 배치 특징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기이한 특색은 마치 한 폭의 簡明하고도 구체적인 石城의 ‘地形圖’와도 같다. 西山의 입구에서부터 북쪽에 위치한 小石城山은 돌이 층층이 쌓여 城처럼 생긴 돌산이다. 柳宗元은 이 돌산의 주위 경관을 묘사함에 바위동굴이 형성되어 있고 돌탑도 있으며 여러 나무와 대나무들이 성글게도 조밀하게도 자라고 있어 적당하게 배치된 절경을 이루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遊黃溪記〉를 보자.

127) 《柳宗元集》，卷29 〈小石城山記〉：“其一少北而東，不過四十丈，土斷而川分，有積石橫當其垠。其上爲睥睨梁欂之形，其旁出堡塢，有若門焉。窺之正黑，投以小石，洞然有水聲，其響之激越，良久乃已。環之可上，望甚遠，無土壤而生嘉樹美箭，益奇而堅，其疏數偃仰，類智者所施設也。”

黃神祠 위에는 두개의 산이 우뚝 솟은 담벽 같고 붉은 잎과 碧玉 같은 푸른 나무 잎이 산 위에 가득 자라고, 붉은 꽃 푸른 잎이 山勢에 따라 起伏을 이루고 있다. 樹木이 자라지 않은 그런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혹은 바위동굴이었다. 물 속에는 작은 자갈들이 한결같이 평평하게 깔려 있다. 黃神祠 주위에서 흐르고 있는 냇물을 옷을 걷어올리고 80보쯤 건너가면 첫 번째 연못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거의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¹²⁸⁾

이와 같은 黃神祠 주위를 둘러싼 경관 묘사는 한 폭의 ‘水墨畫’를 보는 듯하다. “黃神祠 위에는 두개의 산이 우뚝 솟은 담벽 같고, 붉은 잎과 碧玉 같은 푸른 나무 잎이 산 위에 가득 자랐으며, 붉은 꽃 푸른 잎이 山勢에 따라 起伏을 이루고 있다. 樹木이 자라지 않은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혹은 바위동굴이었다.”라는 표현은 웅장한 산수화를 표현하는 繪畫美가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林紓는 “이는 柳集 중 제일 得意한 글이다. 大畫家인 唐代의 荆浩, 關同과 明代의 董源, 巨然 등 四大家를 합쳐도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리라.”¹²⁹⁾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序飲〉에서 역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술잔을 채워 흐르는 시냇물에 띄어 보내 잔이 닿는 사람이 들어서 술을 마셨다.(...)누군가 산가지를 던지니 물 흐르는 모양이 정신없이 돌고 돌아 춤을 추듯 뿔뿔을 뛰듯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느리고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멈춰 서서 사람들이 모두 바위에 기대앉아 주시하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산가지가 갑자기 움직여서 무사하기도 했다. 이에 어떤 이는 한 잔을 마시고 어떤 이는 두 잔을 마셨다.¹³⁰⁾

128) 《柳宗元集》，卷29 〈遊黃溪記〉：“祠之上兩山牆立，如丹碧之華葉駢植，與山升降。其缺者爲崖峭巖窟，水之中，皆小石平布。黃神之上，揭水八十步，至初潭，最奇麗，殆不可狀。”

129) 林紓，《韓柳文研究法·柳文研究法》，上揭書，p. 117.

이는 계곡 바위에 앉아 계곡에 잔을 띄워 물의 흐름에 따라 술잔이 닿은 사람이 술을 마신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정신없이 들고 도는 모습을 춤추듯이, 뛰듯이 빠르고 느낌의 緩急에 따라 생생한 긴장감까지 더해 주고 있어 마치 몇 폭의 병풍에 그려진 ‘宴遊圖’를 보고 있는 듯하다.

맑은 물결에 비친 그림자의 묘사가 청신하고 아름답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佳作 〈陪永州崔使君游宴南池序〉를 보자.

零陵城의 남쪽에 위치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기슭마다 숲이 우거져 끝이 없다. 산골짜기 깊은 계곡 사이로 물이 모여서 그것은 깊고 넓은 南池를 형성했으며 굽이굽이 흐르는 한줄기 물길은 작은 계곡을 이루었다. 南池의 위쪽에는 단풍나무·녹차나무·가는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며 새들이 슬피 울고 있었다. 南池 아래로는 가시연꽃(芡)·세발마름(芰)·창포(蒲)·연꽃(蓼)이 자라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면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데 마치 하늘을 그 안에 담은 듯하고 출렁이는 물결 안에 비추어 드러내고 있으니 진정 유람하면서 얻는 풍경의 아름다움이다.¹³¹⁾

이는 零陵城 주위를 둘러싼 山이며 岸谷·池·溪·樹木·鳥·漁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 하나의 절경들이 어우러져 하들과 함께 물결 안에 비춘다는 절묘한 표현은 天地宇宙를 조화롭게 하나로 어울리게 하여 작자와 독자와 화가가 鑑賞者로서 혼연일체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0) 《柳宗元集》, 卷24 〈序飲〉: “實觴而流之, 接取以飲(…)既或投之, 則旋眩滑汨, 若舞若躍, 速者遲者, 去者住者, 衆皆據石, 注視, 權攄以助其勢. 突然而逝, 乃得無事. 於是或一飲, 或再飲.”

131) 《柳宗元集》, 卷24 〈陪永州崔使君游宴南池序〉: “零陵城南, 環以羣山, 延以林麓. 其崖谷之委會, 則泓然爲池, 灣然爲溪. 其上多楓·柟·竹箭, 哀鳴之禽 · 其下多芡·芰·蒲·蓼, 騰波之魚, 韜涵太虛, 澹灩里閭, 誠游觀之佳麗者已.”

이상에서 그림을 보는 듯이 선명하면서도 생동감을 더하는 묘사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자는 매우 세밀하게 山水景物 하나 하나를 묘사하는 세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의 묘사는 각각의 특출한 모습만을 잘 파악하여 이를 확대, 강조하고 독자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山水景物의 특징을 독특한 비유로 자세하고 선명하게 독특한 형상을 만들어 내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山水景物은 柳宗元의 붓 아래에서 변화가 많고 신비로우며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림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동쪽으로 굽어 흘러간다(屈折東流).’의 鈇鋤潭, ‘특히 물이 맑고 시원하였다(水尤清冽).’의 小石潭, 그리고 ‘아름답고 기이한 곳이다(幽麗奇處).’의 袁家渴, ‘바람이 수목·화초·대나무 끝을 흔들어 요동치면 소리는 계곡 사이에 울렸다(風搖其巔, 韻動崖谷).’의 石渠, ‘흐르는 모습은 짜여진 무늬 같았고 소리는 비파를 타는 듯하였다(流若織文, 響若操琴).’의 石澗, ‘그곳에는 흙은 없었지만 근사한 나무와 아름다운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無土壤而生嘉樹美箭).’의 小石城山の 대체적인 모습은 한 폭 한 폭 담담하고 유유한 ‘小景圖’라 할 수 있다. 이것은 永州의 山水風景이 수려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독자들을 위해 한 폭 한 폭 아름다움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畫境美를 묘사한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그 위치를 밝히고 매우 자세한 묘사를 함으로써 마치 지도를 펼쳐 놓은 듯하다. 이렇듯 아름다운 山水風景에다 작자의 탁월한 文藝技巧가 합쳐지니 柳宗元만의 뛰어난 山水畫境美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黃雲眉의 《韓愈柳宗元文學評價》에서 ‘文中有畫’라고 할만큼 山水遊記를 빌어 情恨을 발설하였는데, 이는 寓話나 山水遊記로써 폭로적 문학보다 격조를 높이고 아울러 위험한 현실 속에서 明哲保身하였으니, 그 차원의 비범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라 하였다.¹³²⁾ 나라를 위했던 정치혁신 운동의 실패로 忠義之士인 柳宗元은 오히려 정치적 포부를 발휘하지 못하고 貶謫 당하였다. 그로 인한 悲憤·挫折·孤獨등의 복잡한 감정을 문학 창작에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情이란 습관에 따라 이동하는 마음이며 사물에 접촉하고 어떤 일에 다다를 때 동요를 일으킨다.¹³³⁾ 柳宗元의 내면의 식으로 인해 아무리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앞에서도 끝내는 그것과 일치되지 못하고 자신의 感情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은 현실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작자의 사상·감정 표현에 있다면 柳宗元이 자신의 悲憤·挫折·孤獨을 山水景物에 기탁한 감정 표현 또한 예술이라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山水遊記에 나타나는 抒情美·意境美·畫境美를 종합적으로 볼 때 柳宗元은 山水自然의 형상을 편편마다 奇特하게 묘사하였다.¹³⁴⁾ 이는 작품에 藝術美를 더해 주고 있는데, 작자의 內面意識에 잠재해 있는 審美觀을 山水景物 대한 奇特한 묘사로 寄託해 냄으로써 단순히 보면 山水를 遊覽한 기록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을 작자는 創作技巧를 발휘하여 文學性·藝術性을 높였다.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錢穆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柳宗元의 山水遊記 諸篇은 古今에 다시없는 傑作이다.(...)柳公은 본디 詩에도 정통하였으니, 만약 옛 자취를 좇았다면 마땅히 謝靈運과 같은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柳公은 變體시켜 산문을 씀으로서 마침내 따로 이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편 산문

132) 黃雲眉, 《韓愈柳宗元文學評價》, 齊魯書社, 1979, p. 112.

133) 晋代 孫綽, 《蘭亭詩》: “情因所習而遷移者, 物觸所遇而興感者.”

134) 朱世英, 郭景春, 《唐宋八家文散文技法》, 長江文藝出版社, 1986, p. 63.

은 다만 옛 흔적을 따라 여전히 論辯과 奏議 종류에 머무르고 절대로 純文學의 심오한 경지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後人들이 꼭 詩와 文을 두 갈래 길로 나누어 따로 떼어 아주 먼 것으로 간주하니 柳子厚의 遊記와 같은 깊은 맛을 얻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¹³⁵⁾

錢穆은 이처럼 散文史上에서 柳宗元의 遊記散文은 山水景物의 묘사와 抒情을 융합하여 창작된 것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山水文學에 있어 散文의 영역을 훌륭히 확보한 공로를 잘 지적하고 있다. 永州 山水風景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한 山水遊記는 마치 한 폭의 山水畫 같지만 그 속에는 그가 무료할 때 한적한 情緒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한 현실적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그가 정치적으로 받은 울분과 불평을 토로한 것이다. 柳宗元이 山水風景을 창작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대자연에 대하여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悲憤한 心情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⁶⁾ 散文史上에서 그의 遊記는 당연히 극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135) 《中國文學史論文選集》，卷3 〈雜論唐代古文運動〉。(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上揭論文, p. 282 재인용.)

136) 何沛雄, 《柳宗元永州八記》, 上揭書, p. 87.

2. 亭記 · 堂記

褚斌杰은 雜記文을¹³⁷⁾ 내용과 특징에 따라 건축물의 축조가 敍事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臺閣名勝記, 지리와 연혁을 고증할 수 있는 山水游記, 記物의 實得 경위를 주로 서사하는 書畫雜物記,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서사하는 人事雜記로 구분하는 四分法을 채용하였다.¹³⁸⁾ 謝楚發은 游記를 山水記 · 游記 · 亭臺記로 구분하였다.¹³⁹⁾ 褚斌杰의 臺閣名勝記에서는 堂 · 亭子 · 祠堂 · 閣 · 寺刹 등의 건축물과 도랑 · 제방 · 다리 등을 소재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주인, 협력자, 위치, 경비, 시간, 축조의 과정과 규모, 평가, 作名, 作記動機, 請託者, 作記目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本章에서는 柳宗元의 亭記 · 堂記가 이러한 사항을 비교적 충실히 따른 『記』文을 살펴보겠다.¹⁴⁰⁾ 卷27의 記亭池에서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 ·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 ·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 〈永州韋使君新堂記〉 · 〈永州崔中丞萬石亭記〉 · 〈零陵三亭記〉 6편과 卷29의 記山水에서 〈柳州東亭記〉 · 〈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 2편을 대상으로 한다. 亭과 堂을 건축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밝히고 그곳 주인들의 인품을 頌德하면서 자

137) 일상 생활의 잡다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主素材로 삼는다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記』文을 일반적으로 『雜記文』이라고 하였다.

138)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p. 353. 曾國藩의 《經史百家雜鈔》에서도 이 四分法을 따르고 있다.

139) 謝楚發, 《散文》,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4. pp. 47~62. 謝楚發은 臺閣名勝記를 亭臺記로 명칭하고 山水游記를 山水記와 游記로 세분하였다는 점이 褚斌杰과 다르지만 그 분류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山水記와 遊記는 내용 분류상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褚斌杰의 분류법이 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140) 本稿에서 연구하는 《柳宗元集》, 卷27의 記亭池에서는 주로 堂과 亭에 대해서만 다루었기에 臺閣亭記라는 표현보다 亭記 · 堂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신의 심정을 議論으로 표출하는데,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능력을 議論美로 평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亭과 堂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아무리 勝景이라도 자연과 인간의 審美的 상호관계가 없다면, 그 美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에게 인식되지 못한다는 “美不自美，因人而彰美”¹⁴¹⁾ 調和의 美를 제시한 것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唐代에는 사회적 안정으로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유명한 문인에게 부탁하여 기록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當時에 유명한 문인들은 이러한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柳宗元 역시 청탁을 받아 많은 문장을 지었다. 《柳宗元集》, 卷27의 記亭池는 타인의 청탁을 받아 건축물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될 주인을 일차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 건축물이나 記物에 대한 칭찬은 곧 주인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진다. 때로 건축물에 관해 특기 사항이 없으면 그 주인을 직접 서술하면서 관련된 인물의 훌륭함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¹⁴²⁾를 보자.

戴氏는 학문과 덕행을 인정받아 늘 빈객의 예우를 받았으며, 선발에 천거된 적도 있었지만 그 뜻을 벼슬에 두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交遊하는데 있어서는 겸손하며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제후의 충애를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자만하지 않았으니, 어찌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孔子의 책을 좋아하고 《莊子》와 《文子》를 가까이 하여 達通하지 않은 것이

141) 《柳宗元集》, 卷27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美不自美, 因人而彰美.

142) 다른 책에는 ‘楊中丞作’ 4자의 表題가 없다. 楊中丞은 弘農公으로 즉 楊憑을 말하며 柳宗元의 장인이다. 永貞元年(805)에 柳宗元이 永州司馬로 貶謫되어 潭州를 지나다가 楊憑의 청탁을 받아 이 문장을 지었다. 戴氏의 이름은 簡이고 譙國 戴逵의 후손이라고 한다. 章士釗, 《柳文指要 上·下》, 上海 文匯出版社, 2000, p. 627.

없었다. 지극히 겸허함을 최고로 삼아 얻음이 道에 통하였으니 어찌 道를 즐겨함이 아니겠는가? 賢者의 천거는 반드시 자신과 같은 부류를 하는 법이다. 弘農公의 선택을 받아 이 지역의 勝景을 독차지하였으니, 어찌 쉽게 얻어진 것이겠는가! 地勢가 제아무리 뛰어나다해도, 적임자를 만나 거주했을 때만, 비로소 높은 산에 그 높음을 더한 것과 같고, 넓게 펼쳐진 물이 더 넓어진 것과 같으며, 堂은 꾸미지 않아도 이미 선명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戴氏는 東池를 거처로 삼고 구름과 景物을 친구로 삼아, 그윽하고 순수함을 펼치며 날마다 이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니, 덕행은 날로 높아지고, 학문도 날로 깊어지며, 道 또한 날로 성대해지니 사람과 자연의 교류가 보탬이 된 것이다. 내면세계가 성취되고 또한 세상에 널리 칭송 받고 있으니, 戴氏가 세상을 멀리하는 본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弘農公은 潭州刺史로서 그 정치를 잘 펼치셨고, 東池에 勝景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골라서 주었으니, 어찌 행동하는 것마다 도리에 합당하다 아니 할 수 있겠는가!¹⁴³⁾

이 글은 弘農公이 潭州刺史로 와서 東泉을 연못으로 만들어 그 가운데 堂을 지어놓고 堂의 아름다움에 적합한 사람인 戴氏를 뽑아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다. 戴氏는 學文, 德行, 辭讓, 禮義, 道의 즐거움을 아는 것 등을 모두 갖추었다는 칭찬이다. 이러한 戴氏가 堂의 뛰어난 勝景과 어울려 살게 되니, “則山若增而高, 水若關而廣, 堂不待飾而已奐矣.”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戴氏를 칭찬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弘農公의 안목도 알 수 있다. 다음은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 144)를 보자.

143) 《柳宗元集》，卷27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戴氏嘗以文行，累爲連率所賓禮，貢之澤宮，而志不願仕。與人交，取其退讓，受諸侯之寵，不以自大，其離世歟？好孔氏書，旁及莊文，莫不總統。以至虛爲極，得受益之道，其樂道歟？賢者之學也必以類。當弘農公之選，而專茲地之勝，豈易而得哉！地雖勝，得人焉而居之，則山若增而高，水若關而廣，堂不待飾而已奐矣。戴氏以泉池爲宅居，以雲物爲朋徒，攄幽發粹，日與之娛，則行宜益高，文宜益峻，道宜益懋，交相贊者也。既碩其內，又揚于時，吾懼其離世之志不果矣。君子謂弘農公刺潭得其政，爲東池得其勝，授之得其人，豈非動而時中者歟！”

元和12년(817) 御使 裴中丞(裴行立)이 桂州에 부임하였다. 27州의 여러 군대와 州의 행정을 감독했다. 裴公이 정치를 하니, 도둑들은 도망을 갔고 간사한 이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에게는 덕과 은혜로서 넉넉하게 베풀었다. 부임한지 일년이 지나자 성공적인 정치로 인해 생산물이 풍부해지고 백성도 늘어났다. 그때 천자가 淮夷를 평정하고 河朔을 다스리는 일을 제후들에게 알렸다.¹⁴⁵⁾ 裴公은 곧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에 관리들과 모두 訾家洲에 올라와 연회를 즐겼다. 訾家洲에서 아득하고 오랫동안 관망하면서 옛 흔적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했다. 그래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돈을 넉넉히 주고 조용한 땅으로 이주하게 하였다. 쓸모 없는 나무는 벌목하고 잡풀들을 베어내고 앞뒤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휘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눈은 바빠 움직였다. 무심히 바라보니 마치 바람을 타고 둥실 위로 떠오른 구름을 만난 것 같고, 첩첩이 둘러싸인 산이 重江¹⁴⁶⁾과 합쳐지고 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자욱하게 머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두 아름답다. 평소 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가 갑자기 펼쳐지면 유람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춤추듯 분주하게 움직였다.(…)裴公의 안목이 아니었다면 눈이 가려 멀리 보기에 부족하였을 것입니다.¹⁴⁷⁾

이 글에서는 裴行立이 桂州에 와서 은혜와 덕으로서 善政을 하니, 마을이 안정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살기 좋아졌음을 칭찬하였다. 일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정치적 성공을 이루었고, 또 訾家洲를 정리하면서 勝景을 얻는 식견까지 칭찬하였다.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148)

144) 裴中丞은 裴行立을 말한다. 다른 책에는 ‘裴中丞作’이란 表題가 없다.

145) 淮夷는 淮水 하류 지역의 이민족을 말하고, 河朔은 黃河 북쪽을 말한다.

146) 廣西省에 있는 江名,

147) 《柳宗元集》，卷27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元和十二年，御史中丞裴公來蒞茲邦，都督二十七州諸軍州事。盜遁姦革，德惠敷施，期年政成，而富且庶。當天子平淮夷，定河朔，告于諸侯，公既施慶于下，乃合僚吏，登茲以嬉。觀望悠長，悼前之遺。於是厚貨居氓，移于閒壤，伐惡木，剷奧草，前指後畫，心舒目行。忽然若飄浮上騰，以臨雲氣，萬山面內，重江束隘，聯嵐含輝，旋視具宜，常所未覩，悠然互見，以爲飛舞奔走，與遊者偕來。(…)然則人之心目，其果有遼絕特殊而不可至者耶？蓋非桂山之靈，不足以壞觀。非是洲之曠，不足以極視；非公之鑒，不能以獨得。”

에서는 “진흙을 발라 나의 집을 짓게 되니, 아침나절도 안 걸려 목공이 완성되었다고 알려 왔다.”¹⁴⁹⁾고 서술하는 점에서 柳寬의 소박함을 알 수 있다. 소박한 茅亭과 어울리게 쓸쓸하고 淡泊한 묘사를 가하고 있는데, 혹자는 作者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그의 독보적인 경지로 평가한다.¹⁵⁰⁾ 다음은 〈永州韋使君新堂記〉¹⁵¹⁾를 보자.

어떤 이가 찬탄과 축하를 하면서 말했다. “韋公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韋公의 뜻을 알겠습니다. 韋公은 땅의 형세에 따라 뛰어난 경치를 만들어 놓았으니 어찌 이 곳의 풍습을 기반으로 하여 교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韋公은 추악함을 가려내고 아름다움을 취하였으니 어찌 간악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韋公께서는 혼탁함을 제거해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하였으니, 어찌 탐욕을 버리고 청렴결백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韋公께서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았던 것이 어찌 집집마다 살피고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런즉 이 堂으로 말하자면 어찌 풀·나무·흙·돌·물·샘물의 적당한 배치만 지었겠는가? 어찌 산야와 숲의 조망만 있을 뿐이겠는가? 장차 韋公의 이치를 계승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큰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¹⁵²⁾

이 글에서는 永州刺史 韋彪가 얻기 어려운 勝景을 얻었다는 것을

148) 柳中丞은 柳寬을 말한다. 柳宗元의 둘째 사촌형이다. 다른 책에는 ‘柳中丞作’ 表題가 없다.

149) 《柳宗元集》，卷27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迺塹迺塗，作我攸宇，於是不崇朝而木工告成。”

150) 清代 過珙《古文評注》：“夫茅井所在多有，孰是與茅亭相稱哉？安得不讓柳州獨步！”

151) 韋使君은 韋彪를 말한다. 元和 7·8년 사이 永州刺史의 일을 맡았다. 다른 책에는 ‘韋使君’란 表題가 없다.

152) 《柳宗元集》，卷27 〈永州韋使君新堂記〉：“或贊且賀曰，‘見公之作，知公之志。公之因土而得勝，豈不欲因俗以成化。公之擇惡而取美，豈不欲除殘而佑仁。公之鑷濁而流清，豈不欲廢貪而立廉。公之居高以望遠，豈不欲家撫而戶曉。’夫然，則是堂也，豈獨草木土石水泉之適歟。山原林麓之觀歟。將使繼公之理者，視其細，知其大也。”

칭찬하고 있다. 亭子를 짓는데는 땅의 형세에 따라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는 지역 풍습을 기반으로 해서 교화해야 한다. 추악함을 제거하고 아름다움을 취하며, 간악한 자를 가려내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혼탁함을 제거해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이러한 선악의 대비는 韋公이 높은 곳에 올라, 바른 敎化를 위해 관망한다는 깊은 뜻을 칭찬하였다. 다음은 〈永州崔中丞萬石亭記〉 153)를 보자.

御使中丞 清河 崔公이 永州에 부임했다. 어느 한가로운 날, 城 북쪽 성벽에 올라 황야에 초목으로 우거져 뒤덮인 틈 사이를 내려다보다가 기이하고 특출한 돌을 발견하고 그 아래에는 반드시 뛰어난 경치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다음날, 마을의 여러 노인들이 와서 “우리들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들 판에 씨 뿌리며 눈썹이 희끗희끗해 지고, 이가 다시 돌아날 정도가 되어도 일찍이 이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요! 땅에서 솟아난 것이요! 이처럼 신령스런 景物로 나타나니, 崔公의 德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축하를 한 다음에는 崔公에게 그것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청했다. 崔公은 “여기 암석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으니 ‘萬石亭’이라 이름짓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노인은 다시 “崔公이 지은 亭子의 이름은 아주 훌륭합니다. 어찌 그것이 오로지 景物의 모습만을 묘사한 것이겠습니까! 崔公은 일찍이 여섯 차례나 刺史를 지냈으니 이미 숫자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道가 있는 선비는, 모두 崔公의 공적을 백성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훌륭하신 명성을 칭송하고, 천지신명께 축복을 빌겠습니다. 漢代의三公(몇몇)은 萬石君이라 불렀는데 우리 崔公의 德 또한 마땅히 찬사 받아야 합니다. 漢代에 신하의 예의가 있는 것은 오직 萬石君입니다. 崔公의 가르침은 규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 성인의 道에 맞는 통치를 하니 하늘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골 늙은이가 글을 지어 崔公의 만수무강을 빌겠습니다.”¹⁵⁴⁾

153) 崔中丞은 崔能을 말한다. 元和 6年(811) 9월에 蜀州刺史·黔中觀察使·柳州刺史를 지냈다. 다른 책에는 ‘崔中丞’란 表題가 없다.

이 글에서는 永州刺史 崔能이 지은 萬石亭의 아름다운 경관과 崔能의 德을 칭송했다. 먼저 崔能이 城北 潭에 올라 怪石, 樹木의 奇狀을 발견하고 그곳을 정리하고 亭을 세운 일을 묘사하였다. 다음 단락에서는 마을의 늙은 백성과의 대화를 통해 亭의 이름을 萬石亭이라고 부른 緣由를 말하였다. 단순히 암석의 숫자가 많아서라는 景物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섯 차례나 刺史를 지낸 정치 업적에다 가장 중요한 그의 德이 萬石과 같다는 것을 칭찬하였다. 다음은 〈零陵三亭記〉 155)를 보자.

河東사람 薛存義는 뛰어난 관리로 荆·楚 지역에서 이름나 있었는데, 潭部(湖南觀察使)가 그를 추천해 湘源令이 됐다. 때마침 零陵은 政事가 복잡하고 각종 세금이 횡행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현령에게 하소연하여,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사를 추천해 이 지방에 부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현령이 부임하니 도망쳐 숨은 자들은 집으로 되돌아 오고, 근심과 고통은 웃음과 노래가 되었으며, 임대료를 체납하였거나 부역을 피해 도망간 일 등을 한달 안에 해결하였다. 오래된 사악한 무리들을 징벌하였다.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기뻐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하였다. 鄉吏에는 胥吏(하급관리)를 들 필요가 없었고, 병사를 소집하는 북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다. 닭·돼지·건식·맛 좋은 술은 먹기에 충분하여 조상에 제사 지내는데 사용

154) 《柳宗元集》, 卷27 〈永州崔中丞萬石亭記〉: “御史中丞清河男崔公, 來蒞永州. 閒日, 登城北墉, 臨于荒野藜翳之隙, 見怪石特出, 度其下必有殊勝.(…)明日, 州邑耄老, 雜然而至, 曰: “吾儕生是州, 藝是野, 眉厖齒鯢. 未嘗知此. 豈天墜地出, 設茲神物, 以彰我公之德歟?” 既賀而請名. 公曰: “是石之數, 不可知也. 以其多, 而命之曰萬石亭. 耄老又言曰: “懿夫公之名亭也, 豈專狀物而已哉! 公嘗六爲二千石, 既盈其數. 然而有道之士, 咸恨公之嘉績未洽于人. 敢頌休聲, 祝于明神. 漢之三公, 秩號萬石, 我公之德, 宜受茲錫. 漢有禮臣, 惟萬石君. 我公之化, 始于閨門. 道合于古, 祐之自天. 野夫獻辭, 公壽萬年.”

155) 零陵은 永州에 위치한다. 零陵三亭은 동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讀書亭·湘秀亭·俯淸亭을 말한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수는 이를 치하했으며, 이웃 읍에서도 따라 했다. 그러나 薛存義는 오히려 이러한 것에 자만하지 않고, 山水自然의 즐거움에 정을 의탁하며 욕심 없이 태연했다.¹⁵⁶⁾

이 글에서는 薛存義가 零陵으로 부임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게 되니, 도망쳤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웃음과 노래 소리가 들리는 등 한달 이라는 빠른 시간에 마을이 안정이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축하하였다. 薛存義는 자신이 행한 善政을 칭찬하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山水自然에 의탁하는 욕심 없는 행동은 그가 진정 道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임을 칭송하였다.

卷29의 記山水〈柳州東亭記〉에서는 柳州의 東亭의 주변 환경과 亭子를 세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¹⁵⁷⁾ ‘棄地’의 발견과 그곳의 위치, 정리하고 가꾼 일, 亭子를 짓고 여러 종류의 室을 만든 일, 사계절에 따른 각 室의 용도를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柳州東亭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卷27의 記亭池의 6편 내용과는 달리 請託을 받아 문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작자 스스로 東亭을 짓게 되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버려진 땅을 발견하고서 환경을 개선, 그곳의 勝景에 東亭을 지어 아름다움을 찾고 조화롭게 꾸며 美를 한층 더한다는 것이다. 章士釗는 柳宗元이 多室을 지은 구조를 明堂圖와 비견하면서 ‘도성을 구획하고 논밭을 측량한다

156) 《柳宗元集》，卷27 〈零陵三亭記〉：“河東薛存義，以吏能聞荆·楚間，潭部舉之，假湘源令。會零陵政彫賦擾，民訟于牧，推能濟弊，來蒞茲邑。遁逃復還，愁痛笑歌，逋租匿役，期月辨理。宿蠹藏奸，披露首腹。民既卒稅，相與歡歸道途，迎賀里閭。門不施胥吏之席，耳不聞鞀鼓之召。雞豚糲醕，得及宗族。州牧尚焉，旁邑倣焉。然而未嘗以劇自撓，山水鳥魚之樂，澹然自若也。”

157) 章行嚴은 이 記는 응당 정치 建制的 기록으로 보아지기에 記官署와 같은 유형으로 ‘永州八記’ 뒤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혹 劉禹錫이 《柳河東集》 편집할 때에 주의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는지 모른다. 章行嚴, 《柳文探微 上·中·下》, 臺北華正書局, 1981, pp. 856~857.

(體國經野)’의 계획을 보여준다면 정치성이 강하다고 말하였다.¹⁵⁸⁾

亭記·堂記의 序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생기게 된 유래를 밝히고 있으며, 건축물을 세우게 된 이유나 동기 등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에 건축물 이름의 유래나 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말하고 있다. 깊숙이 은폐되었거나 버려진 땅을 개간함으로써 勝景이 드러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德이 함께 어울리면서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완성된 亭과 堂에 올라 우주만물의 調和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浩然之氣의 기상을 키우고자 염원하였다. 이렇게 亭과 堂이라고 이름지어진 건축물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중국인의 우주적 인생관과 직결된다.¹⁵⁹⁾ 보통 亭記·堂記의 특징은 주변 풍경 묘사와 의론이 잘 결합되어 나타난다. 亭이나 堂이 처음에는 종교행사를 진행하던 장소로 쓰였는데, 문학에서 議論 성분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社會文學으로의 功利的 기능도 지니게 되었다. 柳宗元이 산문창작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功能에 부합하는 것이다. 勝景에 亭과 堂을 짓고 또 그곳을 짓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의 인품이 高德하고 學文이 높고, 樂道를 아는 사람들이 어울려 調和의 美를 한층 높이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치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議論의 성분이 드러나고 이는 작자의 내면 審美意識과 文學風格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158) 上同

159)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4, pp. 227~229.

2-1. 自然과의 調和美

일찍이 貶謫되어 人生의 대부분을 永州·柳州에서 보내게 되는 柳宗元의 불우한 인생 경력은 오히려 그의 문학에 풍성한 내용과 예술성을 지니게 되는 바탕이 된다. 감성의 대상으로서의 美는 조화로운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藝術美를 더해 준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사람에게는 일곱 가지 情感이 있어 외계 사물의 변화에 응하면 자연히 느끼는 바가 생긴다. 사물에 대한 느낌이 생기면 뜻을 읊게 되므로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았으며 美의 최고의 원칙은 자연이라고 지적하였다.”¹⁶⁰⁾ 예술작품과 같은 특정한 대상을 포함해 모든 것은 아름답고, 행위도 또한 아름다울 수 있다. 이처럼 美라는 언어는 우선은 시각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단적인 완전성이며 완전성에 대한 지각을 통해 감탄의 마음이나 쾌감을 유발한다.¹⁶¹⁾ 美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美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이며 일정한 감상의 가치를 지닌 형상이라는 것이다. 文藝美 역시 개념이 아닌 형상이라야 하며, 문예의 가장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구체적이고 생동적인 생활을 예술적 묘사 과정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는 추상의 속성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형상이다. 둘째, 美는 사람에게 喜悅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이는 형상이 인간과 인류생활의 어떤 사물을 상기시켜 주고, 그 사물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힘의 대상화이기 때문이다. 셋째, 美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원시사회에는 인류의 생존에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美였을

160) 劉勰 《文心雕龍》·〈名詩〉：“人稟七情，應物斯感。感物吟志，莫非自然。”

161) 사사키 켄이치 著, 사사키 민주식 譯 《미학사전》, 동문선, 1995, pp. 39~40.

것이다. 그 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美는 물질적 실용성에서 보편적인 사회효용성의 방향, 즉 웅장함과 편안함, 신비감을 주는 자연과 인류가 지니게 된 미덕 등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¹⁶²⁾ 劉勰도 文을 강조하여 정치교화 작용을 발휘하는 동시에 文采도 매우 중요시했다. 그는 정치 논리인 善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고 文의 감성적인 美까지 연구했다.¹⁶³⁾

永州·柳州의 산수는 貶謫되어 온 柳宗元과 우연한 만남을 이룬다.永州·柳州의 산수는 絕境에 奇景이지만, 위치가 편벽된 곳에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柳宗元의 처지와 비슷하여 永州·柳州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했고, 그곳의 산수에 자신의 悲憤·孤獨·挫折의 슬픔과 고통을 기탁할 수 있었다. 柳宗元의 貶謫된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永州 시기의 山水遊記에 나타나 있다. 山水景物에다 懷才不遇로 인한 자신의 실의와 불만을 표현하였다.¹⁶⁴⁾ 그렇다고 꼭 悲憤·孤獨·挫折의 슬픔과 고통만을 기탁한 것은 아니다. 산수유람을 통해 아름다움이나, 예술성, 사회

162) 《사회주의 미학연습》, 上揭書, pp. 57~59.

163) 劉勰《文心雕龍》·〈原道〉에서 ‘광의적 文’으로서 대자연은 아름다운 것으로, 視覺·聽覺의 감각 기관의 즐거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文采이다. ‘협의의 文’으로 사람과 유관한 사회 정치의 道를 체현하면서 보다 文采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산문에 있는 文의 文采와 감성 형식에 대한 美를 강조한 것이다. 〈徵聖〉에서는 성인을 칭송하면서 성인의 문장에 풍부하게 있는 文采를 긍정하고 있다. 〈宗經〉에서는 揚雄이 美玉을 조각하는 재능을 요구하는 成器物作함을 비평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면서 〈五經〉에서 말한 문장은 文采를 함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설명은 儒家의 경전을 모방한 글쓰기 규범과 경전의 경험을 글쓰기의 모범으로 하는 文의 역할은 사회 교화작용을 해야하며 文의 辭藻의 美를 중시했다. 劉勰의 주장은 柳宗元이 견지한 審美와 公利의 결합으로 美와 善의 통일을 주장한 점과 비슷하다.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p. 57~60, 재인용.)

164) 場轟·曹萌, 〈論柳宗元山水文學〉, 上揭論文, p. 69.

적 작용, 심미적 효과까지 잘 융합하였다.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에서 그의 美學的 견해를 알 수 있다.

무릇 美는 스스로 美가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그 美가 드러난다. 蘭亭이 王羲之를 만나지 못했다면, 맑은 여울과 잘생긴 대나무는 空山에 매몰되었을 것이다. 이 亭子는 멀리 외진 곳 閩嶺에 홀로 있어, 그 아름다운 경치를 와서 보는 이가 드무니, 글로 쓰지 아니하여 그 멋진 가치를 매몰시킨다면 이는 숲과 계곡에 부끄러움인지라 이를 기록한다.¹⁶⁵⁾

여기에서 무엇이 美인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王羲之의 蘭亭故事를 인용하여 山水의 아름다움은 사람으로 인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山水의 自然美는 일종의 객관적 존재로서 蘭亭의 ‘맑은 여울과 잘생긴 대나무(淸湍脩竹)’이나 茅亭의 ‘멋진 자취(盛跡)’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름답지만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審美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美는 사람에게 인식되지 못한다. 客觀的 존재로서의 自然의 美와 사람의 主觀的 인식과 관계를 가져야만 비로소 美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美不自美, 因人而彰美’는 견해는 美는 主觀과 客觀의 통일체라는 유물변증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 自然美와 藝術美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蘭亭이 지닌 자연의 美는 王羲之¹⁶⁶⁾의 藝術 창조 과정을 거쳐 <蘭亭集序>¹⁶⁷⁾라는 산문 작품으

165) 《柳宗元集》, 卷27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夫美不自美, 因人而彰. 蘭亭也, 不遭右軍, 則淸湍脩竹, 蕪沒於空山矣. 是亭也, 僻介閩嶺, 佳境罕到, 不書所作, 使盛跡鬱埋, 是貽林澗之媿. 故志之.”

166) 王羲之(321~379 또는 303~361), 字는 逸少, 右軍 벼슬을 지냈으므로 王右軍이라고 하였다. 낭야(琅邪) 臨沂(지금의 山東)사람이다. 詩와 賦에 뛰어났고 특히 散文에 뛰어났다. <蘭亭集序>가 뛰어난 명문이다.

167) <三月三日蘭亭集序>이라고도 한다. 永和 9년(353) 3월 3일 47세 때의 작품이다. 會稽 山에서 당시 유명인사인 孫綽과 謝安 등 41명과 함께 亭子에 祭를 올리고 술을 마시

로 표현되어 널리 전해진 것이다. 만약 蘭亭의 아름다움이 王羲之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면 空山の 거친 언덕에 매몰되었을 것이다. 이는 藝術美는 自然美에서 발원하면서도 또 自然美보다 더 높은 경지의 것이며, 藝術美는 自然美에 비하여 더욱 典型的이고 선명하며 풍부한 매력을 지녔음을 인식하고 있다. 藝術 창조 과정 중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柳宗元이 특별히 王羲之의 이름을 언급한 의도는 審美 주체의 능동적 작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王羲之가 바로 蘭亭에서 自然美를 기초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審美理想과 思想感情을 용해시킬 수 있었다. 王羲之를 긍정하면서 散文藝術의 창조에 있어서 審美 주체 작용을 중시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¹⁶⁸⁾ 山水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文學을 포함한 모든 藝術의 영역에 적용된다. 소재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美의 개념에 대하여도 革新的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山水를 美的인 對象으로 인식하고 山水美를 발견한 柳宗元의 美意識은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 山水景物에 대해 묘사하면서 자신의 內面意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美學의 藝術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9세기 중국의 文學家·美學家로서 柳宗元이 이와 같은 美學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¹⁶⁹⁾ 사물의

며 참석했던 사람들이 각자 지은 詩를 모아 한 권의 시집을 만들어 이 일을 기념했다. 여기에 王羲之가 序文을 짓게 되었는데, 이를 <蘭亭集序>라 칭하게 되었다. 소리와 색이 어울려 情景이 서로 일어나서 성대한 모임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文章을 지어 議論을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적절한 배치를 했다. 계속해서 성대한 일도 영원하지 못하고 길고 짧은 것도 서로 변하듯이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감탄을 표시했다. 총 19개의 ‘之’자가 나오는데 각각 나름의 특징과 風格을 지니고 氣勢와 형태 역시 제 각각이라, 그 가치는 城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정도라 하였다.

168)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p. 111~112.

169)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p. 142~143.

다양성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기법은 柳宗元의 文藝美를 이루는 중요한 창작방법이다. 그의 散文에서는 복잡한 다양성을 美로 조화롭게 다듬고, 散文을 창작하는데 운용하였다. 柳宗元은 文學 매개체와 심미적인 멋, 그리고 藝術風格의 다양화를 제창하여 散文의 멋과 風格이 단조로운 색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¹⁷⁰⁾

柳宗元이 永州로 貶謫되어 潭州를 지나면서 지은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¹⁷¹⁾를 보면 勝景을 얻는 일이 쉽지 않고, 발견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배가된다는 것이다. 높은 산에 높음을 더하고, 넓은 물이 더 넓어지고, 꾸미지 않아도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戴氏이다. 戴氏는 《孔子》·《莊子》·《文子》에 達通했고 덕행까지 갖추고 있으면서도 벼슬을 원하지 않았다. 交遊에 있어서도 겸손하며, 제후들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오만하지 않았으며, 겸허함을 최고로 삼았고, 道의 깨달음을 樂으로 삼으니 바로 賢者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高德한 戴氏를 弘農公이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戴氏는 東池에 거처를 삼고는 주위 山水景物을 친구로 삼고, 그윽하고 순수함을 펼친다. 이러한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의 덕행은 날로 높아지고 문장의 깊어 졌다. 즉 戴氏堂을 지어 이 堂에 적임자 戴氏게 살게 되면서 東池라는 자연의 美에 완숙한 인간 人格의 崇高美까지 더한 調和의 美가 강조되었다.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¹⁷²⁾에서는 訾家洲亭을 단순히 하나의 자연경치로만 볼 것 같으면 숨겨진 아름다움을 쉽게 찾아 내지 못할

170)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p. 112~113.

171) 《柳宗元集》, 卷27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 本稿 pp. 71~72의 인용문, 脚注 144의 원문 참조.

172) 《柳宗元集》, 卷27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 本稿 p. 73의 인용문, 脚注 148의 원문 참조.

것이다. 山水風景을 자세히 둘러보면 사방의 경치가 한결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서로 기이함과 수려함을 다투어 양보하지 않고 각자의 빼어남을 뽐낸다. 이런 개성이 담긴 산수의 美는 천하를 두루 유람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淸氏洲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裴公의 식견으로 발견한 것이다. 裴公은 勝景임을 발견하고 그곳에 어울리는 淸家洲亭을 지어 놓았으니, 그 淸家洲亭 안에 宇宙自然의 조화의 美가 담겨 있는 것이다.

〈永州韋使君新堂記〉에서는 폐허를 다듬고 정리하여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堂을 짓게 되니 아름다운 주변 경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아름답다고 서술하였다.

이 곳의 돌은 수풀에 가려져 있고, 샘물은 진흙 아래 숨어 있다. 뱀들이 동지를 틀고 었드려 있고, 살쾡이와 쥐들이 돌아다니며, 무성한 수목과 쓸모 없는 나무, 아름다운 꽃, 독풀 할 것 없이 서로 다투며 어지럽게 자라고 있어, 사람들은 폐허라고 불렀다.(…) 쌓아 놓은 풀을 불태우고 물길을 트니 맑은 물이 흐르면서, 기이한 형세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물의 맑고 더러움이 구별되고, 경치의 美醜가 뒤바뀌게 되었다.(…) 무릇 만물이 주변 형세와 잘 어울리고 돕지 않는 것이 없으니, 殿堂의 둘레 아래에서 기예를 펼치는 것과 같다.¹⁷³⁾

이 글에서는 美景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발견하고 나면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두 배나 커지듯이, 험하고 깊은 골짜기에서 명승지를 찾게 된 기쁨은 당연히 더할 것이다. 아름다움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폐허라고 여기던 곳을 韋使君이 무

173) 《柳宗元集》，卷27 〈永州韋使君新堂記〉：“有石焉，翳於奧草。有泉焉，伏于土塗。蛇虺之所蟠，狸鼠之所游。茂樹惡木，嘉葩毒卉，亂雜而爭植，號爲穢墟。(…)既焚既醜，奇勢迭出。清濁辨質，美惡異位。(…)凡其物類，無不合形輔勢，效伎於堂廡之下。”

성한 풀들을 베어 내어 길을 내고, 물 속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였다. 숨겨진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니 기이한 형세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였고, 물의 淸濁, 땅의 좋고 나쁜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숨겨지거나 버려져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매몰되고 말 것이라는 상징이다. 즉 만물이 주변 형세와 잘 어울리고 도와주는 조화의 美를 한껏 펼친 것이다.

〈永州崔中丞萬石亭記〉는 永州刺史 崔能이 북쪽 성벽에 올라 怪石을 발견하고 그곳을 정리하고 萬石亭을 세운 일을 묘사하고 있다.

어느 한가로운 날, 城 북쪽 성벽에 올라 황야에 초목으로 우거져 뒤덮인 틈 사이를 내려다보다가 기이하고 특출한 돌을 발견하고 그 아래에는 반드시 뛰어난 경치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西門으로부터 걸어나가 그 폐허를 찾았다. 대나무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고서 몸을 옆으로 기울여 들어갔다. 계곡과 계곡이 이어지고 모두 커다란 암석이 숲처럼 늘어 서 있는데, 어떤 것은 내달리던 구름이 흩어지는 듯하고, 어떤 것은 바둑을 놓은 것 같이 들쭉날쭉하고, 어떤 것은 성난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새가 힘차게 발돋움하는 것 같다. 돌에 난 구멍을 보니 동물의 콧구멍과 입 같고, 그 뿌리 부위를 살펴보니 동물의 발굽과 대퇴부가 얽혀 대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덮치면서 물 것 같아 놀랐다. 그래서 부패한 흙을 파내고, 잡목과 잡초를 베어 내고 불태웠으며, 깊고 평평한 붓도랑을 파내어 땅 속으로 스며서 흐르는 물을 통하게 하여 맑은 연못을 돌아 흐르게 했다. 넓어지고 맑아지는 것이 마치 조물주가 맑고 혼탁한 것을 판단해 이 땅에 기이한 효력을 나타낸 것 같으니,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遊亭을 세우고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亭子 서쪽 정면에는 암석이 겨드랑이 사이처럼 갈라져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푸른 절벽이 서로 절경을 다투면서 깊은 연못에 빠져들어 있어,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니, 첩첩이 이어진 산들이 다른 산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져 있다.¹⁷⁴⁾

이 글에서는 崔公이 높은 곳에서 조망하다 발견한 기특한 암석을 보고 그 아래에는 더욱 뛰어난 경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는 대나무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였다. 발견한 곳의 경치는, 내달리던 구름이 흩어지는 듯하고, 바둑을 놓은 것 같이 들쭉날쭉하고, 성난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고, 새가 힘차게 발돋움하는 것 같은 갖가지 형상을 이루는奇景이었다. 돌에 난 구멍은 동물의 코와 입 같았고, 동물의 발굽과 대퇴부가 얽혀 대치하고 있는 것 같고, 주위를 둘러 보다 갑자기 덮쳐서 물 것 같은 형상을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묘사하는 작자의 상상력은 대단한 興趣를 일으킨다. 발견한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다듬고 정리하니, 그 경치는 더욱 넓어지고 맑아지는 기이한 효력을 나타내었다. 매몰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꾸고 드러내니 결코 혼자서는 아름다울 수 없고, 자연사물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더욱 조화롭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드러낸 아름다움에 萬石亭을 지어 정자 아래로 펼쳐지는 산수풍경을 조망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람에게 회열의 감정을 일으키는 美的 작용을 하는 독특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인공적으로 가해진 美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零陵三亭記〉에서는 零陵의 동쪽에 버려진 땅의 서술하였다.

그러나 薛存義는 오히려 이러한 것에 자만하지 않고, 山水自然의

174) 《柳宗元集》，卷27 〈永州崔中丞萬石亭記〉：“間日，登城北墉，臨于荒野藂翳之隙，見怪石特出，度其下必有殊勝。步自西門，以求其墟。伐竹披輿，欹側以入。懸谷跨谿，皆大石林立，渙若奔雲，錯若置碁，怒者虎鬪，企者鳥厲。抉其穴則鼻口相呀，搜其根則蹄股交峙，環行卒愕，疑若搏噬。於是剝闢朽壤，翦焚榛蕪，決澮溝，導伏流，散爲疎林，洄爲清池。寥廓泓渟，若造物者始判清濁，効奇於茲地，非人力也。乃立游亭，以宅厥中。直亭之西，石若掖分，可以眺望。其上青壁斗絕，沈于淵源，莫究其極。自下而望，則合乎攢巒，與山無窮。”

즐거움에 정을 의탁하며 욕심 없이 태연했다. 그래서 그는 담 울타리를 치우고 가축무리를 몰아내고, 낮고 물기가 많은 땅의 물길을 터고, 산림에 풀은 베어 내고 다듬고, 많은 암석으로 숲을 이룬 것처럼, 움푹 패인 곳을 쌓아 연못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와 보기 좋은 풀이 자라고 있으며, 산봉우리가 물에 드리우고, 적막함 속에 영롱한 소리 울리고,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푸른 안개가 저절로 머물며,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경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물고기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좋아하고, 새들은 깊고 고요한 환경을 사랑하는 법, 별도의 보금자리가 생겨나니, 물 속에 잠겼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노래 부르며 나무 위에 모여드니, 기르지 않아도 풍성했다. 나무를 베어 강에 띄우면, 마을 성문 앞까지 흘러간다. 흙으로 질그릇 만드는 곳 또한 관가 옆에 있다.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아도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¹⁷⁵⁾

이 글에서는 버려진 땅을 薛存義가 零陵으로 와서 올바른 정치가 행하고 백성들도 薛存義를 존경해 즐거운 마음으로 三亭을 짓게 되는 과정과 그곳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名勝이 발견된 일과 세 채의 亭子를 지어 觀遊한 일을 기록하면서 觀遊와 政治를 조화시키는 점은 柳宗元의 創作技巧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薛存義 산수자연에 의탁하며 욕심 없는 태도로 주변 환경을 다듬고 정리하니, 아름다운 나무와 풀이 자라고, 산봉우리에 안개 드리우고, 적막함 속에 영롱한 소리 울리고, 淸風은 불어오고, 푸른 안개를 머금고 있으니,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경치가 생겨나는 것이 있다. 물고기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닐고, 새들의 노래 소리는 깊고 고요한 환경에서 더욱 청각을 자극하는 등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작

175) 《柳宗元集》，卷27 〈零陵三亭記〉：“然而未嘗以劇自撓，山水鳥魚之樂，澹然自若也。乃發牆藩，驅群畜，決疏沮洳，搜剔山麓，萬石如林，積坳爲池。愛有嘉木美卉，垂水藂峯，瓏玲蕭條，淸風自生，翠烟自留，不植而遂。魚樂廣閑，鳥慕靜深，別孕巢穴，沈浮嘯萃，不畜而富。伐木鑿江，流于邑門。陶土以埴，亦在署側。人無勞力，工得以利。”

자 자신의 지쳐 있는 심정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생동적이게 묘사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잠시라도 설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리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美의 가치라 할 수 있다.

〈柳州東亭記〉 176)에서는 柳州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棄地’를 발견하고 정리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柳宗元이 柳州刺史로 있을 때에 버려진 땅의 형상을 보고, 방치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자르고 베어 내어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 다음에는 각종 나무를 심고, 亭子를 고치는 등의 손질을 가하였다. 많은 산들이 둘러서 있고 지세가 확 트여, 물이 흐르게 되니 山水와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다. 柳宗元은 柳州가 비록 長安과는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이곳도 가히 다스릴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柳宗元은 刺史라는 직책으로서 민생안정과 미신타파, 교화 및 환경개선에 힘썼으니, ‘柳柳州’라고 불릴 정도로 善政을 펼쳐 後代에까지 칭송을 받았다.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땅에 美木을 심고 나니 예전과 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주어 조화의 美를 이루는 것이다.

〈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에서는 柳州近治의 지형을 언급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였는데, 특이한 형상으로 인해 불려지게 된 지명과 그곳의 정경을 서술하고, 그 주변의 경치를 지명에 따라 자세히 서술하였다. 문장은 柳州를 중심으로 해서 東西南北의 순서에 따라 柳州 부근의 유람할 가치가 있는 山水景物을 묘

176) 《柳宗元集》，卷29 〈柳州東亭記〉：本稿 pp. 80~81의 인용문 참조, 脚注 157)의 원문 참조.

사하였다. 대강 한번 읽어보면 문장이 번잡한 듯하나 실은 一山, 一水가 모두가 한 줄로 꿰어져 있어 潯水에 연결되며, 潯水에서 시작하여 潯水로 마치는 조화로움은 예술구상의 섬세함이다.¹⁷⁷⁾ 柳宗元의 대부분 山水遊記 작품에서는 작자의 정치적 좌절로 오는 자신의 심리를 주로 서술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의론으로 덧붙이는데 비해서 〈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경치의 묘사만으로 끝을 맺는다. 柳宗元은 貶謫된 이후 자신이 赦免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永州보다 더욱 먼 곳인 남방의 柳州 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柳宗元은 아마 柳州가 자신의 마지막 부임지가 될 것임을 악화된 건강으로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어진 일에 만족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적으로 실패하였으나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현실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柳州에서의 그의 정치적 업적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는 柳州에서 절제와 겸양의 덕을 배웠으며 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형상화 시켰다.¹⁷⁸⁾

亭記·堂記를 통해서 서로 대립이나 어긋남보다는 서로 어울려 균형형을 이루는 조화의 美를 느낄 수 있다. 자연이 주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가꾸어서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德行을 갖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美醜, 善惡 등의 다양성을 조화의 美로 이끌어낸 柳宗元의 이론과 실천은 散文 藝術性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

177) 金俊亨, 〈柳宗元의 山水遊記 研究〉, 明知大碩士學位論文, 1995. p. 55.

178) 程明, 《柳宗元山水遊記的意境美》, 上揭書, p. 309.

2-2. 山水描寫를 통한 議論美

柳宗元の『記』文에서는 〈零陵郡復乳穴記〉・〈永州鐵爐步志〉・〈零陵三亭記〉・〈鉬鉬潭西小丘記〉・〈小石城山記〉에서 議論美가 특별히 돋보인다. 이 작품들에서 柳宗元은 議論 성분에서 서사 및 서정과 융합하고, 비유·상징 등으로 잘 운용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議論文이라고 하면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¹⁷⁹⁾ 本章에서는 자칫 딱딱하게만 비쳐질 것 같은 議論에 『記』文에서 보여주는 山水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형상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 議論美라고 부르기로 한다.

明代 吳訥은 그의 《文章辨體》・〈記篇〉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빼어난 山水物을 기록하고 景物로 點綴하여 妙觀을 이루어낸 때에는 議論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廳堂臺亭의 記에 議論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으로 文章을 이루어 내겠는가? 기둥 몇 개, 대들보 약간, 벽돌 얼마 등의 이야기로 어찌 글을 이루겠는가?¹⁸⁰⁾

議論이란 관점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思索을 정리하고 체계화 한 문장 전개방식을 가리킨다. 文學은 창작자의 意志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⁸¹⁾ 이러한 議論體 문장이 柳宗元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柳宗元은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179)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高麗大學校出版部, 1998, p. 264.

180) 吳訥, 于北山校點, 《文章辨體序說》, 北京 華文出版社, 1959. “凡記名勝山水, 點綴景物, 便成妙觀, 可以不著議論. 若廳堂臺亭之記, 不著議論, 將以何說, 撰成文字? 豈棟若干, 梁柱若干, 瓦磚若干, 便足以成文字乎?”

181) 劉萍, 《文學概論》, 華正書局, 1984, p. 95. “文學的目的, 可以說即是文學創作者的一種意志的表現”

때로는 묘사하여 서술하고, 때로는 의론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수법을 하나로 융합하여 서술하면서 의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묘사 속에 抒情性을 포함하기도 하며, 抒情性 중에 묘사를 겸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韓愈의 〈柳子厚墓誌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柳子厚가 오랫동안 貶謫 당하지 않았고 지극히 궁벽하지 않았다면, 비록 남보다 뛰어나기는 하였어도, 필경 제 힘으로 그의 학술과 문학이 지금처럼 그렇게 자력으로 후일에까지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¹⁸²⁾

이 글에서 韓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柳宗元이 정치혁신이 실패하여 장기간 貶謫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불행이 오히려 비교적 광범위한 사회와 만나게 되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게 되었고, 대중의 곤경을 몸소 체험하고 사회와 자연계의 여러 현상을 깊이 관찰하게 된 연유였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창작은 기초가 없었을 것이며, 後代에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柳宗元은 韓愈가 평가하는 것처럼 정치혁신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여 貶謫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불운으로 꺾어진 자신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복잡한 심정을 의론으로 나타냈다. 〈零陵郡復乳穴記〉를 보자.¹⁸³⁾

182) 韓愈, 馬其昶校注, 《韓昌黎文集》, 河洛圖書出版社, 1975. “然子厚斥不久, 窮不極, 雖有出於人, 其文學辭章, 必不能自力以致, 必傳於後如今, 無疑也.”

183) 편명의 ‘零陵’은 ‘連州’의 誤記이다. 또한 당시의 刺史 崔公은 連州刺史 崔簡이다. 章士釗의 《柳文指要》에서 諸說을 종합 고증하여 편명과 注 아래의 刺史名의 誤謬를 밝히고 있다. 章士釗, 《柳文指要 上·下》, 上揭書, p. 815.

穴人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좋은 징조임을 어찌 알겠는가? 이전의 刺史는 욕심이 많고 이로움을 좋아하여 나를 부역으로 부리면서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刺史께서는 명령이 밝고 뜻이 깨끗하여 먼저 이득을 주고 뒤에 노역을 시켜 속이고 업신여김이 사라지고 믿음과 도리에 따라 넉넉하게 퍼지니 내 이로 인해 진실로 아뢰는 것이다.(…)君子의 상서로움은 政事로써 하고 기이함으로써 하지 않나니, 사물에 정성으로 하고 道에 믿음을 두어 백성들이 명령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있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라 하는 것이니, 어찌 홀로 좋은 징조가 아니겠는가!”¹⁸⁴⁾

이 글에서는 鐘乳石의 채취와 관련된 일로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던 鐘乳石이 새로운 刺史가 온지 몇 달만에 다시 생산된다고 穴人이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吉兆라고 노래하지만, 穴人是 길조가 아닌 점을 토로하면서 現刺史의 善政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전에 刺史는 힘들게 鐘乳石을 채취하여도 刺史의 욕심만 채우고 穴人에게 아무런 보답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거짓으로 보고하였던 것임을 밝히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穴人의 행위를 진정한 상서로움이라고 풀이하며 바른 정치를 위한 도리를 의론하고 있다. 즉, 성실하게 처사하여 백성들이 기꺼이 일하도록 함이 정치의 道라는 政論을 피력하였다. 짧은 편 폭의 글에서 거의 全幅을 邦人·穴人·士人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假定一反駁一斷定의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백성과 穴人, 그리고 선비 三人의 대화를 통하여 의론에 이른 독특한 記인 것이다.

184) 《柳宗元集》，卷28 〈零陵郡復乳穴記〉：“穴人笑之曰，是惡知所謂祥邪。嚮吾以刺史之貪戾嗜利，徒吾役而不吾貨也，吾是以病而給焉，今吾刺史令明而志潔，先賴而後力，欺誣屏息，信順休洽，吾以是誠告焉。(…)君子之祥也以政，不以怪，誠乎物而信乎道，人樂用命，熙熙然以效其有，斯其爲政也而獨非祥也歟。”

議論으로 이끌기 위한 비유로 철로보라는 나무터를着想해서 쓴 독특한 〈永州鐵爐步志〉를 보자.¹⁸⁵⁾

永州 북쪽 성밖에 鐵爐步라는 나무가 있다. 내가 배를 타고 여기 와서 거주한지 9년이 지나도록 왕래하며 鐵爐步가 있는 곳을 찾아보았는데도 없었다. 어떤 사람에게 물으니, “옛날에 대장장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나고 鐵爐步는 부서지고, 그 후 몇 해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홀로 그 이름만 남아 존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아니, 세상에 이처럼 실상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서 속이고 있는 것도 있을까?” 나무터 사람은 “선생께서는 왜 유독 이것만 괴이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세상에는 자기 가문을 등에 업고 천하에 출세한 사람들이 ‘나의 가문은 세력이 있어 다른 가문이 우리와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지위와 덕망이 어떤지 들어보면 ‘그것은 먼 조상 때부터 전해 온지 오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나의 가문은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아무개씨 가문은 세력이 있구나!’라고 말하니, 그 속이는 이름이, 이 나무와 다를 것이 있습니까?¹⁸⁶⁾

이 글에서는 이름의 有名無實함을 말하였다. 옛날에 살던 주인은 이미 떠나고 없고 鐵爐步라는 나무 이름만 남았다는 점을 비유로 결국 德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가 가문의 권세만을 믿고 惡政을 일삼는 것을 의론한 것이다. 議論文의 특징인 작은 일을 통하여 큰 도리를 보이는 표현기법이 돋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地理志 형식을 동원하고

185) ‘志’는 고대의 일종의 문체로 ‘序’, ‘記’를 서술하는 문체에 속한다.

186) 《柳宗元集》, 卷28 〈永州鐵爐步志〉: “永州北郭有步, 曰鐵爐步. 余乘舟來, 居九年, 往來求其所以爲鐵爐者無有. 問之人, 曰: “蓋嘗有鍛者居, 其人去而爐毀者不知年矣, 獨有其號冒而存.” 余曰: “嘻! 世固有事去名存而冒焉若是耶?” 步之人曰: “子何獨怪是? 今世有負其姓而立於天下者, 曰: ‘吾門大, 他不我敵也.’ 問其位與德, 曰: ‘久矣其先也’ 然而彼猶曰 ‘我大’, 世亦曰 ‘某氏大’. 其冒於號有以異於茲步者乎?”

있는데 그의 社會改善의 적극적인 태도가 이렇듯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貶謫 시기의 文學 功能을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⁸⁷⁾ 觀遊와 政治를 조화시키는 〈零陵三亭記〉를 보자.

대저 氣가 번거로우면 생각이 어지럽고, 시야가 막히면 뜻이 막힌다. 君子는 반드시 놓고 쉬는 곳이 있고, 높게 밝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써 맑고 편안하게 하여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런 연후에 이론이 達通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옛날, 비심(裨諶)¹⁸⁸⁾ 들판에서 일을 도모하여 성공하였고, 복자(宓子)¹⁸⁹⁾ 거문고를 타면서 다스렸다고 하였다. 만약 생각과 뜻이 어지럽고 막히면 방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감상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政事의 수단이 아닌가? 薛氏의 뜻이(세 채의 亭子를 건축하는 뜻) 진실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 폐단은, 노는 것이 政事를 대신하여 안정을 황폐화시키는 데 있다. 만일 직무를 이어받은 사람들 모두 이러한 薛氏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을 백성들의 행복은 거의 실현된 것이 아니겠는가?¹⁹⁰⁾

이 글은 의론으로 시작한 것이 다른 글과 다르다 할 수 있다. 觀遊는 爲政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의론을 문장 끝에서 호응시켜 首

187)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上揭論文, p. 236.

188) 裨諶은 鄭나라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子産과 裨諶이 마차를 타고 들판을 가다가 돌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동맹에 관하여 상의했다는 내용이 《左傳》 襄公 31년에 기록되어 있다.

189) 宓子是 宓子齊이다. 그는 春秋時代 魯나라 사람으로 字가 子賤이며, 孔子의 제자이다. 그는 일찍이 單父 지방에서 관직을 지냈는데, 자기 집에서 거문고를 타는 일만 할 뿐, 政事는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單父 땅은 오히려 잘 다스려졌고, 孔子는 그를 ‘君子’라 칭찬했다.

190) 《柳宗元集》, 卷27 〈零陵三亭記〉: “夫氣煩則慮亂, 視壅則志滯. 君子必有游息之物, 高明之具, 使之清寧平夷, 恒若有餘, 然後理達而事成.(…) 在昔裨諶謀野而獲, 宓子彈琴而理. 亂慮滯志, 無所容入. 則夫觀游者, 果爲政之具歟? 薛之志, 其果出於是歟? 及其弊也, 則以玩替政, 以荒去理. 使繼是者咸有薛之志, 則邑民之福, 其可既乎?”

尾를 의론 성분으로 이끌고 있다. 중간 단락에서 亭子와 유람을 주로 기록함으로써 標題에 작당한 『記』文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記事 부분에서도 여전히 觀遊와 治積을 긴밀하게 교차시킴으로써 그 論旨에 부합시키고 있다.

〈鈞鉞潭西小丘記〉¹⁹¹⁾에서도 柳宗元 자신을 버려진 땅에 비유하는 議論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언덕을 매입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그 땅을 ‘唐氏之其地’라고 표현하면서 貶謫된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겨우 40文에도 팔리지 않던 땅이 長安 부근에 있었다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현실은 永州라는 외진 곳에 버려져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議論性을 나타내고 있다.

〈小石城山記〉¹⁹²⁾에서는 景物 묘사 및 그에 따른 감회가 議論으로 기술되었다. 柳宗元은 造物主의 존재 유무에 대한 議論이 전개되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蠻夷의 땅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神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신이 이곳에 奇異한 경치를 만든 이유를 전해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小石城山이 長安에 있지 않고 오랑캐 땅에 있게 됨으로 그 勝景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뛰어난 勝景에도 불구하고 편벽된 곳에 방치되어 있는 柳宗元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울분을 토로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感受하고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편벽된 곳에 은폐되어 무용지물이 된,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長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포부를 펼칠 수 없으니, 이 버려진 땅과 다름없는 신세를 의론으로 펼쳤다. 山水風景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묘사되고 있는 만큼, 柳宗元의 悲憤·

191) 《柳宗元集》，卷29 〈鈞鉞潭西小丘記〉：本稿 p. 34의 인용문, 脚注 71)의 원문 참조.

192) 《柳宗元集》，卷29 〈小石城山記〉：本稿 p. 37의 인용문, 脚注 76)의 원문 참조.

挫折·孤獨 등의 심정이 함께 함축되었다. 柳宗元은 대부분의 작품 文尾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불우한 감정을 기탁하는 議論의 성분으로 끝맺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창작의도를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대의를 명확히 하였다. 비유·상징 등의 수법을 통한 전개는 문장의 본의를 독자들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점을 議論美로 밝히고 있다.

3. 佛敎와 관련된 記

柳宗元의 『記』文에서는 주로 山水風景의 勝景을 얻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과정 중에 나타나 있는 山水景物 묘사는 주로 감정이입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貶謫된 이후의 작품인 『記』文 창작에 있어서는 자신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노력이 내재해 있으며, 작품에 묘사되는 山水景物들 또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에서 脫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佛敎와 相关된 『記』文 뿐만 아니라 諸文에서도 불교교리에 대한 柳宗元의 깊은 이해를 볼 수 있다. 柳宗元이 唐代古文運動을 함께 이끌었던 韓愈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佛敎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韓愈는 抑佛崇儒였으나¹⁹³⁾ 柳宗

193) 唐代 대표적인 排佛論者인 韓愈는 〈原道〉와 〈論佛骨表〉를 지어 排佛을 주장하였다. 〈原道〉에서는 佛敎가 ‘夷狄之法’으로 敎化和 治道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불교의 폐단을 지적했고, 儒家의 道으로써 불교를 반대하였다. 그의 排佛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當時의 불교환경과 관련이 있다. 南北朝 이후로 寺院經濟가 발전하면서, 佛敎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名利를 추구하고 사치하는 등 점차 부패하게 되어 그 종교적

元은 佛敎뿐만 아니라 諸家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이었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요건으로 인해 불교를 좋아했고¹⁹⁴⁾ 불교 信者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는 점, 특히 貶謫이래로 거처한 환경이나 교류한 인물 중 유명한 佛僧이 많은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⁹⁵⁾ 그러나 柳宗元은 기본적으로 儒家思想을 바탕

기능을 상실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唐朝의 佛敎와 道敎 숭상으로 승려계급에게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이 부여됐고, 이로 인해 평민들은 오히려 부담을 안게되자, 병역과 賦稅를 피해 寺院의 소작인이 되거나 僧侶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급기야 이러한 양상은 世族 지주와 僧侶 지주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安史의 亂 이후 승려들은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論佛骨表>에서는 憲宗이 法問寺의 탑 속에 있는 석가모니의 佛骨(손가락 뼈)을 모셔다가, 이 佛骨을 궁내에 3일 동안 안치하고 예배하면서 관리들도 이 예불의식에 참여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격분한 韓愈는 <論佛骨表>를 지어 排佛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불교를 신봉한다고 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고 경제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 석가모니는 오랑캐이므로 中國의 고유 사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佛敎에 대응하여 道統을 내세워 儒家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하면서 <論佛骨表>를 지었다. 그러나 韓愈는 <論佛骨表>로 인해 憲宗의 노여움을 사 결국 潮州로 좌천되는 곤경을 치른다. 潮州로 좌천된 후 韓愈는 僧侶 大顛과의交友를 통해 불교에 대한 입장이 매우 호전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좌천되는 곤경에 처했으면서도 僧侶들과 교류하거나 山寺에 놀러 간 일을 시로 읊기도 하였는데, <山石>·<送惠師>·<送靈師>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黃理喜, <韓愈 ‘排佛興儒’의 原因에 관한 研究>,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第14輯, 1998, pp. 101~106.

194) 《柳宗元集》，卷25 <送巽上人赴中丞叔父召序>：“吾自幼好佛，求其道，積三十年。世之言者罕能通其說。於零陵，吾獨有得焉：제가 어려서부터 佛敎를 좋아하여 그 道를 求한 것이 30년이 되었습니다. 世間에서는 佛敎를 말하면서도 그 說에 통달하는 이는 드뭅니다. 저는 零陵에서 특별히 그 학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西軒記>：“余知釋氏之道且久，固所願也：나는 佛敎의 道를 알고 있는지가 제법 오래되었고 원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柳宗元이 어려서부터 好佛하였으나 永州에 貶謫되기 전까지 그의 불교에 대한 뚜렷한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실제 佛學에 대한 깊은 연구와 깨달음은 永州에 貶謫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있다. 그가 항상 道의 窮究를 위하여 삼은 서적은 儒家經典이었으며 또 늘 堯舜을 내세우고 孔子를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추구한 ‘大中’은 바로 《中庸》과 《易》에 淵源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¹⁹⁶⁾ 柳宗元에 대한 蘇軾의 評價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柳子厚는 남쪽으로 좌천되어 비로소 佛法을 연구하여 曹溪(慧能) 대사와 南岳(懷讓) 선사의 여러 碑文을 썼는데古今을 통하여 이토록 절묘한 것이 없다.(…)儒學과 佛學에 모두 통달하고 道學이 순수하게 갖추어져 唐代부터 현재까지 祖師에 대해 서술하고 칭송한 것은 많았으며 柳子厚만큼 ‘간단하면서도 정수를 받게 통하게(通亮簡正)’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¹⁹⁷⁾

195) 柳宗元은 일찍부터 當時 사회의 三教統合 정책의 영향을 받아 文暢·靈澈 등 文壇을 출입하는 승려들과 사귀었고, 貶謫된 뒤에는 龍興寺, 法華寺, 大明寺 등에 머물렀으며 重巽 스님을 비롯한 많은 佛僧과 交遊하게 된다. 또 佛敎에 관한 많은 문장을 서술하기도 하였는데, 司馬라는 閒職은 그 직무가 有名無實하였으므로 그는 佛理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여러 禪師들과 交遊하여 한때는 그의 손으로 남쪽 大德 큰스님들의 碑銘 가운데 많은 문장을 썼는데 당시 南宗禪을 이끌던 六祖 慧能을 위해 쓴 〈曹溪第六祖賜諡大鑒禪師碑〉가 대표적이다. 어머니 盧씨, 부인 楊氏의 外祖父 李兼, 丈人인 楊憑, 父親의 親友인 權德輿와 梁肅 등도 佛敎를 믿는 이들이었는데, 그중 柳宗元의 처 楊氏의 조부 李兼은 江西 觀察使였며 洪洲禪 신봉자였다는 점, 柳宗元이 13세 때 부친 柳鎮을 따라 馬祖禪의 본거지인 洪州로 이사했다는 점, 그의 부친이 禪宗 八祖인 馬祖 道一(709~788)의 속가제자인 權德輿와 친구이면서 馬祖禪을 공부한 점등을 미루어보면 柳宗元이 洪州宗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洪州宗은 타고난 마음이 곧 부처(自心卽佛)임을 주장한다. 즉 경전을 해석하고 염불을 외우는 일보다 본연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의 가르침이다.

196)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上揭論文, p. 44.

197) 蘇軾《蘇東坡全集·上》後集, 卷19 〈書柳子厚大鑒禪師碑後〉: “柳子厚南遷, 始究佛法, 作曹溪南嶽諸碑, 絕妙古今.(…)儒釋兼通, 道學純備, 以謂自唐至今, 頌述祖師者多矣, 未有通亮簡正如子厚者.”

柳宗元은 불교를 맹신하지는 않고 儒家 倫理觀을 파괴하는 계율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점은 지적하였다. 柳宗元은 ‘儒佛統合’을 내세워 諸家의 장점만을 취하였으며, 一家만을 고집하기보다는 社會敎化를 중심으로 하여, 諸家 사상을 두루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儒家思想의 근본을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柳宗元의 ‘儒佛統合’의 목적은 바로 儒家의 ‘大中之道’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⁸⁾ 이를 위해 柳宗元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 儒學의 思想復興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佛理를 연구하였던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다. 唐代에는 僧侶의 碑誌를 쓰는 것을 佛道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포교의 방법으로 여겨서, 當代 대문장가에게 高僧의 碑誌를 써달라고 청탁하였고,¹⁹⁹⁾ 柳宗元 역시 많은 碑文을 썼다. 唐代 불교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지식인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²⁰⁰⁾ 柳宗元 역시 『記』文이나 碑文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을 통해서 그의 佛理에 대한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그가 佛理의 奧妙함에 깊이 빠져들게 된 직접적 원인은, 정치적 좌절로 타격을 입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서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번뇌를 끊어버리고 脫俗의 경지에 이르고자하는 마음은 貶謫地인 永州에서 강하게 작용하였다. 永州로 貶謫된 柳宗元은 외면적으로는 여전히 ‘大中之道’를 견지한 채 현실 비판성이 강한 著述들을 창작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한 충격과 좌절을 佛敎에 의지하여 脫俗하고자 하였다. 《柳宗元集》의 분류에 따르면 卷28의 記祠廟에 〈零陵郡復乳穴記〉·〈道州毀鼻亭神

198)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上揭論文, pp. 48~53.

199) 郭紹林, 《唐代士大夫與佛敎》, 河南大學出版社, 1987. p. 93.

200) 洪承直,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上揭論文, pp. 269~271.

記〉・〈永州龍興寺息壤記〉・〈永州龍興寺東丘記〉・〈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永州龍興寺西軒記〉・〈柳州復大雲寺記〉・〈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永州鐵爐步志〉 9편을 佛敎와 관련된 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佛敎寺院과 관련된 제목을 쓰고는 있지만, 柳宗元의 佛敎思想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永州龍興寺西軒記〉・〈柳州復大雲寺記〉 4편이다. 이 작품은 柳宗元이 佛理에 대한 해석이나 佛僧에 대한 讚辭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柳宗元의 佛敎思想 이해의 좋은 자료가 된다.²⁰¹⁾ 특히 〈柳州復大雲寺記〉에서는 佛敎思想을 근거로 한 迷信에 대한 강한 반박의 내용을 볼 수 있다. 明敎를 바탕으로 하여 迷信을 물리친 이를 칭찬하고 있는 〈道州毀鼻亭神記〉와 柳宗元 자신의 迷信을 부정하는 굳건한 意志와 합리적인 思考가 돋보이는 〈永州龍興寺息壤記〉 2편에서는 특히 그의 迷信에 대한 강한 부정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零陵郡復乳穴記〉・〈永州鐵爐步志〉는 議論 성분이 강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각 편마다 내용의 차이가 보여 이들을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佛敎와 관련된 『記』文에서는 전체적으로 첫째, 敍述하는 건축물이 생기게 된 유래를 밝히고 둘째, 건축물을 세우게 된 원인이나 동기를 서술하며 셋째, 건축물 이름의 유래나 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밝히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면보다는 건축물을 세운 사람 또는 건축물과 관련한 전설을 더 많이 서술하면서 풍부한 議論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 佛敎에 대한 柳宗元의 이해를 엿볼 수 있는 문체는 『記』文 보다는 贈序와 碑誌이다. 贈序는 당시 활동 중인 佛者와의 交遊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碑誌는 불교계의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名僧과 高僧을 서술한 것이다. 本章에서는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두어 『記』文 위주로 내용을 분석하는데, 柳宗元 佛理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贈序와 碑誌를 참고로 더한다.

3-1. 佛敎思想을 통한 脫俗美

唐代의 불교는 儒敎思想이 약해지고, 老莊思想과 佛敎思想의 영향을 받아 俗世를 떠나 도피하는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厭世主義가 성행하였다.²⁰²⁾ 佛敎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譯經 사업을 활발하였고,²⁰³⁾ 道敎는 高祖 李淵이 老子를 先祖로 인정하면서 성행하였다.²⁰⁴⁾ 佛敎와 道敎로부터 파생되어 나간 迷信도 유행하여 역대 君主들이 福을 빌고 丹藥을 복용하는 일에 열중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불교의 성행 속에서 특히 禪宗은 사대부 지식문인들의 환영을 받아 급속히 발전하였다.²⁰⁵⁾ 慧能과 神秀로 대표되는 南宗禪과 北宗禪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누어져 있었다. 柳宗元은 六祖 慧能을²⁰⁶⁾ 讚頌하는

202) 유광중, <宋代 山水遊記 譯註 및 考察>, 詳明大碩士學位論文, 1998, p. 8. 아서라이터, 梁必承 옮김, 《中國史와 佛敎》, 신서원, 1997, pp. 70~89.

203) 唐代 玄奘(600~664)이 唐 太宗의 勅書를 받들어 譯經 사업을 벌인 국가적 사업이다. 大慈恩寺에서 완비된 규모하에 천하의 名僧과 縣官이 참여하여 그 성과 또한 이채로운 바가 많았다. 譯經 사업을 통해 佛敎를 부흥시켰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 敎義를 선양한 업적을 남겼다. 野上俊靜·小川貫式·牧田諦亮·野村耀昌·佐藤達玄, 權奇棕 譯, 《中國佛敎史》, 東國大學校佛典刊行委員會, 1994, p. 144.

204) 唐 高祖 李淵은 老子와 同姓이라 하여 李氏 家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老子를 先祖로 인정하고 ‘太上玄元皇帝’라고 부를 정도로 호평하였다. 戶川芳郎·蜂屋邦夫·溝口雄三 共著, 조성을·이동철 譯, 《儒敎史》 이론과 실천, 1990, pp. 209~228.

205) 王叔文이 주도한 정치개혁 운동인 永貞革新(805)은 짧은 기간에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中唐의 일대 정치혁명이었다. 永貞革新에 가담했던 柳宗元和 劉禹錫 등과 같은 신진사대부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當時에 慧能→馬祖로 이어지는 南宗禪 문하의 문인들도 정치개혁 운동에 동조했다. 永貞革新의 사상적 지표는 인간 평등과 신분적 계급 타파였다. 이러한 주장은 엄격한 신분질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엄청난 변혁 사상이며, 인간의 평등과 인상성의 고양을 부르짖는 진보적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206) 禪宗의 실질적 창시자로 보고 있는 六祖 慧能(638~713)이 강조한 “佛性엔 남북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佛性卽無南北”라는 禪語는 만민 평등사상이 담겨 있어 이는 후기 봉건사회의 민권사상과 당시 신지식인이었던 신진 사대부들의 ‘평등’ 갈망이

〈曹溪大鑑禪師碑〉를 지었는데, 여기서 禪宗의 도리를 性善說로 보고 “그는(慧能)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性善에서 시작하여 性善으로 끝낸다.”²⁰⁷⁾고 말하였다. 이것은 慧能의 가르침이 性善說에 입각한 것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柳宗元이 慧能의 禪佛敎를 긍정한 두 가지 핵심은, 첫째는 생명의 본질은 寂靜이라고 설파한 聖人的인 가르침, 둘째는 外在的 절대성을 부정한 自性 歸依的인 一元論的 우주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儒·佛의 범위를 넘어선 그의 독창적인 유물론인 元氣一元論은 禪思想의 적극적인 心性論과 儒家의 性善說을 결합하여 한 차원 높은 특수한 사상으로 그 방면에선 그를 능가하는 唐代의 인물이 없었다. 그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禪家의 心性本淨說과 儒家의 性善說을 통일시키려 한 점이다.²⁰⁸⁾ 禪宗과 天台宗은 원시불교에서 佛性과 人性을 대립되는 것으로 여긴 것과는 다르게, 보통사람도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하여 해탈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평등사상을 강조한 것이다. 柳宗元은 이를 儒家의 性善說과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 통합시키고 있다.²⁰⁹⁾ 柳宗元은 또 佛家에서 名利를 멀리하고 山水를 즐기는 人生觀을 발견하고 이를 칭찬하였다. 〈送僧浩初序〉에서 그는 “무릇 佛道를 求하는 이들은 官職을 좋아하지 않으며, 능력을 다투지 않으며, 山水를 즐기며 편안하고 한가함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²¹⁰⁾고 말하였다. 이는 佛家의 名利를 가벼이 여기며

낳은 시대적 산물로 볼 수 있다. 郭朋, 《壇經校釋》, 中華書局, 1997, p. 8.

207) 《柳宗元集》, 卷6 〈曹溪大鑑禪師碑〉: “其敎人, 始以性善, 終以性善.”

208) 시대적 열망을 간파한 慧能의 頓悟 南宗禪은 《六祖壇經》을 통해 전통적인 儒家思想과 老莊思想 그리고 玄學思想 등을 흡수하면서 민중들의 소망에 부응했다. 任繼愈, 《漢唐佛敎論叢》, 北京 人民出版社, 1998, pp. 228~234.

209) 吳洙亨, 〈柳宗元散文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pp. 50~53.

210) 《柳宗元集》, 卷25 〈送僧浩初序〉: “且凡爲其道者, 不愛官, 不爭能, 樂山水而嗜閑安者爲多.”

다툼을 피하는 인생관으로 불교의 무소유 사상을 말한다. 그가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은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폄적 당한 처지였다. 이에 폄적지에서의 悲憤·挫折·孤獨이라는 脫俗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柳宗元은 불교를 맹신하지 않고 잘못된 점이 보이면 지적하는 이성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오늘날에 禪을 말하는 이들은 제멋대로 잘못됨이 있어도 서로 본보기로 삼아 사용함에 이르게 되어 헛되이 空語를 취하나 그것이 의젓하고 편리하여 진실이 전도되니, 이로써 자신을 해롭게 하고 또 남도 해롭게 하였다. 또한 그 본체는 알면서 그 사용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가 있는데, 그 본체와 쓰임은 잠시도 분리될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²¹¹⁾

이는 禪宗에 비판과 분석을 서슴지 않는 理性主義的 입장이다. 柳宗元의 선종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그의 진보적 정치 성향 및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送僧浩初序>는 韓愈가 柳宗元이 佛敎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일에 대한 柳宗元의 답변인데, 여기서도 佛敎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退之가 불교를 탓하는 것은 그 行跡입니다.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으며 夫婦나 父子 관계를 버리는가 하면, 農事나 蠶桑(누에치고 뽕먹이는 일)을 하지 않고 남들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저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退之는 그 外的인 것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그 내적인 것은 빠뜨렸으니, 이는 돌을 보면서 그 안에 玉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佛家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안의 玉 때문입니다.²¹²⁾

211) 《柳宗元集》，卷25 〈送琛上人南遊序〉：“今之言禪者，有流湯舛誤，迭相師用，妄取空語，而脫略方便，顛倒眞實，以陷乎己，而又陷乎人。又有能言體而不及用者，不知二者之不可斯須離也。”

이 글에서 柳宗元은 佛徒의 行跡 가운데 社會 秩序나 經濟的인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단순히 外的인 것에 불과하고, 내적으로는 《易》·《論語》라는 佛家와 합치되는 玉을 지니고 있다면서 오히려 긍정하고 있다.

柳宗元이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하였고, 믿어 왔지만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貶謫地인 永州·柳州가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僧侶들과 왕래를 하면서 南宗禪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²¹³⁾ 또 그가 貶謫된 후에 거처하였던 龍興寺나 法華寺 생활 때문이기도 하다. 龍興寺의 重巽 스님과 法華寺의 覺照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重巽 스님이 남쪽으로 떠나는 것을 축원하며 쓴 〈送巽上人赴中丞叔父召序〉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佛敎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제가 어려서부터 佛敎를 좋아하여 그 道를 求한 것이 30년이 되었습니다. 世間에서는 불교를 말하면서도 그 說에 통달하는 이는 드뭅니다. 저는 零陵에서 특별히 그 학설을 알게 되었습니다.(…)지금 이 분은(重巽 스님) 그 서적을 窮究히 하여 그 말씀을 얻으시고 그 의미를 論하시는데, 확대시켜 수만마디 말씀을 하여도 번잡하지 않으며 총괄하여 한마디로 표현하여도 빠뜨림이 없으셨습니다.²¹⁴⁾

이 글에서 柳宗元의 佛理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어릴 때부

212) 《柳宗元集》，卷25 〈送僧浩初序〉：“退之所罪者其跡也。曰：髡而緇，無夫婦父子，不爲耕農蠶桑而活乎人。若是，雖吾亦不樂也。退之忿其外而遺其中，是知石而不知韞玉也。吾之所以嗜浮圖之言以此。”

213) 葛兆光, 鄭相弘·任炳權 옮김, 《禪宗과 中國文化》, 東文選, 1988, p. 54.

214) 《柳宗元集》，卷25 〈送巽上人赴中丞叔父召序〉：“吾自幼好佛，求其道，積三十年。世之言者罕能通其說。於零陵，吾獨有得焉。(…)今是上人窮其書，得其言，論其意，推而大之，逾萬言而不煩；總而括之，立片辭而不遺。”

터 佛敎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佛敎 학설에 대한 이해는 永州로 貶謫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²¹⁵⁾ 오랫동안 불법을 추구하다가 重巽 스님을 만나 진정한 불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스님의 공헌을 칭송하였다. 重巽 스님은 儒家에 근거하면서도 佛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점은 柳宗元과 통하는 점이었고, 重巽 스님과 같은 분이 널리 포교하기를 염원하였을 것이다. 柳宗元의 佛敎思想에 대한 이해는 많은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를 살펴보겠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서쪽으로 향하여 십만억 佛國土를 지나면 極樂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곳의 부처님을 無量壽佛이라 부른다. 極樂世界에는 三惡道와 八難이 없고, 많은 보배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곳 사람들은 煩惱와 아홉 가지 厄難이 없고 聖賢들을 벗으로 삼는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大願을 세워 그 땅에 나기를 원하는 자는 진실하고 간절히 염불하면 즉시 그 極樂世界에 왕생할 수 있고,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三界 밖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佛道에서 물러나는 바 없다는 無退轉으로, 이러한 말에는 속이는 바가 없다.” 東晉 때에 廬山의 惠遠法師가 《念佛三昧詠》을 제창하여 노래하며 크게 권하여서 포교하셨다.²¹⁶⁾ 그 뒤에 天台 智顛大師께서는 《釋淨土十疑論》을 저술해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셨다.²¹⁷⁾ 理致가 주도면밀하

215) 中國佛敎史에서는 그를 천태종 법계로 분류하고 있다. 柳宗元을 천태종으로 종파를 나누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은 柳宗元의 佛師인 重巽 스님은 天台宗의 九組인 甚然의 두번째 弟子이다. 따라서 天台宗은 자연히 柳宗元이 정통으로 여기는 宗派로서 자리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柳宗元은 천태종 경전인 《安禪通明論》을 찬술하기도 했다.

216) 慧遠(334~416)은 廬山 東林寺에 계시면서 계율을 엄히 따랐고, 《念佛三昧詠》을 제창하여 當時 지식인들이 크게 공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각성하게 하였다. 뒤에 중국의 淨土敎에서는 慧遠을 淨土宗의 시조로 삼았다. 慧遠을 당시 지식인들이 따랐던 이유는 그가 般若學 뿐만 아니라 儒學과 老莊思想에도 정통했기 때문이다.

고 미묘하여 미혹된 자들까지 모두 믿고 의지하였으며, 대개 불가사의한 행적을 많이 남겼다.(…)重巽 스님은 最上乘의 도리를 깨달아 궁극의 진리를 이해하신 분이다. 體空(공의 체득)과 折色(형상을 끊다)이 없는 眞源(空極의 근원)에 있으며, 본래 없는 이름을 빌려 假有(현상으로 존재하는 것)를 통하여 實相(진리의 참모습)에 들어가셨다. 또한 인식의 境界와 智慧가 하나를 이루고, 事(상대·차별 현상)와 理(절대 평등의 진리)가 하나 된 분이셨다. 그러하니 비록 왕생의 인연이지만 또한 相을 버려 집착이 없는 상태로, 이 堂을 수리하여 훗날 불교를 배우는 사람을 위해 개방할 것을 誓願하셨다.²¹⁸⁾

전반부에 釋迦牟尼가 인도에서 태어나 佛法을 說한다는 내용에서, 極樂이라는 최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三惡道와 八難이 없어 고통도 없는 천상 세계에 나기를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도 역시 貶謫地에서의 悲憤·挫折·孤獨 등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極樂世界에 나기를 발원 하였을 것이다. 진실하고 간절히 염불하면 갈 수 있다는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는 柳宗元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한 염원이 담긴 脫俗美라 할 수 있다. 이어서 慧遠의 《念佛三昧詠》과 天台 智顛의 《釋淨土十疑論》을 높이 평가하고 권하고 있다. 禪宗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自性の 깨달음이라면 念佛은

217) 天台 智顛(538~597)는 當時 南3北7이라 불리던 諸家の 敎相判釋을 종합한 결과, 독자적인 5時8敎判을 창시하여 《法華經》을 모든 經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法華經》의 실천 방법을 說하다가 만년에는 華嚴思想을 가미하여 별개의 것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218) 《柳宗元集》, 卷28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 “佛言曰; “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曰極樂, 佛號無量壽如來. 其國無有三惡八難, 衆寶以爲飾; 其人無有十纏九惱, 羣聖以爲友. 有能誠心大願, 歸心是土者, 苟念力具足, 則往生彼國, 然後出三界之外. 其於佛道無退轉者, 其言無所欺也. 晉時廬山遠法師, 作念佛三昧詠, 大勸于時. 其後天台顛大師. 著釋淨土十疑論, 弘宣其敎. 周密微妙, 迷者咸賴焉, 蓋其留異跡而去者甚衆.(…)上人者, 修最上乘, 解第一義. 無體空折色之跡, 而造乎眞源, 通假有借無之名, 而入於實相. 境與智合, 事與理并. 故雖往生之因, 亦相用不捨. 誓葺茲宇, 以開後學.”

自力이 아닌 他力信仰으로서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수행을 통해 脫俗에 이르는 것, 즉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當時 禪宗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는 柳宗元은 念佛禪(淨土宗)에서 깨달음을 구하려 했을 것이다.²¹⁹⁾ 당시 불교의 수행 방법에는 參禪과 念佛이라는 두 가지 수행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²²⁰⁾ 후반부에 龍興寺의 상황을 기록한 뒤에 重巽 스님을 “스님은 最上乘의 도리를 깨달아 궁극의 진리를 이해하신 분이다(上人者, 修最上乘, 解第一義).”라고 하여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최상의 가르침을 證得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다. 境界를 벗어나 智慧로, 상대와 분별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절대 평등의 진리와 하나 된 覺者였다. 그리하니 비록 왕생의 인연으로 人間世에 살고 있지만 相을 버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 淨土院을 改修한 경위를 서술하였다. 오로지 佛家の 범위 안에서 佛家語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柳宗元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앙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잘 보여 준다. 불교사원에서 새벽에 종이 울리고 저녁에 북소리가 들릴 때 승려들은 합장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법문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시골 노인, 아낙네, 그리고 지식계 인사들까지도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읊조리게 되었던 것이 當時 佛教思想의 흐름이었다.²²¹⁾

柳宗元의 『記』文에서는 아름다운 山水風景을 묘사하는데 있어 항상 그 숨겨진 美景을 드러내기 위해 ‘거칠고’, ‘우거지고’, ‘뺨뺨하고’, ‘제거

219) 柳宗元의 불교사상은 天台宗의 영향이 깊기는 하지만 柳宗元은 기본적으로 한 宗派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律宗이나 淨土宗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입장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律宗에 대하여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儒家의 禮와 같은 차원에 놓고 있다. 柳宗元의 禪宗에 대한 비판이 보여지곤 있지만 柳宗元의 貶謫地 환경과 當時의 禪宗의 유행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다만 모든 사상적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유익하게 사용되는(有益世用)”에 두었다.”

220) 王治心, 전명용 옮김, 《중국종교사상사》, 이론과 실천, 1990, p. 131.

221) 《중국종교사상사》, 上揭書, p. 131.

하고’, ‘베어 내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에서는 覺照 스님으로 인해 버려진 땅의 잡초가 제거하고 정리되는 모습과 함께 정자를 세우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²²²⁾

결채의 바깥에는 큰 대나무가 수만 그루 있었고, 산의 형세가 절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거칠거나 가늘며 크고 작은 뿔나무들이 어지러이 뒤섞여 덮여 있는데, 나는 그것을 베어 내어 반드시 길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覺照 스님이 나에게 말했다. “밑에 연못에는 연꽃이 있는데, 湘水까지 흘러가고, 많은 산들이 모여 있으니 우거진 숲을 제거하고 나면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하인에게 칼과 도끼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을 베어 내게 했다. 어지럽게 뻗뻗이 자란 초목을 제거하니 온갖 것이 드러났는데, 탁 트이고 아득한 것이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대지는 더욱 더 넓어졌으며, 산골짜기나 언덕은 높아지고 강, 호수, 연못은 더욱 커지니, 모두가 본래의 모양보다 거둬서 넓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²²³⁾

法華寺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첩첩 산중의 기묘한 景物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초목이 거칠게 자라 있고 대나무는 어지러이 뒤섞여 있어 絶妙한 勝景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柳宗元은 覺照 스님의 뜻을 새겨 베어 내고 제거하니 길이 드러나서 탁 트이게 된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이치를 설명하는 상징일 것이다. 산의 형세가 絶景을 이루고 있지만 거칠거나 가늘며 크고 작은 뿔나

222) 柳宗元은 法華寺에서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외에도 〈講法華寺西亭〉·〈法華寺西亭夜吟〉·〈遊朝陽巖遂登西亭二十韻〉 등의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들에서도 柳宗元의 脫俗하고자 하는 염원을 볼 수 있다.

223) 《柳宗元集》，卷28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廡之外有大竹數萬，又其外山形下絕。然而薪蒸篠蕩，蒙雜擁蔽，吾意伐而除之，必將有見焉。照謂余曰：“是其下有陂池芙蕖，申以湘水之流，衆山之會，果去是，其見遠矣。”遂命僕人持刀斧，羣而翦焉。叢莽下頽，萬類皆出，曠焉茫焉，天爲之益高，地爲之加闊，丘陵山谷之峻，江湖池澤之大，咸若有而增廣之者”

무들이 어지러이 뒤섞여 덮여 있어 絶景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佛家에서 말하는 ‘自性見卽佛’의 상징이다. ‘自性卽見佛’이라 함은 자기의 性품을 본다면 바로 부처라 함이다. 일반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데, 불교교리의 심오함을 이해하는 柳宗元은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自性を 보기 위한 수행을 배어 내고 제거한다는 노력을 통해 상징하는 것이다. 반드시 길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은 覺照 스님의 깨달음을 통한 확신이었을 것이다. 첩첩 산중이고, 거칠고,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배어 내고, 제거한다는 표현들은 柳宗元이 알고 있는 佛理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순간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보다 깊은 俗脫美 경지로 볼 수 있다. 法華寺는 永州에서 비교적 높고 지세가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²²⁴⁾ 숨겨진 絶景을 얻기 위해 배어 내고 제거하는 수고로움은 勝景을 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뺄뺄하게 우거져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묘사는 柳宗元의 번뇌를 상징하는 비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제거하고 다듬는 과정의 표현은 『記』文에서 자주 등장하는 묘사 방법이다. 제거하고 나니 밑에 있는 연못의 연꽃이 湘水까지 흘러 들어가고, 많은 산들이 모여 있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우울한 심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脫俗하고 싶은 염원일 것이다. 나아가 탁 트이고 아득하게

224) 《柳宗元集》，卷43 〈法華寺石門精室三十韻〉：“稍疑地脈斷，悠若天梯往： 조금은 의심스럽게 지맥이 끊긴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고, 아득한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같았다.” 《柳宗元集》，卷28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法華寺居永州，地最高.(…)而薪蒸篠蕩，蒙雜擁蔽： 法華寺는 永州에 있는데 지대가 가장 높았다.(…) 거칠거나 가늘며 크고 작은 대나무들이 어지러이 뒤섞여 덮여있다.” 이 구절 역시 法華寺를 묘사한 것이다. 《柳宗元集》 卷43 〈構法華寺西亭〉：“竄身楚南極，山水窮險艱。步登最高寺，蕭散任疏頑： 楚나라 남쪽에 貶謫되어 있으니, 山水는 매우 험난하다. 걸어서 가장 높은 절에 오르니 쓸쓸히 버려져 있다.”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대지는 더욱 넓어지는 超越의 경지가 나타난다. 柳宗元의 脫俗에 대한 염원은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에서 覺照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이른바 옛날의 上人(스님)은 宴坐(좌복)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空과 色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사물의 처음과 끝을 자유자재로 노닐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밝음(照)은 고요할수록 깨달음(覺)에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즉 지난날에 막혔던 것을 과연 막힌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에 그것이 열렸다고 하여 과연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른바 覺하거나 照하다는 것이 이러한 도리에서 말미암지 않았음을 내 어찌 알았겠는가? 어찌 나의 식구들은(佛者) 다급히 통함과 막힘, 있음과 없음(通塞有無)으로써 스스로 편협하게 하려는가?²²⁵⁾

이 글에서 覺照 스님은 옛날의 스님들이 坐禪을 통해 空色의 실체를 깨닫게 된 得悟의 경지를 서술하면서, 밝고 고요할수록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覺照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 잠시나마 悲憤·挫折·孤獨이라는 번뇌에서 벗어나 있는 작자의 脫俗美를 느낄 수 있다. 〈永州龍興寺西軒記〉에서 창문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을 서술하는 내용을 보자.

내가 사는 집은 지나치게 은폐되어 있는데, 그 문은 북향이어서 기거하기에 매우 어두웠다. 龍興寺는 永州 지방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했다. 결방의 서쪽은 바로 長江의 支流에 해당하고 長江 너머로는 산골짜기와 수풀들이 매우 무성했다. 그래서 서쪽 벽을 뚫고 문을

225) 《柳宗元集》，卷28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余謂昔之上人者，不起宴坐，足以觀於空色之實，而游乎物之終始。其照也逾寂，其覺也逾有。然則嚮之礙之者爲果礙耶？今之關之者爲果關耶？彼所謂覺而照者，吾詎知其不由是道也？豈若吾族之挈挈於通塞有無之方以自狹耶？”

내고, 문의 바깥으로 창문을 내었는데, 이 창문은 무성한 나무 가지 끝에 가까이 닿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자리를 옮기지 않고, 탁자를 움직이지 않아도 絶景을 얻을 수 있다. 무릇 이 방은 이전에 거처했던 방이고 자리와 탁자도 여전히 예전에 있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두웠으나 오늘은 밝아져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니, 어찌 옛것과 다른 物件이라 하겠는가? 불교의 道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을 바꾸어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곧 미혹함이 올바른 깨달음으로 바뀌고, 無明을 버리고 광명을 얻게 된 것이다. 무릇 인간의 본성을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 큰 어리석음의 벽을 뚫어 주고 똑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 주고 넓게 만물에 상응하는 창문을 만들어 준다면 나는 장차 그와 함께 하는 무리가 되려고 하였다. 마침내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한다. 하나는 창문 밖의 뜻의 의미를 기록했고, 하나는 重巽 스님에게 드렸다.²²⁶⁾

서쪽 결방이 북향이라 햇볕이 비추지 않아 매우 음침하였고 산골짜기의 수풀들이 무성하게 가리고 있어 더욱 어둡고 답답했던 곳에窓을 내고 나니 絶景을 얻게 되었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밝게 빛나고 있는 형상의 비유를 통해 불교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다. 은폐되어 있는 곳의 미혹함을 창문을 내는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다. 본래 한 물건인데 창문 하나로 인해 사물이 모두 아름답게 달라 보인다는 것은 바로 미혹함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게 됨을 비유한 것이다. 미혹함을 버리니 正覺을 이룬다는 것 또한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窓이 없

226)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西軒記〉：“然余所庇之屋甚隱蔽，其戶北向，居昧昧也。寺之居，於是州爲高。西序之西，屬當大江之流，江之外，山谷林麓甚衆。於是鑿西墉以爲戶，戶之外爲軒，以臨羣木之杪，無不矚焉。不徙席，不運几，而得大觀。夫室，嚮者之室也；席與几，嚮者之處也。嚮也昧而今也顯，豈異物耶？因悟夫佛之道，可以轉惑見爲眞智，卽羣迷爲正覺，捨大闇爲光明。夫性豈異物耶？孰能爲余鑿大昏之墉，闢靈照之戶，廣應物之軒者，吾將與爲徒。遂書爲二：其一志諸戶外，其一以貽巽上人焉。”

는 상태라서 그 밝음을 깨닫지 못하며 自性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밝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미혹함을 깨치는 법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그를 따르겠다면서 그 스승이 바로 重巽 스님임을 나타내고 있다. 창문을 내게 되어 絶景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迷惑이 智慧와 깨달음 얻을 소 있고, 어두움은 밝음을 얻을 수 있다는 佛家の 심오한 道の 상징이다. 즉 창문이라는 현상 경계를 비유하여 佛理의 심오함을 설명하고 있다. 柳宗元은 자신의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개인적인 구원만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 점을 통해서도 그가 사회적 功利美의 효용성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柳州復大雲寺記〉를 보자.

董仲舒의 예의도덕은 너무 완고하여 그들은 따르지 않으려 하고, 형벌로 다스리려하면 도망쳤다. 오직 佛敎의 정신이나 가르침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어 그로써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됐다.²²⁷⁾

이는 물론 佛家の 전반적인 敎化作用을 긍정하는 말이지만 예의도덕과 형벌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佛家の 계율만이 그들을 敎化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즉 禮와 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교를 통한 敎化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사실의 기록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듯이 그는 儒家의 禮와 佛家の 戒律을 仁義와 禪定, 그리고 智慧를 구하는 과정 중의 道德規範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삼아 통합을 구하고자 하였다. 柳宗元의 이러한 주장은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면서도 儒家 부흥의 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227) 《柳宗元集》，卷28 〈柳州復大雲寺記〉：“董之禮則頑，束之刑則逃。唯浮圖事神而語大，可因而入焉，有以佐敎化。”

柳宗元이 韓愈와 함께 古文運動을 주장하면서도 韓愈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佛家에 대한 수용의 태도였던 것이다. 그는 〈柳州復大雲寺記〉에서 元和10年(815)에 刺史가 되어 온 柳州에서 大雲寺를 重建하고 잘못된 迷信風俗을 바로 잡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²²⁸⁾

越나라 사람들은 길흉의 징조를 믿어 쉽게 살인을 하고, 오만하게 변하여 仁義를 쉽게 저버린다. 병이 들어 근심하다가 巫師를 불러모아서 雞卜占을 치게 했다. 처음에는 작은 희생물로(雞) 시작해 안되면 중간 정도의(豕) 희생물을 올리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큰 희생물을(牛) 올린다. 그것 역시 안되었을 때는, 결국 병든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과 이별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말했다. “신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을 덮어 가리고 죽음을 기다렸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구는 감소했고 농경지는 황폐해 졌으며 가축우리에는 더 이상의 번식이 없었다.(…)柳江의 북쪽으로 柳州城을 둘러싼 600백의 가구와 남쪽으로는 300백의 가구가 있다. 갑자기 柳江 남쪽에 큰불이 나서 大雲寺는 불에 타서 백년이 지나도록 수리하지 못했다.(…)元和十年(815)에 刺史 柳宗元은 부임해 온지 오래지 않아, 이곳 사람들이 귀신을 믿어 오랜 세월 동안 번성함을 발견하고서 이곳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다.²²⁹⁾

柳州는 永州보다 더욱 偏僻된 지방이었으며, 風土病이 심하고 또한 풍습이 長安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문화수준도 낮고 미신이 성행하여

228) 唐代 寺院에서는 주민을 위한 치수사업, 교량의 가설, 義井, 義船, 宿舎의 신설과 사회의 고독자, 빈궁자, 질병자 등의 구제를 위한 다방면의 사회사업에 힘썼다. 이러한 사회사업은 柳宗元이 佛陀의 慈悲 정신으로 正法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229) 《柳宗元集》，卷28 〈柳州復大雲寺記〉：“越人信祥而易殺，傲化而偏仁。病且憂，則聚巫師，用雞卜。始則殺小牲：不可，則殺中牲：又不可，則殺大牲：而又不可，則訣親戚飭死事，曰“神不置我矣”，因不食。蔽面死。以故戶易耗，田易荒，而畜字不孳。(…)水北環治城六百室，水南三百室。俄而水南火，大雲寺焚而不復且百年。(…)元和十年，刺史柳宗元始至，遂神于隱遠而取其地。”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 살생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또한 생산수준이 낮아서 대부분 백성들은 가난하였으며 언어가 달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편벽된 곳이긴 하지만 刺史란 직책은 지방을 다스릴 만한 실권이 있는 자리였다. 柳宗元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私財까지 털어서 가난하여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켰으며, 미신을 금지시키고 大雲寺를 지어 불교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지도했다. 그는 또한 학교를 설립하여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성곽도로를 정비하여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자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造林 사업과 用水 사업도 실시하여 水源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행정을 대폭 개혁하여 그 시행과 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²³⁰⁾ 柳州 시기의 이러한 정치 이상의 실현은 柳宗元이 지금까지도 柳州 시민들에게 추앙 받는 충분한 이유다. 柳宗元은 민의를 따르고 백성의 衣食住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미신타파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는 주로 서정성이 짙은 산문보다는 詩歌創作에 주력했기 때문에 산문창작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때 그의 건강이 風土病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柳宗元은 柳州에서나마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으며,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柳州復大雲寺記> 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승려가 머무는 작은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을 기반으로 해서 사방으로 크게 지어 북쪽의 柳江까지 이어졌다.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사원의 大雲寺란 이름을 받아 대문을 세우고, 大雲寺라는

230) 林田愼之助, 潭繼山 譯, 《柳宗元》, 臺灣 萬盛出版社, 1983, pp. 192~194.

현판을 걸었다. 사원 내에는 동서로 걸채를 두고 한쪽은 佛堂을 모시고 한쪽은 佛法을 배우는 승려들을 묵게 했다. 모여 있는 승려들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木魚와 雲版을 치고 범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리게 했고 佛道의 엄격함으로 佛法을 전했다.²³¹⁾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柳宗元은 大雲寺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승려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佛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불법으로서 柳州의 백성들을 엄격하게 教化하는데 힘썼다. 이는 佛理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백성들을 教化하기 위한 것으로, 永州 시기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柳州 시기에 이르러 佛法을 布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건강보다도 柳州의 백성들의 올바른 教化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與民同樂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3-2. 迷信 부정을 통한 功利美

귀신을 믿는 풍속이 古代부터 전래되어 왔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현상들과 계속하여 상호 영향을 받아왔다. 중국인의 가슴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미신 관념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은 미신과 떨어질 수 없는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사상적 등의 밀접한 이유로 이를 답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神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험한 바다 위를 왕래할 때면 바다신을 향해 禮를 올려야만,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신이

231) 《柳宗元集》，卷28 〈柳州復大雲寺記〉：“其傍有小僧舍，闢之廣大，逶達橫術，北屬之江。告于大府，取寺之故名，作大門，以字揭之。立東西序，崇佛廟，爲學者居。會其徒而委之食，使擊磬鼓鍾，以嚴其道而傳其言。”

도와준다고 믿었다.²³²⁾ 先秦에서 兩漢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山水自然 의식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인간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신의 화신이나 군자의 寄託物 내지는 사상통치와 도덕교화의 상징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었다.²³³⁾ 따라서 山水自然의 신격화로 말미암아 《山海經》과 같은 神怪하고 황당한 저서가 나왔고, 封神儀禮와 같은 기록이 남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柳宗元이 〈非國語〉를 창작한 이유는 미신적 관점이 난무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 아래서 大道를 학습하고 그것의 宗旨를 밝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薰陶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²³⁴⁾ 柳宗元이 힘써 세상에 올바른 이의를 미치기 위해 教化를 펼친 것이 功利美이다. 그가 철학 저작에 힘쓴 동시에 문학 창작에도 힘쓴 것은 인생의 이상과 도덕적 품성을 교육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激發시키고 올바른 인식을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문학의 ‘교육적 작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²³⁵⁾ 柳宗元은 문예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효용의 효과를 얻기 위한 문예의 예술성도 강조하였다. 문예의 사회성과 예술성의 상호결합을 도모한 것은 柳宗元 文藝審美의 중요 요소이며 柳宗元의 예술성 추구에 대한 의욕은 문장표현의 요령을 기술한 창작론의 결정체이다.²³⁶⁾ 그는 창작활동에서 審美와 功利美의 결합으로 美와 善의 통일을 중시하여 문장에 실

232) 金蘭英, 〈歐陽修「記」文 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 1989, p. 53.

233) 倪其心·費振剛·胡雙寶·顧國瑞·王春茂 共著, 《中國古代遊記選》, 中國旅遊出版社, 1985, p. 2

234) 《柳宗元集》, 卷31 〈與呂道州溫論非國語書〉: “甚者好怪面妄言, 推天引神, 以爲靈奇, 恍惚若化, 而終不可遂. 故道不明於天下, 而學者之至少也.”

235) 林春映, 〈柳宗元 散文의 藝術의 特性 研究〉, 上揭論文, p. 27~28.

236) 上同

현함에 있어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산문은 文采와 이치가 뛰어나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하며, 사회적 작용과 審美的 효과가 잘 융합되었다. 바로 美와 善의 통일이라는 주장을 남달리 훌륭하게 실천한 것이다.²³⁷⁾ 貶謫地에서 지은 작품이 審美와 公利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柳宗元의 작품 속에서 그곳의 환경은 환경이라는 객관적 물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복잡한 감정의 외적인 표출의 형태로 그 의미를 갖는다. 自然風景의 모습을 순수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마음을 실어 처음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永州·柳州의 自然風景은 객체인 동시에 柳宗元의 주관적 감정과 체험의 부산물로서 그의 고통과 슬픔, 기쁨의 대변자이기도 했다.²³⁸⁾

柳宗元『記』文에서 明教를 바탕으로 하여 迷信을 물리친 이를 칭찬하고 있는 〈道州毀鼻亭神記〉, 柳宗元 자신의 迷信을 부정하는 굳건한 意志, 합리적 思考로 迷信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내용 등에서 그가 사회적 功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화하고자 하였던 점을 볼 수 있다. 〈道州毀鼻亭神記〉를 보자.

元和元年(805)에 河東의 薛伯高가 刑部郎中에서 道州刺史로 와서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간사하고 악한 폐단을 개혁하여 온화하고 선량한 정치로 백성을 다스렸다.(…)薛公은 백성의 民風을 자세히 살피려고 지도를 펼쳐 놓고 찾은 것이 鼻亭神²³⁹⁾이었다.(…)대대로 惡德을

237)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 126.

238) 楊翥·曹萌, 〈論柳宗元山水文學〉, 錦州師院學報, 第2期, 1988, p. 66.

239) 鼻亭은 舜 임금의 象에게 봉해주었다는 고대의 지명이다. 지금의 湖南省 道縣 북쪽에 해당된다. 鼻亭은 有廡, 有鼻, 鼻墟라고도 한다. 여기서 象은 舜 임금의 아버지 高辛(湄叟)의 후처에게서 난 아들로 성격이 어질지 못했하고 포악했다. 舜 임금에게 봉해 받은 道州에 와서 사당을 지었는데 이름이 '鼻亭神'이었다.

제사 지내왔으니 내가 사람들의 뜻을 바르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구나!” 薛公은 그것을 없애도록 급하게 명령을 내렸다.(…)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렸다. “내가 듣기로 ‘귀신은 귀신과 다른 것은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부정한 신을 제사 지내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무릇 천자는 나를 임명해서 道州를 다스리게 했는데 오로지 강토를 관리하거나 돈과 비단을 감독하였던 것만은 아니다. 대개 孝悌를 가르쳐 일반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고, 돈독하고 충성스러우며 화목하고 우의 있고, 또한 삼가 공경하여 믿고 양보하게 하니 道理에 순응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하여 鼻亭神을 배척함으로써 밝고 바르게 교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薛公은 鼻亭神을 없애고 孝와 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교화하여 興起하게 하였다.(…)그래서 柳宗元은 이것을 山石에 새겨 기록하였다. 이는 교화의 道를 알게 하는 것이다.²⁴⁰⁾

바른 교화를 위하여 미신적인 鼻亭神이라는 祠堂을 제거한 薛伯高의 일을 기록하면서 祠堂을 제거하는 의미와 薛伯高의 治績을 서술하였다. 굳건한 의지로 미신에 반대하고 현명한 가르침에 주력한 刺史의 일과 그 功을 기록하는데 있어 記事와 頌德을 배합하여 議論을 전개시킴으로써 올바른 社會教化 작용의 功利美를 볼 수 있다. 柳宗元이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밝고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社會教化에 주력한 점은 〈監察使壁記〉에서도 볼 수 있다.

성인이 祭祀를 지낸 것은 신을 믿어서가 아니다. 그를 통해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였다. 천지에 제사를 지낸은 尊貴한 지위가 있음을

240) 《柳宗元集》，卷28 〈道州毀鼻亭神記〉：“元和元年，河東薛公。由刑部郎中刺道州，除穢革邪，敷和于下。(…)公乃考民風，披地圖，得是祠。(…)以惡德而專世祀，殆非化吾人之意哉!” 命亟去之。(…)乃徧告于人曰：“吾聞‘鬼神不歆非類’，又曰‘淫祀無福’，凡天子命刺史于下，非以專土疆·督貨賄而已也。蓋將教孝悌，去奇邪，俾斯人敦忠睦友，祇肅信讓，以順于道。吾之斥是祠，以明教也。(…)賴公而存，斥一祠而二教興焉。(…)愿爲記以刻山石。俾知教之道。”

알리고자 함이니, 엄숙하지 않으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효를 推廣하기 위한 것이니, 엄숙하지 않으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빛나는 功을 이룬 이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덕에 보답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엄숙하지 않으면 善을 권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⁴¹⁾

〈道州毀鼻亭神記〉에서 薛公은 鼻亭神을 없애고 孝와 悌의 두 가지 방법으로 教化하여 興起하게 했다. 공명정대하게 鬼神을 징벌하니, 마음은 누그러져 온화하게 되고, 사망의 야만국까지도 이르고, 오직 부정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시킨 것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제거한 것이다. 그래서 柳宗元은 이것을 山石에 새겨 기록하여 教化의 道를 알게 하는 것이다. 柳宗元의 僻적지 永州·柳州는 비록 통치 관할은 唐 조정에 속해 있었지만 地理적 文化적 환경은 전혀 다른 이국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文化적으로 거의 야만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柳州文宣王新修廟碑〉에서는 柳宗元이 柳州刺史로 부임한 후 낙후된 柳州 지역에 儒道를 전파하고자 하는 柳宗元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元和10년(815) 柳宗元이 柳州에 도착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이 허물어진 孔子의 사당을 수리하고 우물을 파면 화를 입는다는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등 柳州 백성들이 文化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사업이었다. 柳宗元은 迷信에 대한 부정은 當時 사회교화 작용에 대한 그의 관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柳宗元은 자신의 이러한 教化 작업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적었다. 永州 시기에는 거의 자신의 번뇌로부

241) 《柳宗元集》，卷26 〈監察使壁記〉：“聖人之於祭祀，非必神之也，蓋亦附之教焉。事於天地，示有尊也，不肅則無以教敬。事於宗廟，示廣孝也，不肅則無以教愛。事於有功烈者，示報德也，不肅則無以勸善。”

터 벗어나고자 하는 산수유람, 창작활동이었다. 柳州 시기에는 자신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위한 교화 정치에 주력했던 것이다. 〈永州龍興寺息壤記〉는 龍興寺 모퉁이 바닥이 융기하여 이를 평평하게 고른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전에도 그 곳을 깎아 냈으나, 다시 융기한 일과 일꾼들이 모두 죽은 일에 대하여 서술하고, 迷信에 대해 반박하고 합리적으로 풀이한다. 반미신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永州 龍興寺 동북쪽 모퉁이에 불당이 있는데 불당 안에는 불쑥 튀어나온 바닥이 있어 벽돌을 깔기 시작했고 넓이는 二十尺에 높이는 一尺 五寸이나 됐다. 불당을 처음 짓기 시작했을 때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서 또 높였는데 대개 그때 삽과 가래를 가지고 사력을 다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永州는 楚·越 사이에 위치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귀신을 믿고 길상의 징조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龍興寺의 사람들이 모두 귀신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감히 다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하지 못했다. 《史記·天官書》와 《漢書·天文志》는 모두 地長의 占이 맞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현재의 땅도 역시 이러한 불쑥 튀어나온 땅인데 그 땅을 평평히 다듬는 사람은 불행하거나 죽게 되니 어찌 天帝가 아끼지 않겠는가? 남방에 많은 돌림병이 도는데 애써 노력해 과로한 사람은 먼저 죽게 되니 바로 그때 삽이나 쟁이를 가지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죽은 원인은 과도한 노력과 돌림병 때문이니 불쑥 튀어나온 땅이 어떻게 귀신이 된단 말인가?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에서 설명한 말들을 밝히려 하고 할까 오직 기괴한 일만을 적어 놓은 책을 믿을까 두려워 이러한 기록을 불당 위에 쓴다.²⁴²⁾

242)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息壤記〉：“永州龍興寺東北隅有堂，堂之地隆然負埽巒而起者，廣四步，高一尺五寸。始之爲堂也，夷之而又高。凡持鍤者盡死。永州居楚越間，其人鬼且穢。由是寺之人皆神之，人莫敢夷。史記天官書及漢志有地長之占，而亡其說。(…)今是土也，夷之者不幸而死，豈帝之所愛耶？南方多疫，勞者先死，則彼持鍤者，其死於勞且疫也。土烏能神？余恐學者之至於斯，微是言，而唯異書之信，故記于堂上。”

이 글에서는 佛堂을 지을 때 불쑥 튀어나온 땅을 고르기 위해 일했던 인부들이 모두 재앙으로 죽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史記·天官書》와 《漢書·天文志》는 모두 地長의 占이 맞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을 들어 모두 황당무계한 일임을 설명했다. 잘못된 믿음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워 기록으로 남긴다는 柳宗元의 教化 정신이 나타난다. 柳宗元은 많은 문장에서 미신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非國語·祀〉에서는 고대 선왕이 제사에 대해서도 그의 고인을 신격화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비판하였다.²⁴³⁾ 〈非國語·卜〉에서는 占卜 행위에 대해서도 “道에 해가 됨은 많으나 이익됨은 적다”²⁴⁴⁾라고 비판했다. 諸文에서 나타나는 柳宗元의 迷信에 대한 강한 반감은 功利美에 해가 되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243) 《柳宗元集》，卷45 〈非國語·祀〉：“夫祀先王所以佐教也，未必神之。”

244) 《柳宗元集》，卷45 〈非國語·卜〉：“害於道也多，而益於道也少。”

Ⅲ. 『記』文 창작상에 나타난 審美 특징

1. 幽境美

柳宗元은 일찍이 “《離騷》를 참고하여 그 幽深함을 구한다.”²⁴⁵⁾고 하였으며, 또 “幽鬱의 발설”²⁴⁶⁾을 말하여, “정신은 淒切하고 寒氣는 뼈 속까지 와 닿아 쓸쓸하고 幽深하다”²⁴⁷⁾는 경지를 묘사하였으니, ‘幽’자를 매우 강조한 것이다. ‘幽’자는 주로 格調가 은근하고 幽深하며, 늘리어 답답하고 속으로 분한 감정을 幽麗한 문자로 표현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데, 幽寂하고, 깊으며(深邃), 보일 듯 말 듯한 함축적인 것을 美로 삼은 것이다.²⁴⁸⁾ 幽美를 즐겨 사용하는 柳宗元의 散文風格은 다양한 散文美學으로 나타난다. 즉 <封建論> 과 같은 雄建함, <三戒> 와 같은 완벽한 警戒, <捕蛇者說> 과 같은 憤激, <小石潭記> 과 같은 淸峻함, <李赤傳> 과 같은 기이함이(詭寄) 있다.²⁴⁹⁾ 그러나 그 基調는 역시 沈鬱하고 단련된 含蓄性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갑고 날달리 험한 風格으로서 역시 幽美에 속한다. 幽美의 배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柳宗元 개인의 불행한 정치경력, 사상감정, 문예수양, 심미관점 등으로 볼 수 있다.²⁵⁰⁾ 柳宗元은 자신의 불행을 山水遊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245) 《柳宗元集》，卷34 〈答韋中立論師道書〉：“參之《離騷》以致其幽。”

246) 《柳宗元集》，卷36 〈上李中丞獻所著文啓〉：“舒泄幽鬱。”

247) 《柳宗元集》，卷29 〈小石潭記〉：“淒神寒骨，悄悄幽邃。”

248) 吳小林, 〈論柳宗元散文的幽美〉, 中國人民大學學報, 第5期, 1989, pp. 84-85.

249)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上揭書, p. 148.

250) 林春映, 〈柳宗元 散文의 藝術의 特性 研究〉, 上揭論文, pp. 149~150.

노력이 돋보이는 『記』文에 함축된 幽美의 格調를 살펴본다. 吳小林은 《柳宗元散文藝術》에서 柳宗元의 〈愚溪詩序〉의 ‘愚溪’는 묻혀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역설로 자신을 열악한 지경으로 몰아낸 정적들의 어리석음을 성토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⁵¹⁾ 〈愚溪詩序〉를 보자.

대체로 물길이 매우 낮은 곳에 있어서 관계하는 일에 쓸 수 없고, 또 물길이 급하고 돌출한 바위가 많아서 큰배가 드나들 수 없으며 幽深한 곳에 있으면서 얇고 좁아서 蛟龍도 하찮게 여겨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없다. 세상에 이롭게 함이 없으니 나를 꼭 닮았다. 그러니 모욕하여 어리석다고 불리도 되는 것이다.²⁵²⁾

이 글에서는 ‘愚溪’의 形勢를 보아도 ‘愚’자에 부합하고 ‘유심한 곳에 있으면서 좁다(幽邃淺狹)’하여 蛟龍까지도 하찮게 여겨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없는 ‘愚溪’의 정경은 ‘세상에 이롭게 함이 없다(無以利世)’라고 서술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柳宗元이 고의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서술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신의 놀리고 답답하여 분한 감정을 역설하는 작용을 한다.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²⁵³⁾에서 堂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堂은 사물로서 堂이 가지는 자연미의 일종이다. 즉 인위적인 외식(外飾)의 결과가 아니라 사물의 本色의 美이다. 또 이 堂에 어울려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적임자는 戴氏이다. 그는 높은 학문, 高德

251) 吳小林, 《柳宗元散文藝術》, 山西人民出版社, 1989, p. 47.

252) 《柳宗元集》, 卷24 〈愚溪詩序〉: “蓋其流甚下, 不可以漑灌, 又峻急, 多坻石, 大舟不可入也. 幽邃淺狹, 蛟龍不屑, 不能興雲雨. 無以利世, 而適類於余, 然則雖辱而愚之可也.”

253) 《柳宗元集》, 卷27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 本稿 pp. 71~72의 인용문, 脚注 144)의 원문 참조.

한 성품, 산수자연을 친구로 삼고 ‘그윽하고 순순함을 펼치는(攄幽發粹)’
것을 하루의 즐거움으로 삼는 賢者이다. 이러한 서술은 바로 戴氏가 道
의 幽深한 경지를 아는 幽美이다. 柳宗元은 그를 칭찬하며 글을 짓는데
도 道를 구체적으로 체현하려 했는데, “戴氏가 세상의 멀리하는 뜻에 위
배될까 두렵다”는 말로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永州龍興寺東丘記〉에서도 柳宗元은 자신이 유람하기에 적합한 경치,
즉 遊記를 쓸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밝히고 있다.

유람하기에 적합한 경치는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曠의 美’를 갖추고 있
는 것과 ‘奧의 美’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지세가 험하고 가파른 것을 누
르고 막히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끝없이 넓고 길게 펼쳐져 있다면 ‘曠의
美’에 적합하다. 구릉과 언덕에 부딪치면서 관목과 풀숲의 밑을 지나 굽이
쳐 흘러서 만난다면 奧에 적합하다.(…)고개를 떨구고 이 녹색의 초원으로
들어서면 숲은 깊고 어둡컴컴하며 초목은 우거져있으므로 걸음걸이가 엇갈
리어 나가야 할 곳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대도 열기를 느
낄 수 없고 시원한 공기가 절로 느껴진다. 물위의 작은 정자에 좁은 방이
있는데 그윽하니 정취가 깊다. 그러나 이곳에 와 본 사람은 종종 너무 멀
고 깊숙한 것을 단점이라 여긴다.(…)언덕 위의 시원한 곳에서는 휴식을 취
할 수 있다. 언덕 위의 그윽한 곳에서는 묘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언덕
아래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언덕 정상에서는 커다란 조화로움이 변하
지 않는다.²⁵⁴⁾

이 글에서 柳宗元은 龍興寺 東丘의 경치에 대해 서술하면서, 유람
을 할 만한 장소를 두 가지의 경우로 꼽았다. 넓은 시야, 큰 규모, 조

254) 《柳宗元集》，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游之適，大率有二，曠如也，奧如也，如
斯而已。其地之凌阻峭，出幽鬱，廖廓悠長，則於曠宜，抵丘垤，伏灌莽，迫邊迴合，
則於奧宜。(…)俛入綠縹，幽蔭蒼蔚。步武錯迕，不知所出。溫風不燂，清氣自至。水亭
陋室，曲有奧趣，然而至焉者，往往以邃爲病。(…)丘之幽幽，可以處休。丘之窅窅，可以
觀妙。溽暑遁去，茲丘之下。大和不遷。”

합의 형태를 띤 ‘曠濶의 美’와 작은 시야, 작은 규모, 독립의 형태를 띤 ‘深奧의 美’ 두 가지로 보았다. 柳宗元은 ‘曠濶의 美’와 ‘深奧의 美’는 각각 다른 대상에서 느끼는 미적 감각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치는 조화를 이루면서 두 가지를 겸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遊記에서는 대상이 겸비하고 있는 두 가지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서술 방식도 ‘曠’의 특징과 ‘奧’의 특징을 교차하여 서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²⁵⁵⁾ 曠濶의 美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누르고 막히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深奧의 美를 서술하는 방식에서는 樹木이 무성하며 뻗뻗이 들어서 있는 사이로 들어가서 幽深의 美를 발견하였다. 뛰어난 絶景은 아니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도 하고, 깊으면서도 장엄함을 느끼는 경우 등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윽하다는 표현을 통해 龍興寺 동쪽 언덕의 그윽함에서 쉬고 싶어하는, 즉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작자의 내면심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자의 내면심리와 幽鬱한 자연 환경의 조화가 꼭 장점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그 장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점은 柳宗元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 멀고 깊숙한 것이 작자에게 장점이 되는 원인은 幽深한 자신의 우울한 감정이 자연이 주는 幽鬱함과 어울려 잠시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始得西山宴遊記〉를 보자.

어느 날 사람들과 동행하여 높은 산에 올라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이리저리 굽은 계곡을 돌아보고, 산골짜기 깊은 샘과 기이하게 생긴

255) 《唐宋八大家散文技法》, 上揭書, pp. 68~69.

돌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럴듯한 곳에 도착하여 풀을 헤치고 앉아, 술병을 기울여 마시고 취했다. 취하여 서로 기대어 베개삼아 베고 눕고, 잠들어 꿈을 꾸었다. 마음에 있던 생각이 지극하여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즐겼다. 꿈에서 깨어 일어나 돌아왔다. 무릇 이 고을의 山水 가운데 보통과 색다른 것은 모두 내가 가보았다고 생각했으나, 이 西山의 괴상하고 특이함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²⁵⁶⁾

이 글은 山水를 찾아다니면서 長安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물론 정치적 좌절로 貶謫되어 두렵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번뇌를 잊으려는 노력이 공존한다. 그러나 실의에 빠져 좌절하지 않고 悲憤·挫折·孤獨의 번뇌를 잊으려는 노력으로 더욱 깊고 기이함을 쫓아 멀고 험한 곳을 찾은 그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柳宗元의 함축된 幽美가 살아나는 것이다.

〈至小丘西小石潭記〉²⁵⁷⁾에서는 小石潭의 모습과 景物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묘사를 하면서, 貶謫되어서 실의에 찬 적막하고 쓸쓸함에 대하여 함축된 幽境美를 표현을 하고 있다. 小石潭의 주위 환경이 처량하고 싸늘하며 쓸쓸하고도 고요함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듯 실감나게 묘사하는바 당시 자신의 심정을 결합한 표현이다. 이런 감정 표현이 많지는 않으나 매우 함축적이어서 매우 신비로운 운치와 분위기를 더해 준다. 柳宗元이 묘사한 永州의 山水는 지리적 위치는 모두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독 小石潭만이 이런 느낌을 준

256) 《柳宗元集》，卷29 〈始得西山宴遊記〉：“日與其徒上高山，入深林，窮迴谿，幽泉怪石，無遠不到。到則披草而坐，傾壺而醉。醉則更相枕以臥，臥而夢。意有所極，夢亦同趣。覺而起，起而歸。以爲凡是州之山水有異態者，皆我有也，而未始知西山之怪特。”

257) 《柳宗元集》，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本稿 p. 36의 인용문, 脚注 75)의 원문 참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묘사는 永州의 궁벽함이 柳宗元의 고독감을 대신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柳宗元이 永州的 산수를 자신의 처지와 함께 인식했다는 사실은 〈愚溪詩序〉 및 기타 몇몇 遊記의 말미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가 산수를 인식하는 이런 방법은 산수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 있어 객관적으로 山水의 외형만을 서술하는 무미건조한 필법을 탈피하고 있는 서술 방법은 柳宗元 遊記散文의 예술성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柳宗元 산문은 높은 이상을 지닌 사람이 실패한 후의 드러내는 감정의 표현, 심리상태를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그의 산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崇高한 영혼의 소유자는 바로 柳宗元 자신이 스스로 추구하고 지향해 마지 않던 인격체의 한 형상이며, 이것은 柳宗元 산문에서 幽境美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²⁵⁸⁾

2. 崇高美

중국 고대의 경우 美에 대한 정리와 文學風格을 결합시킨 것 중에서 ‘陽剛之美’, ‘陰柔之美’ 같은 개념이 있다. 문예 작품의 예술 풍격이 비록 천태만상이지만 미학적 각도에서 말한다면 ‘陽剛之美’와 ‘陰柔之美’ 두 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는 서양의 ‘崇高美’와 ‘優雅美’에 관한 구별과 일치한다. ‘陽剛의 美’는 ‘崇高美’이고 ‘陰柔의 美’는 곧 ‘優雅美’이다.²⁵⁹⁾ 姚鼐는 “天地의 道는 陰陽剛柔 뿐

258) 吳小林, 〈論柳宗元散文의 幽美〉, 上揭論文, p. 86.

259) 本章에서는 현대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優雅美’와 ‘崇高美’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다. 글은 天地의 정수(精英)이고, 陰陽剛柔의 발현이다.”²⁶⁰⁾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연현상을 비유로 ‘陽剛之美’와 ‘陰柔之美’를 설명했으며 이 모든 것은 문장의 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姚鼐의 말은 모두 일종의 미에 대한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崇高하고 고결한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아름다움은 優雅美와 곧잘 비교된다.²⁶¹⁾ 이는 위에서 언급한 ‘陽剛之美’와 ‘陰柔之美’와 유사하며 중국 詞의 風格에서 ‘豪放’과 ‘婉弱’의 구분과도 관련된다.²⁶²⁾ 이런 것으로 보아 중국의 文學作品에 있어서 崇高하고 고결함의 감흥을 상기시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나름의 崇高성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⁶³⁾ 柳宗元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優雅美는 일종의 陰柔之美로서 美學 범주에 속한다. 단지 일반적인 優雅美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깊고 俗氣가 없으며, 힘이 있으나 침울하며 함축적인 특징을 지닌다. 王國維가 말하는 “無我之境은 사람이 오직 고요한 상태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有我之境’은 흔들리는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로 갈 때 그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無我之境’은 優雅美이고, 有我之境’은 크고 장엄한 아름다움이다.”²⁶⁴⁾ 라고 말했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 陰陽의 두 기운을 받아 태어나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260) 姚鼐, 《惜抱軒文集》·〈卷文·復魯絜非書〉: 天地之道, 陰陽剛柔而已. 文者天地之精英, 而陰陽剛柔之發也. (《中國古典文學創作論》, 上揭書, p. 482 재인용.)

261) 姚鼐는 陽剛之美의 특징을 웅장하고 광활하며, 숭고하고 장엄하며, 넘쳐흐르고 강경하고 힘있는 아름다움이다. 陰柔之美는 부드럽고, 悠遠하고, 따뜻하고 그윽하며, 잔물결이 일고 섬세하고 밝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였다.

262) 蔡儀, 강경호 譯, 《문예미학》, 동문선, 1989, p. 187.

263)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上揭書, p. 22.

264) 王國維, 《人間詞話》, 第4條: “無我之境, 人惟於靜中得之; 有我之境, 於由動之靜時得之. 故一優美一宏壯也.”

이다. 사람의 개성과 기질은 陰陽·剛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기질의 표현으로서의 藝術風格 또한 陽剛과 陰柔의 구별이 있다. 柳宗元의 산문은 崇高美(陽剛)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優雅美(陰柔)까지 느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張法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에서 중국적 崇高의 형태로 인물의 崇高성과 산수의 崇高성 그리고 여러 조형물들의 崇高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위대함(大者)’, 山水遊覽에서 나타나는 즐거움(樂), 건축물인 樓閣亭臺의 높음에서 崇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물의 위대함(大者)을 미학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성인의 숭고적인 人格美라 할 수 있다. 중국고전 미학에서 인물의 崇高인 ‘쿰’은 天의 崇高를 거쳐 호연지기를 갖춘 영웅과 군자의 崇高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천인합일 철학에서는 긍정적 인물만이 天의 정기를 받아 숭고할 수가 있다.²⁶⁵⁾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柳宗元 산문에서는 자연의 崇高美와 인물의 인격의 고결한 아름다움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지은 樓臺나 亭子の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쓴 亭記·堂記에서 특히 崇高美의 격조가 드러난다. 高德하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 亭·堂에서 관망하는 山水風景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가 충만 되어, 崇高美의 格調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²⁶⁶⁾에서는 “堂을 지어 놓으니 그 경치가 더욱 뛰어났는데, 먼 곳에서 이 堂을 바라보면 마치 배를 밧줄로 엮어 놓아 물결 따라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 같다. 堂 안으로 들어가서 연못을 내려다보면 그 속에 만물이 거꾸로 비치는데, 아득히 멀고 넓어지며 나

265)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上揭書, pp. 222~245. (黃理喜, 〈韓愈 散文에 나타난 人格美 探究〉,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第25輯, 2003, pp. 242~243 재인용.)

266) 《柳宗元集》, 卷27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 本稿 pp. 71~72의 인용문, 脚注 144)의 원문 참조.

타났다 사라지는 듯하다.”²⁶⁷⁾면서 戴氏堂 밖에서 본 주변의 광활한 경관과 戴氏堂 안에서 본 주변의 심오한 경관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나타냈다.²⁶⁸⁾ 연못 속에 비치는 만물의 형상은 더 이상의 묘사가 필요 없는 悠遠함이다. 천지 만물을 깊이 느끼고 더욱 가까이 교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화를 이루며 그 진가를 더욱 발하고 있는 장엄한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는 崇高美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구현되는 崇高美는 戴氏堂 자체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건축물인 堂과 그 주인인 戴氏의 세상을 멀리하고 道를 즐기는 高德한 人格美가 어우러지면서 戴氏堂의 가치를 높이는 崇高美를 발현하게 된다. 山水風景의 曠의 美와 奧의 美를 관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戴氏 뿐이라는 칭찬을 통해 격조를 높이고 있다.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²⁶⁹⁾에서는 訾家洲亭 관망하는 아름다움의 묘사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絶景을 관망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끌어 낸다. 여기에 덧붙여 絶景을 발견하는 이는 裴公의 안목이고 그의 功이 있음을 나타낸다. 裴公이 부임해 와서 백성들에게 德으로서 교화하는 善政을 펼치고 일년이 지난 뒤에는 모두가 裴公의 정치를 칭찬하게 되니 산수자연의 絶景과 함께 善政이 베푸는 裴公의 인격이 어우러지면서 崇高美를 발현하는 것이다.

〈永州韋使君新堂記〉²⁷⁰⁾에서는 永州 지방 백성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험준한 지형 때문이며, 그 험준함 속에 勝景이 숨겨져 있

267) 《柳宗元集》，卷27 〈潭州楊中丞作東池戴氏堂記〉：“堂成而勝益奇，望之若連艦糜艦，與波上下。就之顛倒萬物，遼廓眇忽。”

268) 權錫煥, 《柳宗元的山水遊記及其空間認識》，中國永州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 2002, p. 6.

269) 《柳宗元集》，卷27 〈桂州裴中丞作訾家洲亭記〉：本稿 p. 73의 인용문, 脚注 148)의 원문 참조.

270) 《柳宗元集》，卷27 〈永州韋使君新堂記〉：本稿 p. 74의 인용문, 脚注 153)의 원문 참조.

었다. 九疑山 기슭에 위치한 永州가 폐허라고 불리다가, 韋公이 부임해 와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지세에 따라 堂을 짓고, 지역 풍습을 기반으로 하여 백성을 교화하려는 점을 ‘美惡, 殘仁, 清濁, 貪廉’의 대비로 잘 묘사하였다. 백성을 위한 韋公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의 인격은 永州的 높고 험준한 지세의 장엄함과 그 속에 감춰진 絶景을 찾아 善政을 베푸는 高德한 崇高美의 조화를 이루어 내니 뛰어난 창작상의 기교라 평가할 수 있다.

〈永州崔中丞萬石亭記〉 271)에서는 崔公이 永州에 부임해 와서 폐허를 찾아 그 주위를 정리하면서 찾아내는 山水風景은 마치 조물주가 맑고 혼탁한 것을 판단해 이 땅에 기이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론 이룰 수 없는 勝景이다. 그곳에 萬石亭을 세우고 거처를 삼았다. 亭子에서 멀리까지 관망하는 절경은 첩첩이 이어진 산들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져 장엄한 아름다움이였다. 마을 노인의 말을 빌어 亭子를 신령스런 景物로 나타내어 가치를 높이고 또 崔公의 德도 밝히고 있다. 옛 성인의 道에 부합하는 통치를 베푸는 崔公의 高德한 인격은 역시 뛰어난 山水風景과 함께 잘 어울리는 崇高美를 발현하는 것이다.

〈零陵三亭記〉 272)에서는 零陵縣 동쪽의 산림은 은폐되어 있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當時 零陵은 政事는 복잡했는데, 재능 있는 인사가 부임해 와서 善政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정치를 잘한 인물이 바로 薛存義이고, 인물됨은 자만하지 않고 山水自然의 즐거움에 정을 의탁하며 욕심 없는 인물이었고 山水風景의 절경을 찾아

271) 《柳宗元集》，卷27 〈永州崔中丞萬石亭記〉：本稿 p. 86의 인용문, 脚注 176)의 원문 참조.

272) 《柳宗元集》，卷27 〈零陵三亭記〉：本稿 p. 87의 인용문, 脚注 176)의 원문 참조.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高德한 인격과 勝景은 서로 어울리면서 崇高美가 발현되는 것이다.

〈愚溪詩序〉²⁷³⁾에서는 계곡을 비롯한 주변의 여덟 가지 사물에 어리석다는 ‘愚’자를 넣어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냄과 동시에 소감을 표현했다. ‘愚’자를 넣어 이름지은 이유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八愚’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시하는 것은 ‘賢愚’가 바로 평가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토로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특히 창작 능력을 자부하고 있으며 속세를 떠난 초월의 경지를 염원하는 優雅美의 격조를 보인다. 柳宗元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단순히 山水風景의 묘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미의식을 함께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記』 文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예술성을 가지는 것이다.

〈始得西山宴遊記〉²⁷⁴⁾에서 柳宗元은 뛰어난 山水風景으로 극도의 煩悶 중에 있는 정신세계를 초월함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냈다. 여기에서 柳宗元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항상 울적하고 두려운 苦惱를 해소하려고 나선 山水遊覽을 통해 얻는 정신적 고통을 잠시나마 잊는 ‘無我之境’에 이른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정을 표현하는 데서 작자의 처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西山의 높고 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高’자를 쓰지 않았으나 정교한 문구로써 더욱 명확하게 높음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천지의 광활한 氣를 조물주와 더불어 유유자적하게 즐긴다는 ‘洋洋乎與造物者遊’ 표현은 천지의

273) 《柳宗元集》，卷24 〈愚溪詩序〉：本稿 p. 41의 인용문, 脚注 83)의 원문 참조.

274) 《柳宗元集》，卷29 〈始得西山宴遊記〉：本稿 p. 47의 인용문, 脚注 96)의 원문 참조.

무궁함을 표현한 것이다. 柳宗元은 술잔을 들며 감회에 젖어들면서 산 속에 유난히 일찍 찾아드는 저녁의 어두운 그림자 ‘蒼然暮色, 自遠而至’란 어둠은 신비감에 빠져든 것이다. 大自然의 장엄함, 숭고함 앞에 선 작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세상만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眞我를 만나게 된다. 세속에 얽매인 자기를 잊고 忘我의 경지에서 ‘無我之境’에 몰입하여 작자의 心境과 物境이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다가 의연한 자연 앞에서 인생의 무상과 유한을 느끼며 脫俗해 眞我를 만나 마침내는 자연에 동화되는(與萬化冥合) 무아지경의 優雅美와 유아지경의 崇高美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에서 발현되는 美는 美의 대상과 美的 관념이 서로 결합할 때 상이한 미감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 지성적, 감정적 조건이 동반됨으로 美의 종류는 서로 다르고 많은 종류의 美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장에서는 객관 사물을 묘사하고 작자의 개성이나 기질까지 표현해야 하므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柳宗元의 문장에서 많은 부분이 작자의 개성과 기질이 優雅美와 崇高美의 함축으로 나타난 점을 보았다.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는 절대로 없는(一有一絕無)’것을 반대한 것은 중국 고대의 풍격의 예술미를 논한 하나의 극히 중요한 사상이다.²⁷⁵⁾ 柳宗元의 문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 없이 조화를 이루었다.

275) 《中國古典文學創作論》, 上揭書, p. 490.

IV. 結論

本稿에서는 山水遊記, 亭記·堂記, 佛敎와 관련된 『記』文 29편을 대상으로 文藝美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柳宗元이 古文運動에서 散文의 文體·文風 및 言語를 개혁하여 많은 散文理論과 散文美學 견해를 제시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그의 散文創作에서 文理가 뛰어나고, 思想性·藝術性이 우수하며 社會的 작용과 審美的 효과 모두 강한 특징을 지녔다. 또한 진실성을 담은 文學作品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작용도 중시했고, 지나치게 꾸미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연스럽고 꾸밈새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정된 法式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발하여 구속받지 않으면서 글을 지을 것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모든 주장은 唐代 古文運動 가운데 제기된 散文 改革 이론을 한층 풍부하게 했으며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散體文 체제를 완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柳宗元의 山水遊記에 드러나는 抒情美·意境美·畫境美는 풍부한 예술미로 나타났다. 그는 정치적으로 貶謫되어 울분을 발설할 곳이 없어 山水의 유람을 통해 찾은 山水의 美에 자신의 감정을 비유·상징·암시 등의 형태로 이입시켜 강한 抒情美를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悲憤·挫折·孤獨이라는 내면의식을 자연과 완전히 융화시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표현들은 意境美로 드러났다. 또한 그의 세심한 관찰력과 생동감 있는 묘사는 山水의 아름다움을 한쪽의 그림으로 그려낸 듯한 畫境美를 나타냈다.

柳宗元의 亭記·堂記에서는 대립되거나 어긋나기보다는 자연과 어울려 균형을 이루는 調和美와 議論 성분이 敘事 및 抒情과 융합되어 나타나는 議論美를 볼 수 있다. 이는 柳宗元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이 아니라 청탁을 받아 이들 『記』文을 지었으므로 작자의 체험이 아닌 관망을 통해 自然에 인공의 美를 더한 亭子와 堂의 조화, 거기에 그 주인의 덕행과 안목 등을 더하여 조화의 美를 이끌어낸 것이다. 亭記·堂記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는 주인의 덕행과 안목 등을 칭찬하는 형태로 드러냈다. 政治革新의 실패로 장기간 貶謫되어 있으면서 사회 깊숙한 곳까지 살피면서 백성들의 곤경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복잡한 심정까지 寄託하였다. 이는 柳宗元이 바르게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議論美라 하겠다.

佛敎와 관련된 記를 통해서 柳宗元의 불교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볼 수 있다.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佛者이기도 했고, 唐代는 儒敎보다는 佛敎, 道敎가 성행하면서 자연스럽게 柳宗元의 宗教思想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貶謫地 환경이 당시 한창 유행하던 南宗禪의 근거지였고 交友하는 사람도 僧侶가 많았다. 정치적 불행으로 하루하루를 煩悶에 쌓여 있던 그는 世俗의 煩惱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고, 이러한 작자의 내면의식이 작품에서 脫俗美로 나타났다. 미신적 관점이 난무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한 柳宗元은 大道를 학습하고 그것의 宗旨를 밝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薰陶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迷信을 부정하는 굳은 의지나 합리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 功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교화를 위한 功利美를 나타냈다.

『記』文을 창작하는데 나타나고 있는 작자의 審美 특징에는 幽境美와 崇高美가 드러나 예술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였다. 柳宗元은 높은 이상과 포부를 지녔다가 실패한 뒤의 감정을 ‘幽’자에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온 美學에서의 陽剛의 美에 해당되는 崇高美와 陰柔의 美에 해당하는 優雅美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상적인 문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문장의 美的 표현을 뛰어나게 하였다.

학문과 예술의 미적 현상을 思想化 하여 언어로 표현한 柳宗元의 『記』文은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文藝美의 가치로 나타났다. 그의 『記』文이 단순히 山水自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면 기록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柳宗元은 자연의 숨겨진 勝景을 발견하고, 그 위대함에 비유나 상징 등의 형태로 적절하게 자신의 내면의식까지 묘사하는 創作技巧를 발휘했다. 이상과 같이 柳宗元이 創作에 몰입하여 散文改革 이론을 실천하고 문장의 예술적 가치를 높인 성과는 中國文學史나 中國散文史에서 至高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柳宗元 文集 및 研究 論文】

- 柳宗元 著, 中華書局校主, 《柳宗元集 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2000.
- 柳宗元 著, 母康才·馬健農 主編, 易新鼎 占校, 《柳宗元集》, 北京 中國書閣, 1998.
- 吳文治 編, 《柳宗元卷》, 北京 中華書局, 1961.
- 吳文治 著, 《柳宗元簡論》, 北京 中華書局, 1979.
- 吳文治 著, 《柳宗元選集》, 人民文學出版社, 1998.
- 章士釗 著, 《柳文指要 上·下》, 上海 文匯出版社, 2000.
- 汪新 選注, 《柳河東小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 吳企明 編著, 《柳宗元散文精品選》, 陝西人民出版社, 1995.
- 高文·屈光 選注, 《柳宗元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9.
- 胡楚生 編, 《柳文選析》, 臺北 華正書局, 1983.
- 章行嚴 著, 《柳文探微 上·中·下》, 臺北 華正書局, 1981.
- 王更生 編著, 《柳宗元散文研讀》, 文史哲出版社, 民國 88.
- 吳小林 著, 《柳宗元散文藝術》, 山西人民出版社, 1989.
- 何沛雄 著, 《柳宗元永州八記》, 香港 上海人書館, 1978.
- 何沛雄 著, 《永州八記導讀》, 中華書局, 1990.
- 洪寅杓 著, 《柳河東詩研究》, 瑞麟文化社, 1981.
- 吳洙亨 編著, 《柳宗元詩選》, 문이재, 2002.
- 金容杓 著, 〈柳宗元散文研究〉, 國立臺灣大碩士學位論文, 民國 74.
- 柳銀姬 著, 〈柳宗元の 傳과 山水記 考察〉, 延世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5.
- 劉世鍾 著, 〈柳河東詩의 內容과 形式 分析〉, 韓國外國語大學校, 1985.
- 洪承直 著, 〈柳宗元 寓言文의 諷刺性 研究〉, 高麗大碩士學位論文, 1987.
- 吳洙亨 著, 〈柳宗元散文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2.
- 洪承直 著, 〈柳宗元 散文의 文體別 研究〉,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992.

- 林春英 著,〈柳宗元 傳記·寓言散文 研究 —敘事的 性格을 中心으로—〉, 韓國外國語大碩士學位論文, 1993.
- 林玄鎬 著,〈柳宗元の〈永州八記〉研究〉,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94.
- 金俊亨 著,〈柳宗元の 山水遊記 研究〉, 明知大碩士學位論文, 1995.
- 李賢 著,〈柳宗元の 永州八記 考察〉, 慶星大碩士學位論文, 1996.
- 南哲鎮 著,〈柳宗元 寓言 研究〉, 延世大碩士學位論文, 1997.
- 白光俊 著,〈柳宗元の 諷刺文學 研究〉, 서울大碩士學位論文, 1997.
- 朴璟蘭 著,〈柳河東「著述之文」에 나타난 思想研究〉, 漢陽大碩士學位論文, 1990.
- 蔡聖淑 著,〈柳宗元の 寓言文 研究〉, 全南大碩士學位論文, 2000.
- 洪銀彬 著,〈柳宗元 山水紀遊詩文의 境界 研究〉, 高麗大碩士學位論文, 2001.
- 林孝燮 著,〈柳宗元詩의 內面意識 變化 研究〉, 韓國外國語大博士學位論文, 2003.
- 林春映 著,〈柳宗元 散文의 藝術的 特性 研究〉, 韓國外國語大博士學位論文, 2003.
- 李漢祚 著,〈柳宗元の 文學思想〉,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報, 1966.
- 洪寅杓 著,〈柳宗元の 古賦 研究〉,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報, 1983.
- 金容杓 著,〈柳宗元 寓言文의 發達科程에 對한 研究〉, 中國學研究, 1985.
- 金容杓 著,〈柳宗元‘永州八記’와 歐陽修‘醉翁亭記’의 創作心境 및 主題·風格比較〉, 中國語文學(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第4集, 1987.
- 吳洙亨 著,〈柳宗元の 寓言文 研究〉, 中國語文學 第21集, 嶺南中國語文學會, 1993.
- 吳洙亨 著,〈柳宗元 散文의 再照明—進步的 民權思想과 散文의 大衆化〉, 中國學報 第35集, 中國學會, 1995.
- 吳洙亨 著,〈柳宗元·蘇軾의 諷刺散文 比較 研究〉, 韓國中語中文學會, 中語中文學, 1998.
- 李寅浩 著,〈試析 柳宗元—參之太史以著其一「潔」〉, 中國語文學論叢 第4集, 1991.
- 洪承直 著,〈柳宗元の「論體」 研究〉, 中國語文論叢 第3集, 中國語文研究會, 1990.
- 洪承直 著,〈柳宗元の 遊記研究〉, 中國學論叢 第5集, 中國學研究會, 1991.

- 洪承直 著,〈柳宗元の 贈序 研究〉, 中國學論叢 第6集, 中國學研究會, 1991.
- 洪承直 著,〈柳宗元の 碑誌 研究〉, 中國語文論叢 第5集, 中國語文研究會, 1992.
- 洪承直 著,〈柳宗元の 創作意識과 散文의 成就〉, 中國學論叢 第7集, 中國學研究會, 1993.
- 洪承直 著,〈辭賦에 나타난 柳宗元の 憂患 意識〉, 中國語文論叢, 中國語文研究會, 2000.
- 洪承直 著,〈柳宗元 遊記의 詩的 要素〉, 中國散文論叢, 第1集, 2000.
- 洪承直 著,〈柳宗元 辭賦의 패러디 構造 考察—〈愈膏盲疾賦〉를 통하여〉, 中國語文論叢, 中國語文研究會, 2002.
- 金鐘聲 著,〈柳宗元の 人物傳記 創作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1集, 2003.
- 朴仁成 著,〈劉禹錫詩에 표현된 貶謫克服 樣相—柳宗元과의 비교를 겸하여—〉,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2001.
- 池世樞 著,〈抒情散文의 詩的 分析方法論 考察—柳宗元 「영주 땅 유람기 여덟 편『永州八記』을 대상으로」—〉, 中國散文論叢 第1集, 2000.
- 權錫煥 著,〈柳宗元的山水遊記及其空間認識〉, 中國永州柳宗元國際學術討論會, 2002.

【一般論文】

- 裴永信 著,〈明代遊記의 體例와 表現特色攷〉, 韓國外國語大碩士學位論文, 1985.
- 裴得烈 著,〈文心雕龍〉의 美學的 考察(文學理論에 關連하여),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7.
- 姜昺範 著,〈唐代山水遊記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91.

- 郭魯慶 著,〈歐陽修 散文 研究〉,韓國外國語大博士學位論文,1990.
- 林俊相 著,〈蘇軾‘記’體散文 研究〉,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1993.
- 洪在玄 著,〈王國維 文藝美學理論 研究〉,全南大博士學位論文,1994.
- 柳昌嬌 著,〈王國維 藝術批評 研究〉,서울大博士學位論文,1995
- 朴璟實 著,〈韓愈散文研究〉,成均館大博士學位論文,1995.
- 유광중 著,〈宋代 山水遊記 譯註 및 考察〉,詳明大碩士學位論文,1998.
- 朴亨洙 著,〈歐陽修 記類散文 研究〉,全南大碩士學位論文,2000.
- 李恩姪 著,〈中唐 寓言詩 研究〉,誠信女大碩士學位論文,2000.
- 姜善花 著,〈南朝 山水詩 研究〉,誠信女大碩士學位論文,2000.
- 高明住 著,〈蘇軾 雜記文의 文藝美學 研究〉,誠信女大碩士學位論文,2003.
- 黃理喜 著,〈韓愈‘排佛興儒’의 原因에 관한 研究〉,中國語文研究會,中國語文論叢 第14輯,1998.
- 黃理喜 著,〈韓愈 散文에 나타난 人格美 探究〉,中國語文研究會,中國語文論叢 第25輯,2003.
- 孫五圭 著,〈山水文學에서의 山水와 山水美〉,人文學研究所論文4集,1998.

【一般書籍類】

- 韓愈 著,馬其昶校主,《韓昌黎文集》,河洛圖書出版社,1975.
- 郭預衡 著,《中國散文史 上·中·下》,上海古籍出版社,1999.
- 吳小林 著,《中國散文美學》,臺北 里仁書局,民國 84.
- 劉大杰 著,《中國文學發展史》,上海古籍出版社,1984.
- 錢念孫 著,《中國文學史演義》(貳)唐宋篇,正中書局股份有限公司,2002.
- 陳柱 著,《中國散文史》,臺灣 商務印書館,1978.

- 胡士明·徐樹儀,《唐五代散文》,上海書店出版社,2000.
- 何法周 主編,《唐文選 上·下》,1993.
- 羅聯添 編,《中國文學史論文選集》·〈柳宗元二篇山水記的分析〉,臺北 學生書局,1979.
- 高步瀛 著,《唐宋文學要》上冊,卷4〈遊黃溪記〉,香港 中華書局,1985.
- 蔡鎮楚 著,《中國古代文學批評史》,岳麓書社,2001.
- 賈平凹 主編,《散文研究》,河北大學出版社,2000.
- 徐師曾 著,《文體明辨序說》,臺北,長安出版社.
- 林紓 著,《韓柳文研究法》,上海,人民文學出版社,1964.
- 周世英·郭景春 著,《唐宋八大家散文技法》,1986.
- 劉虹 著,《中國選士制度史》,湖南教育出版社,1992.
- 上海古籍出版社 編,《古典文學三百題》,上海古籍出版社,1999.
- 李時人 編著,《中華山水名勝旅遊文學大觀 上·下》,三秦出版社,1998.
- 張成德·張仁健·林友光·屈毓秀·崔元和 共著,《中國遊記散文大系·廣西卷》,書海出版社,2002.
- 張成德·張仁健·林友光·屈毓秀·崔元和 共著,《中國遊記散文大系·湖南卷》,書海出版社,2002.
- 倪其心·費振剛·胡雙寶·願國瑞·王春茂 共著,《中國古代遊記選》,中國旅遊出版社,1985.
- 孫昌武 著,《道教與唐代文學》,人民文學出版社,2001.
- 劉勰 原著,《文心雕龍 註》,維明書局,1981.
- 李羨林 名譽主編,張燕瑾·呂薇芬 主編,杜曉勤 撰著,《20世紀 中國文學研究·隋唐五代文學研究 上·下》,北京出版社,2001.
- 張永桃 主編,本卷主編 趙憲章,《中國典籍精華叢書·第七卷,美學精論》,中國青年出版社,2000.

- 周明 著,《中國古代散文藝術》,江蘇教育出版社,1994.
- 胡經之·王岳川 主編,《文藝學美學方法論》,北京大學出版社,1998.
- 叶朗 著,《中國美學史大綱》,上海人民出版社,1984.
- 劉叔成·夏之放·樓昔勇 等著,《美學基本原理》,1987.
- 金學主 著,《中國文學史》,新雅社,1989.
- 金學主·李東鄉·金榮九 共著,《中國文學史 I·II》,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1995.
- 金學主 著,《中國文學史論》,서울大學校出版部,2001.
- 許世旭 著,《中國隨筆小史》,乙酉文化社,1981.
- 許世旭 著,《中國古典文學史·上》(先秦·秦·漢·魏晉·南北朝·隋·唐),法文社,2003.
- 丁範鎮·河正玉 共著,《中國文學史》,東亞學研社,1982.
- 吳洙亨 篇譯,《唐宋八大家의 산문 세계》,서울大學校出版部,2000.
- 오태석 지음,《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역락,2001.
- 金達鎮,《古文眞寶·後集》,문학동네,1993.
- 吳楚材 編,이제원 譯,《古文觀止》,知永社,1998.
- 李澤厚·劉綱紀 主編,權德周·金勝心 共譯,《中國美學史》,대한교과서주식회사,2001.
- 이상우 著,《동양미학론》,시공사,1999.
- 박선규 著,《「文賦」와 그 미학》,신원,1999.
- 南朝 梁,鍾嶸 撰,林東錫 譯註,《詩品》,學古房,2003.
- 유협 著,최동호 譯,《문심조룡》,민음사,2002.
- 장과 著,유중하·백승도·이보경·양태은·이용재 譯,《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푸른숲,1994.
- 李澤厚 著,權珊 譯,《華夏美學》,東文選,1990.

- 葛兆光 著, 鄭相弘·任炳權 譯, 《禪宗과 中國文化》, 東文選, 1988.
- 野上俊靜·小川貫式·牧田諦亮·野村耀昌·佐藤達玄 共著, 權奇悰 譯 《中國佛教史》, 東國大學校佛典刊行委員會, 1994.
- 朱存明, 王海龍 著, 유세중 譯 《사회주의미학연습》, 전인, 1989.
- 戶川芳郎·蜂屋邦夫·溝口雄三 共著, 조성을·이동철 譯, 《儒敎史》 이론과 실천, 1990.
- 孫五圭 著,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심경호 著, 《한문산문의 미학》, 高麗大學校出版部, 1998.
- 서경수 編著, 엄경흠 譯註, 《한시의 미학》, 보고사, 2001.
- 신은경 著, 《風流》, 보고사, 2001.
- 류창교 著, 《美國의 中國文學 研究》, 현학사, 2003.
- 張少康 著, 李鴻鎮 譯, 《中國古典文學創作論》, 범인문화사, 2000.
- 周勳初 著, 중국학연구회 譯, 《중국문학비평사》, 이론과 실천, 1994.
- 임종욱 著, 《중국문학에서의 문장체제 인물 유과 풍격》, 이회, 2001.

【辭典類】

- 林非 主編, 《中國散文大辭典》, 鄭州·中州古籍出版社, 1997.
- 陳振鵬·章培恒 主編, 《古文鑒賞辭典 上·下》, 上海辭書出版社, 1998.
- 呂晴飛 主編, 牛宝彤 副主編, 《唐宋八大家散文鑒賞辭典》, 中國婦女出版社, 1996.
- 吳功正 執行主編, 《古文鑒賞集成 一·二·三》, 文史哲出版社, 民國 85.
- 王洪 主編, 周季平·喬力·李維國 副主編, 《古代散文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1.
- 李家源·權五惇·任昌淳 監修,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95.
- 王世德 主編, 《美學辭典》, 臺北木鐸出版社, 1987.
- 金吉祥 編著, 《佛教大辭典》, 弘法院, 2001.

ABSTRACT

The study of 『Ji』 works of Liu Tsung-yuan

Lee Eun Soo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is the study of analysing aesthetic expression with regards to 『Ji』 (記) work of Liu Tsung-Yuan(柳宗元) during the Tang(唐) age(773~819).

Recognising of hills and waters natural scenery as an object of Beauty has brought an innovative change not only the diversity of materials but also cognition of beauty in all respect of the art world, including literature. From ancient times literary men praised beauty of hills and waters through literature, which is undeniable. Taking place of term nature, which is an opposite object of the human society, it started to settle down as a real literary word after hills and waters been recognised as an object of beauty. However, from the point of my view, it will be more reasonable to say that the beauty of hills and waters is not created but found. Therefore

the content of the beauty of hills and waters has been changing although the object has been same according to different societies, stages and persons.

Liu Tsung-Yuan was a progressive, innovative, a profound thinker during the Tang age. He participated in a political movement, which was commanded by Wang su-wen(王叔文), but it was not successful and he had the misfortune to get deported. During his exile, he spent time on excursion throughout the hills and waters, exchanges with priests and concentrated on creative writing in order to be relieved from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indignation, depression and solitude. He believed beauty is in nature after he was overwhelmed with the beauty of the scene during the excursion. To that extent, he looked out for hills and waters by himself and also described the discovery of beauty of hills and waters in his literature. It was not only a simple expression of beauty of hills and waters but also he entrusted his own internal consciousness by using metaphors and symbol.

There is 457 prose of Liu Tsung-yuan collection. In this, you find the analyses of 29 pieces of prose that was not conventional but did have great literary art and show much artistic merit. Especially this is to resolve how Liu Tsung-yuan brought his ideas, emotions into his literature work.

First of all, within the first chapter, it shall introduce about the existing study of the present state, motive of the study, purpose and establishment of range.

Part 1 of the second chapter is about growth in literature regarding scenic beauty, formulate a definition of literature of scenic beauty. In accordance with his work, Liu Tsung-yuan had no choice but to take comfort from hills and waters, the beauty of nature during his exile in Young Ju(永州) · You Ju(柳州). The hapless fate of living in exile made him self-absorbed in creative work, and this had become a reason of getting high appreciation later.

Especially the literature of the beauty of nature has been praised as a higher standard of literature, this chapter introduce high standard of Liu Tsung-yuans work as proved through assessments of several scholars. Also will mention the charming lyrics, the significance of scene and beauty of scenic painting which were revealed in the description of the beauty of nature, and greatly improved the article value.

Jung Ji(亭記; description of bower) · Dang Ji(堂記; description of shrine) of the second part of the chapter 2 introduce the origin of buildings, purpose and reason, discovering of abandoned land, cultivate the land then construct bowers and shrines. This is a literature to praise a persons virtue who lived there. Jung Ji · Dang Ji is rich in content of admiration as this literature was presented to Liu Tsung-yuan to write. Most of people who were praised in this literature generally knew how to discover the hidden beauty of hills and waters and had virtue, scholarly attainment and morality. For that reason it made them to be in harmony with the beauty of nature. Liu Tsung-yuan thought once the meeting between human

and nature combine and the value becomes higher as the hills rise in height. Likewise, with reference to politics, if politician harmonise with the people, it will bring a solution to social problems. And eventually it will promote good society. This chapter alludes to this idea.

Within part 3, it refers to an analysis of Ji in respect of the Buddhism and shows the depth of understanding of Liu Tsung-yuan about the doctrine of Buddhism.

The place of exile Young Ju · You Ju was prevalent Namjongsun (南宗禪; dhyana of southern school). Liu Tsung-yuan was wholly devoted to Buddhism, which pursues natural understanding.

The beauty of unworldliness toward to comprehend appears in his work. Contrary to rejection of Han Yus(韓愈) view toward to Buddhism, who was contemporary, and led the Campaign of ancient writings, Liu Tsung-yuan had a different view and had the capacity for taking all different type of religio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y understanding each relig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It shows the depth of his ideology and penetrating thinking.

Liu Tsung-yuan also indicated vice of all superstitions that spread all around of the society caused by mistaken belief of Buddhism, and tried hard to enlighten the people. This chapter examines the beauty of utility in respect of his endeavour.

Within the chapter 3, it analyse feature of aesthetic appreciation in writing of 『Ji』 by beauty of anchorage and sublimate beauty. Yu

(幽) is a common word Liu Tsung-yuan used. This part will search for the meaning of Yu that is a high-toned courtesy, profound, suffocating due to pressed down, deep and deeper, barely visible. Also will refer to sublimate beauty. Hills and waters are magnificent, spaciousness, wide and grand, deep and wide, when this beauty of nature get along with suitable people, it gets more beautiful.

Most of 『Ji』 were written during Liu Tsung-yuans exile and they are deeply related with his living experiences. 28 proses among 39 『Ji』 prose were written during his exile. This proves that Liu Tsung-yuan created more literature in Young Ju · You Ju, the place of exile than the period he stayed in capital. It points out that he was deeply aspired to literary activity. In the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the literature of scenic beauty speaks for the feature of Liu Tsung-yuans work, therefore, we might say his prose of scenic beauty bloomed and ripen during the period in Young · You Ju.

Many peopl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Han yu and Liu Tsung-yuan, some of them clearly rated Han yu higher than Liu Tsung-yuan, however they could not reject that Han yu was unattainable to Liu Tsung-yuan in regard to this 『Ji』 . The value of aesthetic expression of 『Ji』 has been growing greatly; this is a very impressive literary accomplishment that was achieved during Liu Tsung-yuans procession of exile.